



[뉴스] '농협대통령' 누가되나 13명 출사표 02



Economy

코스피	2175.17 (-22.50)	코스닥	674.02 (+4.19)
금리 (미국 3년)	1.33 (-0.03)	환율 (원-달러)	1158.10 (+1.70) (2일)

‘입김세진’ 국민연금 지분을 살펴보니

삼성·현대차 등 99社 두자리 지분 쥐락펴락

5% 이상 지분 보유 313곳 달해 네이버·모비스 등도 10% 이상 기업 자율성 훼손 우려 목소리

주식시장 ‘큰손’으로 통하는 국민연금이 보유한 국내 보유주식 시가총액은 123조원에 달한다. 국민의 노후자금 700조원을 굴리는 국민연금의 영향력은 앞으로 더 커질 전망이다. 국민연금 최고 의결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가 최근 적극적 주주 활동 가이드라인을 의결하면서다. 주주권 행사의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자본시장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다줄 수 있다는 의견도 있지만 상장사들 사이에선 무리한 경영 개입으로 기업의 혁신성과 경영자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2일 나이스평가정보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99개 상장사의 지분을 10% 이상

보유 중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곳은 313곳에 달한다. 코스피와 코스닥 상장사 기준으로 최대주주인 곳이 18곳이다. 235개 상장사의 2대주주이며, 59곳의 3대주주로 등극돼 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은 보유주식을 활용해 기업 지배구조와 경영에 개입할 개연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우량상장사도 예외는 아니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삼성전자 지분 10.49%를 소유하며 단일 최대주주로 있다. 오너일가인 이건희 회장 (4.18%),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 관장 (0.91%), 이재용 부회장(0.70%)의 지분을 모두 합친 것의 두 배 수준으로 보유 지분 시가총액은 35조3700억원 정도다.

이 외에 SK하이닉스(10.01%), 네이버(9.48%), 현대차(10.05%), 포스코(11.72%)와 금융지주사 등의 지분율도 높은 편이다.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곳은 신세계(14.37%)다. 10% 이상 지분을 보유한 기업만 99곳에 이른다.

국민연금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국내 대기업 지분율을 계속 늘려나가는 중이다. 2018년 말 국민연금의 삼성전자와 현대차 보유 지분은 각각 9.25%, 8.70%에 불과했다. 하지만 최근 1년새 지분을 대량 매수하며 10% 이상으로 늘렸다.

이 외에 네이버(11.1%), 현대모비스(11.26%), LG화학(10.28%), SK텔레콤(10.98%) 등 총 30곳의 지분율도 최근 1년 동안 10% 이상으로 확대했다. 5% 이상 늘린 곳도 43곳에 달한다.

<2면에 계속>

/송태화 기자 alvin@metroseoul.co.kr



정부 신년합동인사회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정부 신년합동인사회에 참석하고 있다. 왼쪽부터 시계반대 방향으로 김영수 대법원장, 김정숙 여사, 문 대통령, 문희상 국회의장, 유남석 현재소장, 권순일 중앙선관위원장,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노영민 비서실장, 최재형 감사원장, 이낙연 총리. /연합뉴스

세액공제로 5G 망 투자 촉진

과기부, 1등 5G 국가 도약나서

정부가 세계 최초 5세대(5G) 이동통신 상용화에 이어 5G 일등 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관련 산업 육성에 나선다. 5G 망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5G 기지국에 대한 등록면허세 완화 등 기업들의 투자 부담을 낮춘다. 실감콘텐츠 산업 육성과 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선점도 지원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일 올해부터 글로벌 1등 5G 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관련 산업 육성에 나선다고 밝혔다.

우선 5G 상용화 이후 가입자들의 서비스 만족도가 낮았던 네트워크 품질 개선을 위해 ‘5G 투자 촉진 3대 패키지’를 관계부처와 함께 추진한다. 5G 망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수도권 지역 기준 1%에서 2%로 높인다. 비수도권 지역의 공제율은 전년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지만, 세액공제 대상에

공사비를 새롭게 포함한다.

현재 할당대가, 전파사용료로 이원화된 주파수 이용대가 체계는 주파수 면허료로 통합한다. 주파수면허료는 대상 주파수, 용도 및 대역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새로 설치하는 5G 기지국에 대한 등록면허세도 완화한다. 정부는 올해부터 예비타당성조사 신청,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등을 통해 새로 구축되는 5G 기지국에 대한 등록면허세 부담 완화해 5G 투자 확대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5G 기반의 새로운 단말·서비스에 대한 시험·검증을 지원하기 위한 테스트베드를 7개소 추가 구축해 총 12개소를 운영한다. 5G 연관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공공서비스·산업·과학기술 분야에 실감콘텐츠를 접목하는 프로젝트에 150억원을 투입하고 드론 서비스 개발도 67억원을 투자한다.

/김나인 기자 silkn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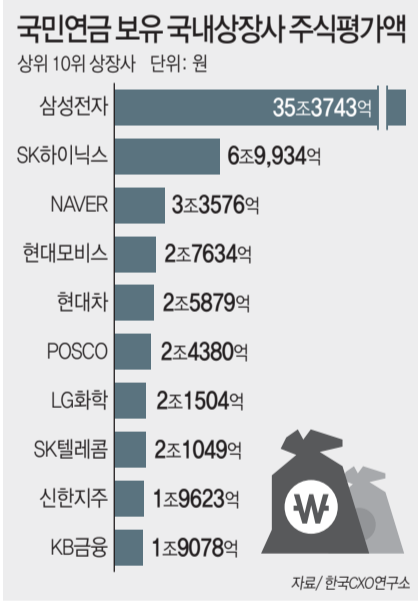
한화케미칼-큐셀 합병 ‘한화솔루션’ 공식 출범

한화케미칼과 한화큐셀앤드첨단소재가 합병해 ‘한화솔루션’이 공식 출범했다.

한화케미칼은 2일 서울시 중구 세종호텔에서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사명 변경 등을 담은 정관 변경 건과 신규 사내이사 선임 건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신규 사명인 한화솔루션은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사업 통합을 통해 다양한 영역의 해결책을 제시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날 주주총회에서는 김희철 한화큐셀앤드첨단소재 큐셀 부문 대표이사와 류두형 첨단소재 부문 대표이사 등 2명에 대한 신규 사내이사 선임 건도 통과됐다.

한화솔루션은 이에 따라 이구영 케미칼 대표, 김희철 큐셀 대표, 류두형 첨단소재 대표 등 3개 부문 각자 대표 체제로 운영 된다. /김수지 기자 sjkim2935@



2020년은 ‘함께 행복’의 해

2020, 똑같은 두 숫자가 더해진 한 해처럼 행복에 또 다른 행복이 더해지는 한 해가 되길 함께이기에 ‘행복’이 더 커지는 새해가 되길 SK도 함께 소망하겠습니다



211만명·450조 ‘농협대통령’ 누가되나... 13명 출사표

〈조합원 수〉

〈총 자산〉

농협중앙회장 선거 D-28

영남권 5명, 호남권 3명 등 대의원 조합장 293명 투표
농협금융지주·경제지주 등 수십여개 계열사 CEO 권한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본관. /농협중앙회

조합원 211만명은 물론 농협의 경제지주와 금융지주를 대표하는 농협중앙회장 선거에 13명의 후보자가 뛰어 들었다.

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달 31일 실시하는 제24대 농협중앙회장 선거에 13명의 예비후보자가 등록했다.

관련법 개정으로 이번 선거부터 예비후보자제도가 도입됐다. 예비후보자는 전화(문자)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거나 농협중앙회가 사전 공개한 행사 장

소에서 명함을 배부하며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이번 선거 예비후보자는 ▲강성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중앙자문위원 ▲강호동 합천 울곡농협 조합장 ▲김병국 전 서충주농협 조합장 ▲문병완 보성농협 조합장 ▲여원구 양서농협 조합장 ▲유남영 정읍농협 조합장 ▲이성희 전

낙성농협 조합장 ▲이주선 송악농협 조합장 ▲이찬진 전 여의도연구원 정책자문위원 ▲임명택 전 농협은행 인주로지점장 ▲천호진 전 농협북대공공관장 사장 ▲최덕규 전 가야농협 조합장 ▲홍성주 봉양농협 조합장 등이다.

지역별로 보면 영남권 후보가 5명으로 가장 많고, 호남권에서 3명이 나왔

다. 충청권과 경기도는 각각 2명씩이며, 강원권은 한 명이다.

중앙회장은 전국의 조합장 중 지역·품목별 대의원 조합장 293명이 투표하는 간접선거 방식으로 뽑는다. 지역별 대의원 수는 경북이 45명으로 가장 많고 ▲경기 43명 ▲충남 37명 ▲경남 34명 ▲전남 34명 ▲전북 27명 ▲강원 24명 ▲충북 16명 등의 순이다.

아직 본 후보자 등록까지 보름 가량 남았지만 6명이 출사표를 던졌던 지난 23대와 비교하면 경쟁이 두 배 이상 치열해진 셈이다. 임기 4년 단임제에 비상임 명예직임에도 모두가 선망하는 자리가 된 것은 실질적인 권한이 국내 대기업의 최고경영자(CEO)를 능가하기 때문이다. 211만여명의 조합원 대표할 뿐만 아니라 총 자산 450조원대의 농협금융지주와 농협경제지주 등 수십여개의

계열사 인사 등 최고경영자로서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중앙회장의 막강한 권력에 비해 값싼 이 선거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 지역농협 관계자는 “선거가 한 달 남은 만큼 후보자들의 정책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지만 후보자 토론회 등 마땅한 수단이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농협중앙회 홈페이지나 SNS 등 외에는 후보를 검증할 수 있는 기회가 없고, 그나마도 몇몇 후보는 정책제시도 하고 있지 않아 값싼 선거나 돈 선거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당초 김병원 전 중앙회장의 임기는 오는 3월 만료되지만 4월 총선 출마를 위해 사퇴하면서 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본 후보자 등록기간은 이달 16일부터 이틀간이다.

/안상미 기자 smahn1@metroseoul.co.kr



새해 첫날 코스피 1%대 하락
올해 첫 거래일인 2일 코스피가 큰 폭으로 떨어져 2,180선이 무너졌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22.50포인트(1.02%) 내린 2,175.17로 마감했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KEB하나은행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보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삼성그룹, 준법감시위원장에 김지형



법원 제시 3개 숙제 중 첫번째 완료
조직개편 등 특단의 대책 이어질 듯

삼성그룹이 법원의 첫번째 숙제를 완료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그룹은 ‘준법감시위원회’ 구성을 준비하고 있다. 대법관 출신 김지형 변호사가 위원장으로, 외부인사를 위원으로 꾸밀 것으로 알려졌다.

김지형 변호사는 대법관 재임 시절 주로 진보 성향 의견을 냈던 인물이다. 김

영관법으로도 유명한 김영란 전 대법관 등과 함께 ‘독수리 5형제’로도 불렸다.

공직에서 물러난 후에도 사회갈등을 중재하는 일에 헌신했다. 특히 삼성전자 반도체질한 조정위원회 위원장으로 삼성전자와 깊은 인연을 맺고 있다. 구의역 지하철 사고 진상규명위원장과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위원장 등도 김 변호사의 주요 활동 중 하나다.

현재는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심사위원회에서 민간 위원장도 맡고 있다. 현 정부와 코드가 잘 맞는 법조계 인사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앞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지난 달 6일 정준영 부장판사로부터 “정치 권력으로부터 또 다시 뇌물 요구를 받

라도 응하지 않을 그룹 차원의 답”을 요구받았었다. 업계에서는 준법감시위원회가 법원의 뜻을 따르기 위한 조치로 보고 있다. 이 부회장은 오는 17일 4차 공판을 받을 예정이다.

삼성이 준법감시위원회를 시작으로 조직 개편 등 특단의 대책을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지난해 10월 첫 공판에서 ▲과감한 혁신 ▲내부 준법감시제도 마련 ▲재벌체제 폐해 시정 등 3가지를 제시했었기 때문이다.

준법감시위원회가 내부 감시제도를 마련한 것이라면, 과감한 혁신과 재벌체제 폐해 시정 과제도 연말에 내놓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김재용 기자 juk@

방통위·과기부, AI 이용자 보호나서

지능정보사회 정책센터 설립

방송통신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정부가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발생할 수 있는 인종·성별 차별, 딥페이크(딥러닝+페이크) 영상, 페이크뉴스(가짜뉴스) 등 다양한 부작용을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해 AI 이용자 보호를 강화한다.

방통위는 AI 등 지능정보기술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확대됨에 따라 이용자 보호를 위한 별도의 전담기구를 신설하고, 과기정통부는 최근 AI 전담조직으로 출범한 인공지능(AI)국에서 AI 시대의 윤리를 담은 윤리원칙 마련에 나섰다.

방통위는 AI 시대에 지능정보기술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속도가 빨라지고 있어 이용자 보호정책에 대한 종합적이고 중장기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내에 ‘지능정보사회 정책센터’를 설립한다고 2일 밝혔다.

센터는 크게 지능정보시대 이용자 중심의 정책개발을 지원하는 연구혁신 부문과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정책 네트

워크를 운영하는 정책실행 부문 등 두 축으로 나누어 운영된다.

먼저, 연구혁신 부문에서는 지능정보기술이 초래할 사회적·윤리적 이슈와 영향을 예측하는 중장기 연구과제를 수행한다. 또 지능정보서비스에 대한 이용자의 인식변화를 추적하기 위한 패널 조사 등을 실시해 데이터를 수집·분석하고, 해외 이용자보호 법제도 정립 사례를 연구한다. 이를 바탕으로 이용자 보호를 위해 정부가 나아가야 할 정책방향과 제도개선 방안을 제안할 계획이다.

정책실행 부문에서는 이용자 정책방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다차원적인 협력 네트워크를 운영한다. 이용자, 사업자,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회를 구성해 지난 11월 발표한 AI 윤리원칙인 ‘이용자 중심 지능정보사회를 위한 원칙’의 실천방안을 논의한다. 이 원칙은 현재는 기본 원칙 7개 문장으로만 구성돼 구체적인 내용을 담지 못해 협의회에서 세부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채윤정 AI전문기자 echo@

이재용, 새해 첫 행보 ‘초격차’ 현장 방문

(삼성전자 부회장)

화성사업장 반도체 연구소 방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새해 첫 행보로 ‘초격차’ 현장을 찾았다.

이 부회장은 2일 화성사업장 반도체 연구소를 방문해 3나노 공정 기술을 보고 받고 DS 부문 사장단과 함께 차세대 반도체 전략을 논의했다.

이 부회장이 새해 첫 경영 행보를 반도체 개발 현장에서 시작한 것은, 메모리에 이어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도 세계 1위가 되겠다는 비전을 다시 한번 임직원과 공유하며 목표달성 의지를 다진 것이라는 분석이다.

3나노 반도체는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로 개발에 성공한 기술로, 차세대 기술인 ‘GAA’를 적용해 완성할 수 있었다. 5나노 제품에 비해 칩 면적을 35% 이상, 소비전력을 50% 감소시키면서도 성능은 30% 빠르다.

이 부회장은 “과거의 실적이 미래의 성공을 보장해주지 않는다. 역사는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이다. 잘못된 관행과 사고는 과감히 폐기하고 새로운 미래를 개척해 나가자”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화성사업장을 방문해 첨단 기술을 확인하고 사업보고를 받았다. /삼성전자

당부했다.

이어서 “우리 이웃, 우리 사회와 같이 나누고 함께 성장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자 100년 기업에 이르는 길임을 명심하자”고 사회 공헌 활동도 강조했다. /김재용 기자

>> 1면 ‘입김 세진 국민연금’서 계속

25곳 주식가치 1조 넘어 재계 경영권 개입 불안감

한국CXO연구소에 따르면 국민연금 주식 가치가 1조원이 넘는 곳은 모두 25곳에 달한다. 2016년과 비교해 7곳 더 많아졌다.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상장사들의 주식 평가액은 118조8382억원으로 집계됐다. 2016년 2분기 말(88조1625억원) 보다 34.8% 증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연금의 목소리는 더욱 커지게 됐다. 국민연금은 지난달 27일 2019년 마지막 회의를 통해 황령·배임 등 불법행위로 기업가치와 주주권을 훼손한 기업에 대해서 법원 판결과 관계없이 적극적 주주 활동에 나서기로 했다.

재계에선 불멘소리가 나온다. 이들은 투자기업에 대한 경영 참여를 쉽게 할 수 있어 대내외적인 불안감을 높일 수 있다고 우려한다.

코스피 상장사인 P사 관계자는 “사실 국민연금이 경영 전문가도 아니지만, 기업의 경영권에 쉽게 개입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된 것은 혁신성을 훼손은 물론 경영 자율성을 해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송태화 기자 avin@

‘새벽·로켓·온-오프’... 전선 넓히는 배송전쟁, 끝은?

지역·상품 한계 허물고 사업 확장
SSG닷컴, 새벽배송상품 80% 늘려
6개월 만에 서울 전역으로 확대

쿠팡, 대구에 메가 물류센터 설립
편의점도 가세...CU, 배송점포 ↑



SSG닷컴X키티버니포니 디자인 협업 알바백 스페셜 에디션

올해는 더욱 배송 경쟁이 격화될 전망이다. 배송 권역 확대는 물론, 배송 상품도 신선식품에 국한되지 않고 더욱 다양해지고 있어서다. 배달 서비스에서 한 발짝 비켜 있었던 편의점들도 새해 배달 경쟁에 가세했다.

신세계그룹이 운영하는 SSG닷컴은 지난 1일부터 서울 전 지역으로 새벽배송 권역을 확대했다. 지난해 새벽배송의 시작에 의미를 뒀다면, 올해부터는 기존 새벽배송의 단점을 보완해 차별화 경쟁력을 집중적으로 보여준다는 계획이다.

최근 가동을 시작한 온라인스토어 ‘네오003’을 통해 인프라 혁신을 보여 주는 한편, 백화점에서 구입할 수 있는 상품까지도 새벽배송으로 판매하며 신

선식품 ‘장보기’ 시장의 경쟁 우위를 확고히 할 방침이다.

SSG닷컴은 지난해 6월 말 서울 11개 구 대상 일 배송물량 3000건으로 첫 새벽배송을 시작한 이래, 6개월 만에 관공서나 학교 등 비주거지역을 제외한 서울 전역으로 배송 권역을 확장했다.

경기지역은 기존 판교와 수지, 일산을 비롯해 김포, 검단, 인천, 하남, 수원, 청라, 부평, 구월, 광명, 송도, 시흥, 시화, 안산, 안양, 군포, 의왕, 과천, 동탄, 평촌 등 지역이 포함된다. 하루에 배송 가능한 물량 또한 총 1만건으로 두 배 늘렸다. SSG닷컴은 네오002와 003

의 운영 효율을 지속적으로 높여, 2020년 말까지 서울 및 수도권 지역 총 2만 건까지 새벽배송이 가능하게 한다는 목표다. 새벽배송 취급상품은 총 1만5000개에서 2만7000개까지 80% 확대하는 한편, ‘백화점 식품관’을 열고 즉배송과 새벽배송으로 주문이 가능하도록 했다. 서비스 초기 1만 종에 비해 구색을 세 배 가까이 늘린 셈이다.

특히 ‘국내 5대 백화점’에서 구매할 수 있는 900종의 상품을 선별, 일반배송은 물론 새벽배송으로도 구입할 수 있도록 했다. 피코나 노브랜드 등 이마트 PB와 HMR 등 가공식품은 물론, 당일새벽 5시에 수확해 오후에 배송하는 신선딸기 등 극신선 상품을 선보이는 것이 특징이다.

쿠팡은 대구 국가산업단지 부지에 2021년까지 축구장 46개 넓이(약 10만 평 규모)의 초대형 풀필먼트 센터를 건설한다. 로켓배송을 위한 전국 단위 물류 시스템의 주요 거점 역할을 할 전망이다.

대구 물류센터는 영남 전역 외에도 충청과 호남지역까지 커버할 수 있는 물류 거점으로 전국 물류 네트워크의 핵심 설비 가운데 하나다. 또 인공지능

(AI)을 이용한 차세대 물류 및 배송 시스템은 편리한 상품 관리, 배송 동선 최적화, 친환경 물류장비 활용 등을 통해 작업자의 부담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편의점 택배 서비스도 더욱 확대된다. GS리테일이 운영하는 편의점 GS25는 최근 편의점 택배 전용 애플리케이션(이하 앱)을 선보였으며 온·오프라인 결합을 통한 편의점 택배 서비스 개선에 앞장서고 있다. 앱의 주요 기능은 택배 예약 및 실시간 배송조회, 편의점 위치 조회 서비스다. 특히 발송하려는 택배 정보를 앱에서 미리 등록하면 GS25에서 별도의 배송 정보 입력 없이 택배 무게 측정 후 접수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접수 시간을 절반 이상 단축하는 게 가능해졌다.

편의점CU는 배달서비스를 운영하는 가맹점이 올해 1분기 내 5000개 점포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CU는 “편의점 배달서비스 운영점이 지난해 7월 2000개 점에서 5개월이 지난 지금은 3000개 점포로 늘어난 상태”라면서 “배달 서비스 운영을 원하는 등록대기 점포 수만 약 2000곳에 달할 정도로 가맹점들의 관심이 크다”고 전했다.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일부 점포는 24시간 배달서비스 운영도 준비 중이다.

업계 관계자는 “올해 유통업계는 빠른 배송은 물론, 극신선 상품으로 차별화를 꾀할 것”이라며 “온·오프라인 채널의 경계없이 치열한 배송 경쟁이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재계 총수 신년 키워드는 #지속가능 #디지털혁신 #고객가치

미래성장동력 확보 등 혁신 주문

2020년 경자년(庚子年) 새해를 맞은 재계의 화두는 글로벌 경제 위기와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가운데 ‘지속 가능한 미래’와 ‘디지털 혁신’ 및 ‘고객 가치’로 정리된다.

국내 주요 그룹 총수들은 올해도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겠지만 도전 정신을 바탕으로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글로벌 리딩 기업으로 성장하겠다는 포부를 내놨다. 국내 주요 그룹 총수들은 2일 신년사를 통해 글로벌 경영 불확실성에

대한 위기감을 드러내면서 4차 산업혁명 시대 생존을 위한 혁신을 주문했다. 여기에 고객 관점에서 생각하는 혁신을 바탕으로 고객 가치를 최우선으로 뒀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6면>

삼성전자는 총수인 이재용 부회장대신 김기남 부회장 주재로 시무식을 갖고 100년 기업 실현을 당부했다. 김 부회장은 이날 신년사에서 “올해 세계 경제는 글로벌 저성장 기조 고착화, 정치적 불확실성의 확대, 투자·수출에서 소비로의 침체 확산 가능성 등으로 인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2020년은 ‘미래 세대에 물려줄 100년 기업’을 만들어 나갈 원년으로, 새로운 미래를 위한 성장과 도약의 해로 만들자”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창의성과 혁신성을 접목해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자”고 당부했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부회장은 ‘시장의 판도를 주도해 나가는 게임 체인저로의 도약’을 목표로 올해 미래 분야에서 구체적 성과를 내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특히 고객을 위한 변화와 혁신을 이룰 것으로 강조했다. 정 수석부회장은 “미래 분야에서 가시적인 성과

를 창출하겠다”며 공격경영을 예고했다. 정 수석부회장은 전동화·자율주행·모빌리티서비스를 핵심 미래 시장으로 제시하며 “미래 성장을 위해 그룹 총투자를 연간 20조원 규모로 크게 확대하고 향후 5년 간 총 100조원 이상을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기술과 사업 기반, 조직 문화 혁신을 강조하면서 이 같은 변화와 혁신 노력의 최종 지향점은 ‘고객’이라고 강조했다.

최태원 SK 회장은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신년사가 아닌 일반 시민과 고객 등 이해관계자 전체를 대상으로 한

대담 형식을 통해 올해 그룹 경영의 지향점을 밝혔다. 최 회장은 그룹의 경영화두인 ‘사회적 가치’와 ‘행복’, 그리고 이를 동력으로 한 ‘딥체인지’를 기반으로 올해도 그룹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올해부터 ‘새해인사모임’을 없애고 ‘디지털 영상’ 파격을 택한 구광모 LG 그룹 회장은 그룹의 오랜 경영철학인 ‘고객’을 강조했다. 구 회장은 6분여 동영상 편지를 통해 “새해 이것 하나만큼은 반드시 우리 마음에 새기면 좋겠다”며 “바로 ‘고객의 마음으로 실천’”이라고 언급한 뒤 “고객의 마음을 정확하고 빠르게 읽기 위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지혜도 필요하다”고 했다.

/양성운 기자 ysw@

파주시 최초

2021 경기도 종합체육대회

한반도 평화수도

유치확정

2021년 5월

- 1 경기도 체육대회
- 2 경기도 장애인 체육대회

2021년 10월

- 3 경기도 생활체육대축전
- 4 경기도 장애인 생활체육대회

한반도 평화와 화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데이터는 현대판 석유... 예산투입·규제완화 절실”

4차혁명시대 재정부용전략
위정현 교수에 듣는다

과거 IT 최강국서 현재 주변국으로
현재 韓 부익 日 처럼 부동산에 집중
진보·보수 떠나 신사업 육성이 먼저

“대한민국은 세계가 경쟁하고 있는 4차산업혁명 계주에서 밀리고 있는 게 아니라 출발 자체를 못했습니다.”

위정현 중앙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2일 메트로경제와 인터뷰에서 “과거 IT(정보기술) 최강국인 대한민국은 주변국으로 전락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2020년 경자년(庚子年)을 맞았지만, 한국의 경제 성장과 산업 발전에 대한 전망은 여전히 어두운 실정이다. 특히 정부는 올해 512조2500억원이라는 역대 최대 예산을 쥐었지만, 재계·학계 등은 과도한 기업 규제와 복지 확대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위 교수에게서 4차산업시대에 한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정부의 올바른 재정운용 방안 등에 대한 고언을 들었다.

다음은 위 교수와의 일문일답이다. -먼저 지난해 수출이 전년보다 10.3% 감소하며 3년 만에 역성장을 기록했다. 반대로 국가채무비율과 보건·복지·



위정현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가 2일 메트로신문과 인터뷰하고 있다. /손진영 기자 son@

고용 분야 예산 증가율은 올라가면서 나라빛은 늘고, 쓸 돈은 많은 실정이다. 어떤 점이 이런 상황을 불러왔다고 분석하나.

“세수(세금수입)가 팽창예산을 감당할 수 있을지, 과연 대한민국은 안정적으로 세수를 거둘 수 있을지 여부가 관건이다. 미국-중국 무역마찰이 완화됐지만, 올해 해결될 것이라 보장 없다. 대내외 악상황에 놓인 대한민국 경제가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초입 단계에 들어선 것 아닌가 우려스럽다. 나는 초입 단계에 들어섰다고 생각한다. 현재 대한국민의 부익은 일본처럼 부동산으로 가고 있다. 또 하나 문제는 내부 산업 구조조정이 필요하지만, 인공지능(AI)·빅

데이터 등 4차산업혁명 기반 경제 이행 과정에서 곳곳에 암초가 있다. 정부의 팽창예산은 513조원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내년에는 515조원을 돌파할 것이라고 본다. 예산은 웅덩이에 물을 부어놓고 퍼마시는 것이다. 마실 물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역대 최대 예산안에 대한 정부의 방안 운용 우려도 나온다. 매년 예산 줄출 통과 문제가 나오는데, 통제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라고 보나.

“기본적으로 지난해 국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가 정쟁으로 예산 심의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 정부는 국회에서의 삭감을 예상하고 예산을 짤다. 일정 규모의 거품이 들어있는 것이다. 각 국가

는 예산 심의·관리·감독 등을 국회가 하지만, 한국은 작동하지 않는다. 국회가 기능을 충분히 하지 못하면 민간 차원에서 전문성 있는 단체나 대학, 전문가 등이 예산 집행과정을 감시해야 한다. 관리·감독은 국회의 의무이고, 감시는 시민이 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향후 전문성을 가진 민간 전문가가 많이 들어와야 한다. 당리당락을 떠나 순수하게 예산 틀에서 집행에 문제가 없는지 감시해야 한다.”

-올해 예산의 25%는 보건·복지·고용 분야다. 어떤 부문에 예산을 많이 투입해야 한다고 보나.

“진보와 보수 떠나 역대 정부를 보면 총론은 모두 알고 있다. 예를 들면 네거티브 규제와 신산업 육성 등은 모든 정부가 공약 등을 통해 얘기했다. 하지만 강론은 안되고 있다. 새로운 사업이 나왔을 때 법에 저촉된다고 막는 게 아니고, 해보게 하는 것이 맞다. 무엇보다 정치권과 정부의 의지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정치권은 기득권과 구산업의 포로가 돼 있다. 가령 최근 타다 등 공유경제 현안에 있어서 여야가 동조하고 있다. 여야는 싸우는 집단인데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다.”

-4차산업시대에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길.

“500조원이 넘는 충격적인 예산을

투입하고도 국민의 삶은 얼마나 바뀌었나. 현재 한국 사회는 철저하게 과거 회귀형이다. 우리가 2010년까지 IT 강국이 될 수 있었던 배경을 보면 1997년 외환위기(IMF 사태) 당시 뭐든지 해야 한다는 의지가 있었다. 주저앉을 수 없다는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규제를 넘어 뭔가 새로운 걸 시도할 때 브레이크(제동)가 걸리지 않았다. 4차산업기술 기반 사회로 빨리 바뀌고, 이를 위한 재정을 적극적으로 투입해야 한다. 지금은 모든 걸 규제하고 있다. 주체는 구산업 이해 관계자이다. 데이터는 현대판 석유다. 하지만 석유를 만들지 못하게 한다. 데이터 기반 AI가 나오고, 기술을 통해 여러 디바이스를 제어한다. IoT(사물인터넷)에도 기술을 적용해야 하는데 우리 전부 멈췄다. 또 하나는 스타트업 측면에서 좋은 모델이 생겨야 한다. 중국의 스타트업이 성공하는 이유는 부동산에서 번 자금을 이 분야 투자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시장이 작고, 부동산 자금이 들어오지 않으니 정부가 계속 자금을 끌고 들어오는 상황이다. 중요한 건 민간이 들어와야 한다는 것이다. 주체가 약하고, 윤리적이란 문제 때문에 현재는 성장길이 막혔다. 예산 투자와 규제 완화가 절실하다.”

/석대성 기자 bigstar@metroseoul.co.kr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오후 청와대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연합뉴스

文대통령, 추미애 장관 속전속결 임명

檢개혁 마무리 의지 표명

‘가족 비리’로 물러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리가 80일만에 채워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임명했다. 문 대통령이 국회에 요청한 추 장관 인사청문 결과보고서 재송부 시한 만료 7시간만이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출입기자단에 문자메시지를 통해 “문 대통령이 오전 7시쯤 추 장관 임명을 재가했다”고 알렸다. 이어 “추 장관 임가는 이날 0시부터 시작됐다”고 부연했다. 추 장관은 임명장을 받으면 곧장 이날 오후부터 취임식을 진행한 후 업무를 시작한다.

문 대통령은 앞서 지난달 31일 추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 결과보고서를 지난 1일까지 재송부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다. 공휴일이 하루 포함된 상황에서 이들의 시한을 문 대통령이 설정한 것은 사실상 임명 강행 의지를 나타낸 셈이다.

더욱이 문 대통령으로서 공이 장관

임명에 시간을 더 투자할 필요가 없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은 상황에서 검찰개혁을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선택이라는 게 정계 중론이다.

이를 뒷받침하듯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 때 “문 대통령 임명 추 장관 임명을 재가했다”며 “현재 공수처법 설치에 따른 후속 조치와 검경수사권 조정 등 당면 현안이 산적해 있기 때문에 어느 때 보다도 굳은 개혁 의지와 과감한 결단이 (추 장관에게) 요청된다”고 했다.

윤 부의장은 “민주당 역시 조속한 검경수사권 조정법 등의 처리를 통해 추 장관의 검찰개혁 노력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도 했다.

꼭두새해부터 장관직 업무를 수행하는 추 장관은 문재인 정권의 3번째 법무부 장관으로, 현 정권의 핵심 국정과제인 ‘검찰개혁 완성’이라는 중책을 수행한다. /우승준 기자 dn1114@

운항철수·희망퇴직... 항공사들 생존 날갯짓

작년부터 이어온 부진 새해에도 여전히
최소한의 지출만 지향하며 방어태세

새해를 맞았지만 항공업계는 지난해부터 이어져 온 업황부진으로 여전히 난기류에 빠져 있다. 항공사들은 이에 맞서 다양한 방식으로 수익성 제고에 나서려는 모습이다.

항공사들은 지난해 일본 여행 보이콧·보잉 737 이슈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예상치 못한 대내외 변수들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성수기에도 적자 전환할 만큼 수익성에 큰 타격을 입었다. 게다가 여전히 업황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아 올해도 항공사들이 ‘보릿고개’를 겪을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돼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이미 대부분은 최소한의 지출만을 지향하며 ‘방어 태세’에 들어간 모양새다.

2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국적 저비용 항공사 에어부산은 대구공항에서 완전히 철수하기로 결정했다. 에어부산은 한 때 대구공항에서 최대 10개의 노선을 운항했으나 최근 인천발 노선에 신규 취항함과 동시에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오는 3월 29일부터 대구-제주와 대구-타이베이 노선에 대한 비운항 조치 및 완전한 철수를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수요가 많은 인천발 노선에 취항하는 대신 수익이 낮은 대구발 노선을 정리해 수익성을 제고하기 위한 결정인 것으로 분석된다.

에어부산 관계자는 “항공기가 내년



에어부산의 항공기 모습. /에어부산

정도가 있다. 그런데 항공기 운영에 있어 대수 자체가 지금보다 오히려 조금 줄어든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항공기 운영 자체에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대구 쪽에 지금 항공기가 있는 것을 빼기로 했다”며 “그다음에 대구 쪽 노선이 일본이나 동남아 위주인데, 일본은 당연히 지금 상황이 안 좋고 동남아 노선도 또 일본이 너무 안 되다보니 동남아 쪽에 많이 몰려 대구 노선 자체의 수지가 안 좋다. 그런 여러가지를 고려해서 대수를 줄이게 됐다”고 밝혔다.

많은 항공사들은 무급휴직을 넘어 희망퇴직까지도 접수받기에 나섰다. 이스타항공은 제주항공에 인수절차를 밝기 전부터 신청자에 한해 1~3개월의 무급휴직을 시행했다.

대형 항공사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도 최근 희망퇴직을 신청받았다. 대한항공은 지난해 10월 첫 단기 무급휴직을 시행하고 지난달에는 2013년 이후 6년만에 희망퇴직을 받았다. 아시아나항공도 지난해 5월에 이어 지난달 24일부터 오는 12일까지 희망퇴직을 접수 받는다. 이 같은 조치는 유류비 등 다른

비용 대비 인건비 절감이 비교적 쉽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제주항공에 매각을 진행 중인 이스타항공도 구조조정의 가능성이 점쳐진다. 제주항공은 이스타항공에 대해 이달 중으로 실사와 계약 체결을 완료할 예정인데 비용 절감 및 수익성 향상을 도모한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제주항공은 동일 노선에 대해서는 공항 지점 및 인력 운영, 공항 발권카운터 확대 및 탄력 운영, 항공기 정비 인력 지원 및 파트 세어링 등으로 규모의 경제 이점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대부분 항공사들의 실적은 부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호균 명지대 경영정보학과 교수는 “국내 여행 수요는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지만 이런 소비욕구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소득부분에서 경제성장 등 외적인 변수나 불안 요인이 많기 때문에 여행 수요가 전반적으로 작년 대비에 비해 많이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본다”고 말했다.

/김수지 기자 sjkim2935@

5대 지주 혁신금융 전면에... 대출 프로세스 확 바꾼다

신한금융 혁신기업에 62조 목표
KB금융 7000억 규모 펀드 조성
우리銀 기술금융 순증가액 5.7조
농협금융 농산업 특화된 혁신금융
하나금융 3년간 20조원으로 상향

2020년 새해 금융권 화두로 '금융의 사회적 가치 창출'이 중요하게 떠오르는 가운데, 5대 금융지주(신한·KB·우리·하나·NH농협)가 그룹차원의 혁신기업 투자와 디지털화를 주요 경영전략으로 내세웠다.

정부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혁신성장을 은행 산업의 핵심 기능으로 규정하면서 각 금융지주 또한 전폭적 지원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5대 금융지주, 혁신금융 지원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3월 '신한 혁신금융 추진위원회'를 출범한 신한금융그룹은 2019년부터 5년간 혁신기업 금융지원에 62조원, 직접투자에 2조1000억원을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잡았다.

출범 9개월인 지난 11월을 기준으로 13조8000억원의 금융지원과 4600억원

금융지주	추진계획
신한금융	<ul style="list-style-type: none"> 5년간 62조원 규모 금융 지원 (동산담보 0.2조원, 기술금융 56.2조원, 일자리창출 혁신성장 협약 보증대출 5.5조원) 5년간 2조1000억원 규모 직접 투자 (신한퓨처스랩, 신한BNPP창업벤처펀드 등)
KB금융	<ul style="list-style-type: none"> 5년간 62조6000억원 규모 금융 지원 5년간 3조6000억원 규모 직접 투자
우리금융	<ul style="list-style-type: none"> 5년간 31조1000억원 규모 금융 지원 (스마트산업단지·스마트공장기업 등) 5년간 2조1000억원 규모 직접 투자
하나금융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9~2021년까지 3년간 20조원 규모 금융지원 비상장 주식 마켓 플랫폼 등록 기업에 대한 지식재산 금융서비스 제공
농협금융	<ul style="list-style-type: none"> 5년간 19조원 규모 금융 지원 (동산담보 0.2조원, 기술금융 17조원, 성장성 기반 대출 1.8조원) 농산업 전문 벤처캐피탈(VC) 활성화



자료/각사

의 직접투자 성과를 냈다.

KB금융그룹은 창업·벤처·중소기업을 지원하는 'KB혁신금융협회'를 운영하며 5년간 혁신기업 금융지원에 62조6000억원, 직접투자에 3조6000억원을 공급한다.

지난해 10월 말을 기준으로 혁신기업 지원을 위해 KB증권·KB인베스트먼트 등이 약 70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했다.

우리금융그룹은 지난 5월 혁신금융 추진위원회를 출범하고 ▲금융지원 ▲

여신제도개선 ▲투자지원 ▲핀테크지원 등 창업·벤처·중소기업의 혁신성장 지원에 나섰다. 2019년부터 5년간 혁신기업 금융지원에 31조1000억원, 직접투자에 2조1000억원 공급을 목표로 잡고, 지난 9월 말 기준 금융지원 6조6000억원, 직접투자 1840억원을 기록했다.

특히 기술력을 보유한 중소기업에 대한 우리은행의 기술금융 순증가액은 5조7000억원으로, 시중은행 중 가장 많은 금액이 지원됐다.

지난해 6월 혁신금융협회를 출범

시킨 하나금융그룹은 혁신금융 지원 규모를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20조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주력 계열사인 KEB하나은행은 기술보증기금, 코스콤과 함께 블록체인 기반의 '비상장주식 마켓 플랫폼(Be My Unicorn)'에 지식재산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하나은행은 플랫폼에 등록된 기업에 대한 기술평가정보와 지식재산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농협금융지주는 농산업에 특화된 혁신금융을 추진한다. '청년스마트팜' 대출 확대와 더불어 농산업 전문 벤처캐피탈을 활성화해 5년간 총 19조원의 기술금융을 공급한다.

◆"기술금융맞춤 여신심사모형 구축해야"

시중은행이 혁신금융을 추진하기 위해 다양한 기술금융과 벤처대출 상품을 제시하고 있지만, 여전히 혁신금융에 특화된 여신심사모형은 갖춰나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기술금융이나 벤처대출이 기존 대출 심사 방식인 재무구조를 기반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한계를 지적한다.

금융경제연구소 나수미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재무구조에 기반한 대출 심사는 과거 기업의 실적을 바탕으로 평가하는 것이므로, 미래 기술의 시장성이나 비즈니스 모델의 성장성을 평가해 금융을 공급한다는 혁신금융의 실질적 의미와는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

특히 벤처대출을 시작한 금융그룹의 경우, 지주사 아래 벤처캐피탈(VC)이 없을 시 금융지원이 필요한 벤처기업을 발굴하고 선별하는 데 어려움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현재 하나금융그룹이 하나벤처스, KB금융그룹이 KB 인베스트먼트를 VC 자회사로 가지고 있으며 우리금융그룹과 신한금융그룹은 그룹차원의 직접투자에 집중하고 있다.

나 연구위원은 "금융사는 기술금융 분야의 고객을 발굴하기 위해 벤처캐피탈과 투자 또는 대출에 대한 공동 실사를 진행하는 등 긴밀한 협력 관계를 갖춰나가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며 "정부 또한 은행의 혁신금융을 장기적 관점에서 고려해 일관성 있는 정책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민영 기자 hong93@metroseoul.co.kr

교보생명, 직무급 대상 직원 전체로 확대 "고객과 쌍방향 소통... 해외진출 선택 아닌 필수"

일의 중요도, 책임 따라 급여 결정

교보생명은 올해부터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직무급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이미 직무급제를 적용하고 있는 임원과 조직장에 이어 노사 간 상호 협의를 통해 올해부터 직무급을 일반직 전체로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직무급제란 일의 중요도와 난이도 업무 성격과 책임 정도 등에 따라 급여가 결정되는 인사제도를 말한다. 금융업계에서 직무급제를 일반사원까지 확대한

기업은 교보생명이 처음이다.

교보생명의 직무급제는 급여의 일정 부분을 직무급으로 분리해 각 직무등급에 맞게 지급하는 방식이다. 교보생명은 직무급제 시행에 앞서 지난해 노사가 함께 해외 선진기업을 찾아 직무급제를 벤치마킹하기도 했다.

교보생명은 직무급제를 도입해 성과에 따른 보상체계를 강화하고 새 국제 회계기준(IFRS17), 신지급여력제도(K-ICS) 등 새로운 제도 변화를 앞두고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김희주 기자 hj89@

김지완 BNK금융그룹 회장 키워드 '개방과 협력' 규정

"고객 중심의 유연한 사고와 행동, 쌍방향 소통으로 영업 프로세스 전반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자."

김지완 BNK금융그룹 회장은 2일 시무식에서 이 같이 말하고 고객 중심 경영을 강조했다.

김 회장은 "오픈뱅킹 및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의 금융업 진출로 '금융산업의 틀'이 바뀌고 있다"며 "유연한 사고와 행동, 고객과의 쌍방향 소통으로 영업프로세스 전반을 개선해 나가자"고 말했다. 이날 김 회장은 올해 BNK금융그룹의 키워드를 '개방과 협력'이라고 규정하고 "고객 중심의 개방형 혁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해외진출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 회장은 "해외 진출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며 "글로벌 수익 비중 5%를 조기에 달성할 수 있도록 해외 시장을 확장하고 현지에 특화된 금융 모델을



BNK금융은 2일 부산광역시 문현로 본점 대강당에서 임직원 4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0년 그룹 시무식을 개최하고 새해의 각오를 다졌다. /BNK금융그룹

만들어나가자"고 말했다.

김 회장은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의 투병식 체제를 더욱 효율화해 부산·울산·경남지역에서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자"며 "자산관리(WM)와 기업투자금융(CIB)을 그룹 핵심 수익원

으로 발전시키는 한편 비은행 계열사의 시장 지배력도 높여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혁신금융과 포용금융을 실천해 지역과 상생하고 고객과 함께 성장하는 'BNK 행복체인'을 만들어나가자"고 덧붙였다. /나유리 기자 yul115@m

우리銀, 감사함 담은 '우리고객님 정기예금'

우리은행은 거래 고객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자 '우리고객님 고맙습니다 정기예금'을 2일 출시했다.

우리고객님 고맙습니다 정기예금은 계약한 가입기간의 1/2을 넘어 중도해지한 경우에도 기본금리에 우대금리가 적용된 이자를 받을 수 있다.

가입기간은 1년 또는 2년으로 선택할 수 있다. 금리는 가입기간 1년에 최고 연 1.9%, 2년 최고 연 2.0%다. 기본금리는 가입기간 1년 연 1.5%, 2년 연 1.6%다. 우대금리는 가입기간과 관계없이 최대 연 0.4%포인트로 동일하며 ▲우리은행 거래기간에 따라 최대 연 0.2%포인트 ▲직전년도 우리은행 정기예금 가입이력 보유시 연 0.1%포인트 ▲우리은행 첫거래 또는 비대면채널 이용 가입시 연 0.1%포인트가 제공된다. 상품은 1조원 한도로 판매될 예정이다. 우리은행은 '우리고객님 고맙습니다



이벤트'를 다음달 29일까지 진행한다. 우리은행 적립식상품(정기적금·청약저축·적립식펀드)가입 및 급여이체, 자동이체 등의 거래실적을 충족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바다프렌드 안마의자(1명), 삼성에어드레서(5명), LG공기청정기(10명), 에어팟프로(30명), 네이버라이브뮤직 1개월이용권(2020명) 등의 경품을 제공한다. 또 1월 한달간은 스타벅스커피쿠폰(3만명)을 추가 제공한다. /홍민영 기자

KEB하나銀, 하이파이브하며 새해 첫출근

KEB하나은행은 2일 서울 중구 을지로 소재 본점에서 지성규 은행장과 임직원이 새해 아침 인사를 나누며 2020년 경자년(庚子年)의 첫 영업일을 활기차게 시작했다.

지성규 은행장 이하 모든 임원이 출근시간 본점 로비에서 환한 미소와 하이파이브로 출근하는 직원들을 맞이했다. 임직원들은 한마음이 돼 하나금융

그룹의 경영 슬로건 '모두의 기쁨, 그 하나를 위하여'가 추구하는 '모두의 행복'을 염원하며 새해 첫날 업무를 시작했다.

지 행장은 경자년(庚子年) 쥐의 해를 맞이해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는 마음을 담아 '힘센 쥐'를 상징하는 마이티 마우스 인형과 행복을 상징하는 떡을 직원들에게 선물했다. 또한, 영업점 직원들이 직접 작성한 '새해 소망 게시판'의



2일 서울 을지로 KEB하나은행 본점에서 지성규 은행장이 직원들과 새해 인사를 나누고 있다.

여러 사연들을 직접 소개하며 덕담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홍민영 기자

고객서 답 찾고 디지털 혁신으로 새 도약

2020년 지속가능 성장으로 미래 연다

100년 기업 실현... 타협없는 품질 경쟁력 확보



삼성전자가 2일 수원 삼성 디지털 시티에서 시무식을 열었다. 김기남 부회장과 김현석 사장, 고동진 사장 등 주요 임직원 500여명이 참석했다.

신년사는 김기남 부회장이 진행했다.

김 부회장은 “올해 세계 경제는 글로벌 저성장 기조 고착화, 정치적 불확실성의 확대, 투자·수출에서 소비로의 침체 확산 가능성 등으로 인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운을 띄웠다.

이어서 “지난해 ‘창립 50주년 기념식’을 통해 ‘미래 세대에 물려줄 100년 기업의 실현’이라는 꿈을 함께 공유했다”며



삼성전자 김기남 부회장이 신년사를 하고 있다. /삼성전자

“2020년은 이를 만들어 나갈 원년으로, 새로운 미래를 위한 성장과 도약의 해로 만들자”고 강조했다.

실천사항으로는 “최고의 제품과 서비스로 인류사회에 공헌한다는 경영 이념 아래 선대의 전통과 자산을 계승, 발전하고 창의성과 혁신성을 접목해 미래성

장동력을 확보하자”며 “과거 성과를 발판으로 현재 사업 기반을 굳건히 하고 미래지향적이고 경기변화에 강한 사업 체질을 만들자”고 당부했다. 이어서 “한 치 타협없는 품질 경쟁력을 확보해 고객에 신뢰받는 브랜드로 거듭나자”고 마무리했다.

/김재웅 기자 juk@metrosoul.co.kr

고객 위한 변화·혁신... 미래車 시장서 리더십 확보



정의선 현대차 수석부회장이 2020년을 미래 자동차 시장의 리더십을 확보하고 고객을 위한 변화와 혁신을 이루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정 수석부회장은 2일 서울 양재동 본사 대강당에서 열린 그룹 신년회에서 “기술과 네트워크의 발달로 상상 속 미래가 현실이 되고 있으며, 자동차 산업에서도 이러한 변화가 가속화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 수석부회장은 2019년 새해 메시지에서 ‘시장의 판도를 주도해 나가는 게임 체인저로의 도약’을 목표로 제시했으며, 지난해 현대차그룹은 대규모 투자와 제휴 협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부회장이 2일 서울 양재동 본사에서 진행된 2020년 신년회에서 새해 메시지를 통해 올해부터는 미래 분야에서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력, 일하는 방식의 혁신 등을 통해 변화의 기반을 다지는데 주력했다. 이를 토대로 정 수석부회장은 올해부터는 미래 분야에서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겠다는 실행 의지를

강하게 표명했다. 올해 신년회에서 밝힌 정 수석 부회장의 메시지는 명확하다. 미래 가시적 성과를 위해 구체적이고 분명한 중장기 목표와 실행계획의 이정표를 세우고, 그룹 임직원들과 함께 반드시 실행하겠다는 뜻이 담겨있다.

정 수석부회장은 전동화, 자율주행 등 미래 시장 리더십을 가시화하고, 사업 전반에 걸친 체질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정 수석부회장은 “전동화 시장의 리더십을 확고히 하기 위해 전용 플랫폼 개발과 핵심 전동화 부품의 경쟁력 강화를 바탕으로, 2025년까지 11개의 전기차 전용 모델을 포함하여 총 44개의 전동화 차량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

시민·고객·구성원이 만든 신년사... 나누는 행복 추구



SK가 신년사를 대신해 시민과 고객, 구성원 등에 귀를 기울였다.

SK는 2일 서울 워커히호텔에서 2020년 신년회를 개최했다. 최태원 회장과 최재원 SK 수석부회장, 최창원 SK 디스커버리 부회장, 등 주요 경영진과 임직원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SK는 올해 최 회장의 신년사를 따르며 마련하지 않았다. 대신 여러 이해관계자 인터뷰와 현장 발언, 신입사원 등 구성원간 대담으로 꾸며졌다.

시작은 SK 서린빌딩 인근 식당 종사자와 기관 투자자, 청년구직자



서울 광진구 워커히호텔에서 열린 2020년 SK 그룹 신년회에서 구성원 대표들이 행복을 주제로 패널 토론을 하고 있다. /SK

와 임직원 및 가족들이 많았다. 영상 통해 SK에 대한 바람을 임직원들에게 소개하는 시간이었다.

이어서 소셜벤처 지원 사업인 루트 임팩트 허재형 대표와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 안정호 교수, 전북 군산 지역공동체 활동가 조권은 씨 등이 현장 발언으로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행복이 구호로 끝나지 않으려면 작지만 구체적인 모두의 실천이 필요하다” “SK를 넘어 사회,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나누는 행복이 진정한 행복이다” 등 의견을 자유롭게 논의했다.

/김재웅 기자

LG가 나아갈 방향은 고객에 있어... 기본정신 강조

(고객을 위한 가치창조)



구광모 LG 회장이 고객 만족을 경영 목표로 들었다.

LG는 2일 ‘LG 새해 모임’을 열었다. 구 회장 첫 주재 신년행사, 31년만에 여의도 LG트윈타워를 벗어나 서울 마곡 LG사이언스파크에서 진행해 의미를 더했다.

이날 행사는 구 회장이 처음 주재하는 신년 행사로 이목을 끌었다. 부회장과 사장단을 비롯해 생산직과 연구직 등 다양한 직무 직원들까지 800여명이 참석했다.

구 회장은 70여년간 LG가 매출 160조원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는데, 23만명 구성원들의 열정과 헌신과 수많은 파트너사들의



구광모 LG 대표 신년사 영상 모습. /LG

신뢰와 협력이 있었다고 감사를 표했다. 특히 구 회장은 올해 ‘고객을 위한 가치창조’ 기본 정신을 깨우고 더 발전시킬 때라고 당부했다.

LG가 나아갈 방향이 고객에 있었다며, 신년사에서 ‘고객’이라는 단어를 30차례에 걸쳐 언급하

기도 했다. 이를 위해 구 회장은 고객 사랑을 실천하기 위한 세가지 목표를 제시했다. ▲고객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감동을 주는 것 ▲남보다 앞서 주는 것 ▲한두 차례가 아닌 지속적으로 만들어내는 것 등이다.

/김재웅 기자

2020년 경영 키워드 ‘점프’... 공생의 가치 창출



최정우 포스코 회장이 2020년 새해 경영 키워드로 불확실한 경영여건 속에서 한 단계 도약하자는 ‘점프(JUMP)’를 선정했다. JUMP란 조인 투게더, 업그레이드 벨류, 무브 포워드, 위드 포스코의 줄임말로 더불어 함께, 공생의 가치를 창출하고 역경을 돌파해 나가자는 의지를 담고 있다. 아울러 ▲선진적 노사문화 구축 ▲사업의 진화 및 핵심사업 집중 ▲기업시민의 핵심인 공생가치 창출 등을 과제로 제시했다.

최 회장은 2일 신년사를 통해 “2020년 국내외 경제상황은 작년에 이어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미·중 갈등으로 인



최정우 포스코 회장.

한 정치·경제적 긴장감이 계속되고 무역·과학기술·금융 등 모든 영역에서 패권 다툼으로 발전해갈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세계 경제성장률은 2% 중반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미래가 어두운 것만은 아니다”라며 “신(新)모빌리티, AI, 친환경 사업의 개화가 진행

되면서 우리가 집중하고 있는 이차전지소재, 스마트팩토리, 친환경 에너지 등의 분야가 신성장동력으로 더욱 각광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최 회장은 건전한 노사관계 구축 등 3가지 경영과제를 제시했다. 그는 첫 번째로 선진적 노사문화를 구현할 것으로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기업시민 경영이념 구현의 핵심인 공생가치 창출도 주문했다. 최 회장은 “저성장 고착 국면을 극복하고 100년 기업으로 지속성장하기 위해서는 혼자 가지 말고 함께 가야 한다”며 “고객사, 공급사, 협력사와 더불어 함께 성장할 때 건강한 산업 생태계가 조성되고 공생가치는 한층 배가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전사 차원의 ‘디지털 전환’... 4차산업혁명시대 대응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은 2020년 신년사에서 올해는 10년의 도약을 준비하는 한 해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2일 “올 해는 일류 한화의 선도 지위와 미래 가치를 확보해 새로운 10년의 도약을 준비하는 한 해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는 2010년 선포했던 ‘질적 성장 2020’ 비전의 마지막 해로, 이제 또 다른 10년의 질적 성장을 준비하고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김 회장은 “핵심 사업은 글로벌 리더 수준으로 격상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며 “적어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도 10년 후 한화가 미래 전략사업 분야에서 ‘대체불가능한 세계적 선도기업’으로 도약하겠다는 비전을 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가장 우선적으로 전사 차원의 ‘디지털 전환’을 통한 4차 산업혁명 시대 경쟁력 확

보를 주문했다. 그는 “디지털 기술이 경영의 모든 것을 바꾸고 있다”며 “올해가 그룹 디지털 혁신의 원년이라는 각오로 각사에 맞는 디지털 변혁을 추진해 변화·성장의 기회로 이끌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이어 “단순한 모방과 추종을 넘어 세상에 없던 가치를 창조하는 혁신”을 강조했다.

김 회장은 “각사는 중장기 목표에 입각해 멀리 보고 투자하며 구현한 기업문화로 혁신해야 한다”며 “선택과 집중을 통해 핵심 사업 비중을 확대, 해를 거듭할수록 사업가치와 성장성이 높아지는 회사를 만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

하나금융그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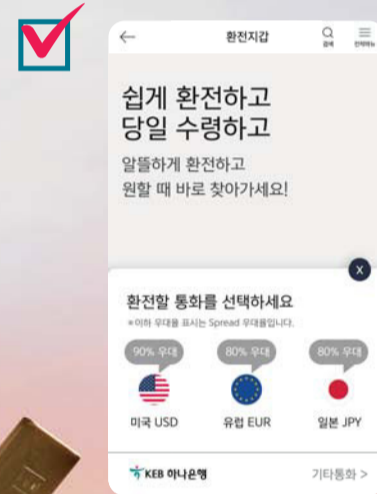
미래금융 위시리스트

- 금융거래도 5G 속도로 되면 좋겠다
- 환전도 예금조회처럼 간편했으면

손님의 바람
하나하나를 모아
더 빠른 금융을 만듭니다

기다림이 짧아질수록 손님의 기쁨은 커지기에
하나금융그룹은 더 빠른 미래금융을 만들고 있습니다

모두의 기쁨, 그 하나를 위하여



스마트폰으로 쉽고 빠르게 누리는
모바일 금융 플랫폼



쉽게 환전하고 당일 수령하는
모바일 환전 서비스



현대·기아차, 올해 판매목표 754만대... 전년비 5% ↑

현대차 458만대 기아차 296만대
국내 판매 전년대비 소폭 감소

현대·기아자동차가 올해 글로벌 판매 목표를 753만6000대로 설정했다. 내수에서는 다소 주춤하겠지만, 해외 시장에서는 폭발적인 성장을 기대했다.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영업실적 등에 대한 전망을 각각 공시했다.

이는 지난해(719만3337대)보다 5% 가까이 많은 수치다. 2018년(740만1399대)보다도 소폭 늘었다.

브랜드로는 현대차가 457만6000대, 기아차가 296만대를 올해 판매할 수 있

〈현대·기아자동차 2020년 판매 목표〉

	2020년 판매 목표	내수	해외
현대자동차	457만6000대	73만2000대	384만4000대
기아자동차	296만0000대	52만0000대	244만0000대
합계	753만6000대	125만2000대	628만4000대

/전자공시

을 것으로 예상했다. 전년과 대비해 현대차는 3.5%, 기아차는 6.8% 더 판매량을 늘릴 수 있다는 의미다.

지역별로는 국내에서 125만2000대, 해외에서는 628만4000대 판매를 기대했다. 국내에서는 전년(127만3542대)보다 소폭 줄어드는 반면, 해외에서는 전년(593만1290대)보다 5.9%를 더 많

이 팔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내수 시장은 브랜드 모두 판매량이 줄어들 전망이다. 현대차가 73만2000대로 전년(74만1842대)보다 1.3%, 기아차가 52만대로 전년(53만1700대)보다 2.2%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다.

대신 해외 시장에서는 모두 뚜렷한 성장이 점쳐졌다. 현대차가 384만4000

대로 전년(368만802대) 대비 4.4%, 기아차가 628만4000대로 전년(593만1290대) 대비 5.9%나 더 팔 수 있다고 추정됐다.

앞서 현대자동차그룹 글로벌 연구소는 올해 글로벌 자동차 시장이 0.4% 성장할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 선진국들이 경기 침체와 보호무역 등으로 후퇴

하는 가운데, 신흥시장이 비로소 다시 성장세로 돌아설 수 있다는 기대에서다. 현대기아차가 예상하는 판매량 성장률은 시장 전망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이다. 반면 연구소가 내수 시장 1.2% 성장을 기대했던 것과 반대로, 올해 내수 판매 목표는 오히려 전년보다 낮은 상황이다.

현대기아차는 아반떼와 G80, K5 등 주력 신차 론칭과 신흥시장 CKD 확대와 함께, 북미시장에서는 SUV와 제네시스 등 고수의 구조, 유럽시장에서는 전기차 판매 강화 등으로 브랜드 혁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김재용 기자 juk@metroseoul.co.kr

신년사

“실천 통한 행복경영 실행에 힘 싣겠다”

박성하 SK C&C 대표이사



구할 것이며, 이러한 BM 혁신을 통해 회사의 성장뿐만 아니라 구성원의 성장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용·복합화 환경 하에서는 산업별 선도 기업들이 보유한 핵심역량 기반의 상호 협력력이 더욱 중요하다”며 선도기업과의 협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그는 “회사를 활기 넘치고, 실행을 중시하는 조직으로 변화시키겠다”며 ▲구성원의 성장을 위한 자기주도적 역량개발 적극 지원 ▲구성원들의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환경 조성 ▲구성원들과의 진정성 있는 소통의 자리 마련 ▲자율책임경영 정착 등을 약속했다.

/구서윤 기자 yuni2514@

박성하 SK(주) C&C 대표이사(사진)는 2일 신년사를 통해 “회사는 새해에 각자 대표 체제를 도입하여, 지주회사와 사업회사 각각의 전문성을 강화하게 됐다”며 구성원들을 격려했다.

박 대표는 “올해는 그룹의 딥 체인지 2020에 발맞추어, 우리 회사도 새로운 경영관리체계(SKMS)의 실천을 통한 행복경영의 실행에 보다 힘을 기울여야 하겠다”며 ▲회사의 비전과 정체성 구체화 ▲국내외 선도기업과의 협업 강화 ▲구성원 주도의 행복경영 실천을 중점적으로 실행한다고 강조했다.

우선 그는 “회사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수익구조도 개선해야겠지만, 무엇보다도 회사의 성장 잠재력을 높이기 위한 ‘디지털 중심의 비즈니스모델(BM) 혁신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BM 혁신을 위해 사회적가치(SV)도 적극 추

기술 총집합 SUV 등 신형차 잇단 출시 예고

현대차 ‘제네시스’ GV80 첫 공개 기아차 SUV, 카니발 플체인지 출시 르노삼성 기대치 높은 ‘XM3’ 선택

2020년 경자년(庚子年) 새해 국내 완성차 업계가 자사 기술력을 총집약한 신형 모델 출시를 앞두고 있다. 내수는 물론 글로벌 시장 공략에 속도를 높이기 위함이다.

현대자동차의 프리미엄 브랜드 ‘제네시스’는 새해 첫날 첫번째 스포츠유틸리티차(SUV) GV80을 공개하고 출시 초읽기에 돌입했다. 또한 기아자동차와 르노삼성자동차, 한국지엠 등도 올해 신형 SUV 모델 출시를 앞두고 있어 올해도 SUV 인기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2일 완성차 업계에 따르면 제네시스 브랜드는 후륜구동 기반의 프리미엄 대형 SUV GV80 디자인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차명은 제네시스 브랜드가 제시하는 다재다능한 럭셔리 차량의 의미에 대형 차급을 뜻하는 숫자 ‘80’이 더해져 완성됐다.

전면부에는 제네시스 고유 문양인 ‘지 매트릭스’가 라디에이터 그릴 문양뿐 아니라 헤드-리어 램프, 전용 휠, 내장 등 곳곳에 반영돼 고급감을 강조했다. 측면부는 완만한 포물선인 ‘파라볼릭 라인’과 야생마의 탄탄한 다리 근육을 연상시키는 ‘에슬레틱 파워 라인’의 극적 대비로 차체의 볼륨감과 역동적인 이미지를 극대화했다. 또 국산차 역대 최대 직경의 22인치 휠을 적용해 압도적인 볼륨감을 자랑한다.

내부 구조는 안정적인 시야 확보와 편의성 강화에 주력했다. 시트 높이뿐 아니라 센터콘솔과 암레스트를 아우르는 주요작부를 상향시켜 운전자가 높은



르노삼성 XM3.



제네시스 GV80 전측면 모습.

곳에 위치해 아래로 내려다보는 듯한 ‘커맨드 컨트롤’ 배치를 구현했다.

차량의 안전성과 편의성을 결정짓는 최첨단 사양은 GV80에 총집약됐다. 측면 충돌 시 탑승자간 2차 충돌을 방지하는 앞좌석 센터 사이드 에어백이 최초로 적용됐다. 최고 수준의 능동형 안전 기술과 차세대 고속도로 주행보조 기술도 탑재됐다. 기존보다 강화된 전방 충돌방지 보조 기술이 적용돼 교차로 좌·우측에서 다가오는 차량과 충돌 위험 감지시 제동을 지원하고, 전방에서 보행자 충돌 위험시 자동으로 회피 조항을 도와준다. 특히 세계 최초로 주행 중 발생하는 노면소음을 획기적으로 저감시키는 능동형 노면소음 저감기술(RANC)이 적용돼 고급차의 정숙성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 또 국내 완성차 업체 중 최초로 증강현실(AR) 내비게이션, 제네시스 카페이(차량 내 간편 결제 기술), 제네시스 통합 컨트롤러(필기인식 조작계), 강화된 음성인식 기술 등이 포함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도 적용됐다.

기아차는 2종의 SUV 차량과 카니발의 플체인지 모델을 잇따라 출시한다. 상반기 출시를 앞둔 쏘렌토는 신규 플랫폼을 적용할 방침이다. 파워트레인에는 2.0L 디젤, 2.5~3.5L 가솔린 엔진이

장착되며, 하이브리드와 플러그인하이브리드 모델도 판매 예정이다. 스포티지와 카니발 역시 3세대 신규 플랫폼을 장착, 첨단 ADAS 사양과 다양한 파워트레인을 장착한 모델이 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신차 부재로 판매 감소를 겪은 르노삼성은 2019 서울모터쇼 공개 후 가장 많은 기대를 받은 ‘XM3’를 출시, 반응에 나선다. XM3는 세단과 SUV의 장점을 결합한 크로스오버(CUV) 차량이며, 기존 국산차에서 볼 수 없는 세련된 내·외관 디자인을 갖출 것으로 기대된다. 출시 예정 시기는 올해 1분기로 르노삼성 부산공장에서 생산된다. 또 SM6와 QM6는 상품성을 강화한 모델이 출시된다.

대형SUV 트래버스와 픽업트럭 콜로라도 출시로 지난해 하반기 분위기에 반전에 성공한 한국지엠은 올해 SUV 라인업을 더욱 견고하게 구축한다. 한국지엠은 올해 1분기 트랙스와 이쿼닉스 사이에 위치한 준중형급 SUV 트레일블레이저를 출시한다. 이 차량은 한국지엠 부평공장에서 생산되며 내수는 물론 글로벌 시장에 출시된다는 점에서 수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양성운 기자 ysw@

“초격차 기술 확보, 도전적 조직 구축해야”

전영현 삼성SDI 사장



“전자재료 사업은 고부가가치 아이템을 통해 신성장동력을 확보하자”고 말했다. 급성장하고 있는 전기차와 웨어러블, 첨단소재 시장을 리드하려면 관련 업계가 넘볼 수 없는 기술을 갖춰야 정상에 설 수 있다고 강조한 것이다. 특히 전 사장은 차별화 포인트로 품질과 안전성 기술을 제시했다. 이어 전 사장은 “자율과 창의를 바탕으로 한 도전적인 조직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현장 중시 경영과 강한 실행력을 반드시 갖춰야 한다”며 “더 높은 윤리성과 준법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해 존경받는 기업으로 거듭나자”고 말했다.

/김수지 기자 sjkim2935@

전영현 삼성SDI 사장(사진)이 2020년 신년사를 통해 “창립 50주년을 맞은 올해, 100년 기업을 향한 초격차 기술을 확보하자”고 강조했다.

삼성SDI는 2일 기흥 사업장에서 임직원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무식을 열고 새해를 시작하는 각오를 다졌다고 밝혔다.

전 사장은 이날 신년사에서 100년 기업을 향한 새로운 도전과 혁신의 출발선에 서 있다며 과거 50년 디스플레이 세계 제패의 영광을 넘어 첨단 소재와 에너지 기업의 정상에 서자고 말했다. 이를 위한 실행 과제로는 ‘초격차 기술 확보’와 ‘도전적인 조직문화 구축’ 등을 꼽았다.

전영현 사장은 “삼성SDI의 핵심 역량인 고용량·고출력의 소재 기술 리더십을 더욱 강화하고 이를 응용한 차세대 신제품으로 시장을 선도해야 배터리 산업의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며

삼성디스플레이 4K OLED 패널 ‘SGS 인증’ 획득

삼성디스플레이가 지난달 노트북용 4K OLED 패널로 글로벌 인증업체 SGS에서 프리미엄 디스플레이 평가 인증을 획득했다고 2일 밝혔다.

해당 제품은 삼성디스플레이 노트북

용 OLED 패널 2종(13.3인치, 15.6인치)이다. 콘텐츠 창작과 게이밍 2개 부문에서 인증을 받았다. SGS는 화질적 특성이 IT 시장의 새로운 키워드인 콘텐츠 제작 및 1인 방송, 온라인 게임에

최적의 디스플레이 환경을 제공한다고 제품을 평가했다. 제품 2종은 색역역 DCI P3 100%, 최저휘도 0.0001니트 및 응답속도 0.2ms 등을 달성해 평가 기준을 충족한다. 지난해 이 디스플레이를 탑재한 노트북이 판매를 시작했으며, 올해에는 풀HD급으로 라인업을 확대할 예정이다.

/김재용 기자

IT주 끌고 배당주 밀고... 올 코스피 최고 2410

2020 증시전망

코스피 예상등락범위 1960~2410
실적 바닥론에 상반기 상승 분석
하반기 변동성 확대에 '상고하저'
반도체 업황 반등세 강해질 것

올해 코스피지수는 최고 2410까지 상승할 것이라 분석이다. 지난해 말 종가(2197.67)를 감안하면 최대 9.7%의 상승률이 예상된다. 기준금리(연 1.25%)를 감안하면 높은 수익률이다. 올해 증시 유망업종은 반도체 등 정보기술(IT)업종이 꼽히고 있다. 반도체 주가 증시상승을 견인할 것이라 분석이다. 또한 저금리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배당을 받을 수 있는 배당주와 일정한 배당이 가능한 리츠가 유망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올해 자본시장 투자에서 주식, 채권, 상품순으로 유망할 것이라고 귀띔했다.

◆ 코스피 예상 밴드 1960~2410

국내 주요 증권사들은 큰 기저효과에 힘입어 올해 코스피가 2400선까지 무난히 다다를 것이라는 데 입을 모았다. 미·중 무역분쟁 완화의 최대 수혜국으로 올해 신흥국 이익 모멘텀 개선을 주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경기회복 강도가 크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투자자들의 수익률 추구 현상이 이어지며 고배당주에 대한 인기

<증권사별 올해 유망업종>

증권사	2020년 유망업종
NH투자증권	반도체, OLED, 미디어/엔터테인먼트
한국투자증권	IT, 콘텐츠, 5G, 유틸리티
삼성증권	IT, 소프트웨어, 미디어, 호텔/레저, 의류
신한금융투자	반도체, IT, 은행주
하이투자증권	소프트웨어, 자동차, IT, 조선, 유틸리티
메리츠증권	리츠, 배당주
키움증권	반도체, IT, 5G

는 여전히 유효할 전망이다.

국내 주요 증권사들이 내놓은 2020년 주식 전망 보고서를 살펴보면 올 코스피 예상 등락 범위(밴드)는 1960~2410 선으로 압축된다. 지난해 코스피는 1909.71~2248.63(종가 기준) 사이에서 움직였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상승폭이 클 것으로 보인다. 특히 소순환적 측면에서 상반기 경기는 반등할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상승 잠재력이 높지는 않다. 오현석 삼성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올해 코스피 상장사의 순이익은 지난해보다 약 30% 증가한 120조원을 예상한다"면서도 "글로벌 경기 회복의 강도와 한국의 수출증가율은 2017~2018년을 넘어서지 못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경험적으로 코스피 상승 여력은 10% 이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하반기에는 변동성도 커질 것

<증권사들의 코스피 예상 등락 범위>

증권사명	예상 등락 밴드
NH투자증권	제시하지 않음~2400
한국투자증권	1960~2370
삼성증권	1950~2350
신한금융투자	2000~2400
하나금융투자	2050~2450
KB증권	1950~2400
메리츠증권	2000~2500
대신증권	1900~2480
신영증권	1850~2350
키움증권	1900~2250

으로 보인다. 코스피 상단이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다. 경기 둔화 우려와 글로벌 정치 불확실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서상영 키움증권 투자전략팀장은 "올해 한국 증시는 실적 바닥론이 이어지며 연초에는 상승할 것"이라며 "하반기로 갈수록 변동성이 확대돼 코스피는 1900~2250선에서 움직일 것"으로 내다봤다. 기저효과에 힘입어 상반기에 상승했다 하반기로 갈수록 변동성이 커지는 '상고하저' 흐름을 나타낼 것이라 얘기다.

연말로 향할수록 기초체력(펀드네티) 변동성이 크지 않은 자산들이 유리할 것으로 풀이된다. 조익재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경기 반등이 2020년 내내 계속 이어진 않을 것"이라며 "미국과 중국의 소비 모멘텀이 강하지 않고, 미·중 무역분쟁, 미국 대선, 브렉시트 등 불확실성으로 인해 투자도 강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 유망업종, 반도체와 소프트웨어 등
증권가에선 한해 주주들 첫 번째로 반도체를 꼽고 있다. 양기인 신한금융투자 리서치센터장은 "올해 코스피 전체 이익은 반도체에 달려있다"고 했다. 반도체 이외에 유틸리티, 소프트웨어, 자동차, 운송, 정보기술(IT) 하드웨어, 조선 등이 증시 회복을 이끌 유망 업종으로 꼽혔다.

유망업종을 바라보는 전문가들 예상은 대개 비슷하다.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올해는 반도체 업황 반등세가 강해질 것"이라며 "생산 증가와 함께 반도체와 ICT 업종의 출하-재고 사이클도 반등이 시작됐다. 관련 업종의 업황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화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 키움증권도 반도체에 주목했다.

박승영 한화투자증권 투자전략팀장은 "순이익률이 반등한 반도체 기업과 화장품 같은 소비주가 국내 주식시장을 함께 견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병연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미국에 이어 중국까지 무형투자에 가세하면 반도체 수요가 확대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서상영 키움증권 투자전략팀장은 "미국 반도체 기업과 국내 기업 실적 발표에서 재고 감소가 시작된 점이 향후 가격 상승 기대를 높이고 있다"며 "미·중 무역협상 일부 타결을 단행하는 등 주변 여건 또한 긍정적인 점을 고려하면 바닥 확인 과정에 돌입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5세대 이동통신(5G) 관련 업종과 콘

텐츠, 유틸리티에도 주목해야 한다. 윤희도 한국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IT 업종은 기저효과를 가장 많이 누릴 것이며, 콘텐츠 업종은 5G 및 신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출범으로 수요 증가, 유틸리티는 정부의 정책 변화로 실적 개선이 각각 기대된다"고 분석했다.

◆ 상반기엔 해외주식보단 국내주식

전문가들은 IT 중심의 매수 전략을 추천했다. 영업이익 회복을 주도하고 있는 것이 반도체이기 때문이다. 서영호 KB증권 리서치센터장은 "미국 투자 사이클이 반등함에 따라 투자 관련 경기민감 산업의 비중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이번 4차 산업혁명 투자의 핵심 중간재는 반도체이므로 반도체 중심 IT 업종이 강세를 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전문가들은 경기에 민감한 성장주와 배당주에 투자할 것을 추천했다. 특히 상반기에는 해외주식보단 국내 주식 비중을 늘리라고 조언한다.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올해는 장기 급등으로 조정 가능성이 커진 미국주식보다 한국 주식을 매수하라"고 말했다.

상반기가 하반기보다 위험자산 투자 측면에서 유리할 것이라 분석이다. 박재위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채권 중 예선 하일랜드 채권이 예상 성과가 가장 높다"며 "구리자산도 미·중 불확실성 완화에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기 때문에 올해 주목할 자산"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올해 자산간 선호도는 주식, 채권, 상품 순"이라고 조언했다.

/송태화 기자 alvin@metroseoul.co.kr

현대건설, 6130억 카타르 타워 단독수주

현대건설이 중동 지역 카타르에서 루사일 프라자 타워 플랫4공사를 수주하며 올해 새해 첫 날 해외수주 포문을 힘차게 열었다.

현대건설은 2일 카타르 부동산 개발 회사에서 발주한 총 약 6130억원 규모의 루사일 프라자 타워 플랫4공사 낙찰 통지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정연우 기자 wj964@

현대건설이 단독으로 수주한 카타르 루사일 프라자 타워 플랫4공사는 카타르 루사일 시티 금융지역 일대에 지하5층에서 지상 70층 오피스 빌딩을 건설하는 프로젝트다. 공사기간은 착공 후 34개월로 2022년 10월 말 준공을 목표로 한다.

화했다. 아울러 디지털 비즈니스 분야의 핵심역량 강화에 나선다.

기존 디지털기획팀을 부서로 승격해 디지털 자산관리 전반과 플랫폼 기업과의 제휴 강화를 도모기로 했다. 또 플랫폼 Biz부와 플랫폼개발부를 신설해 디지털 비즈니스의 핵심인 플랫폼 개발 및 콘텐츠 운영을 유기적으로 강화한다. 정보통신기술(ICT)전략부와 DT(Digital Transformation)추진팀을 신설했다.

이번 조직개편에 따른 임원, 부·점장 인사는 금성원 FICC운용본부장, 안석철 GIS본부장, 윤창용 리서치센터장 등 내부 인재 등용을 통해 성과주의 원칙을 명확히 했다.

/손범지 기자 sonumji301@

신한금융투자, 소비자보호·성과 중심 개편

GIB·GMS 부문 경쟁력 강화

신한금융투자는 고객보호 강화와 글로벌투자금융(GIB)·그룹투자운용사업부(GMS) 부문 경쟁력 강화 초점을 맞춘 조직개편 및 정기인사를 지난 12월 30일 단행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조직개편의 특징은 고객 보호 체계를 강화한 것이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전담 조직인 금융소비자보호본부를 신설하고, 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CCO)를 독립 선임했다. 또한 상품감리팀을 부서로 승격하여 다양한 상품에 대한 사후관리 및 상품감리 기능을 확대했다.

또 GIB와 GMS 부문의 경쟁력을 강

“투자자 수익실현 위해 상품 늘릴 것”

정지원 한국거래소 이사장 2020 증권·파생상품 개장식

정지원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투자자들의 수익 실현을 위해 투자 상품을 꾸준히 늘려나가겠다고 약속했다. 해외 자산에 쉽게 투자할 수 있도록 다양한 상품을 공급하겠다는 것.

정 이사장은 2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2020년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 행사에서 "저금리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투자자들이 조금 더 높은 수익을 실현할 수 있도록 투자 상품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리츠, 채권, 고배당 주식 등에 기반한 인컴형 상장지수상품(ETP)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해외 직접투자 수요에 대응하겠다"고 설명했다.

코스닥시장 진입 체계는 이전보다 명료하게 개편될 예정이다.

정 이사장은 "정부의 기업성장투자기구(BDC) 지원 등을 통해 성공적인 혁신금융 정착에 앞장설 것"이라며 "상장시장의 풍부한 유동성이 비상장 기업에게도 충분히 제공되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내외적으로 기업의 투자심리가 위축됐고 실적회복도 여전



정지원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2일 '2020년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서 개장식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히 불투명하며 가계부채 증가도 위험요인이 되고 있다"며 "자본시장을 이끌어갈 동력을 만들기 위해 금융당국 및 업계와 보조를 맞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불거질 정치 테마주와 불법 공매도를 잡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그는 "신종 불공정거래에 대한 종합대응방안을 마련해 고빈도 알고리즘 매매(HFT) 등을 이용한 시장교란행위를 근절하겠다"며 "거래정보저장소(TR)를 연내에 차질 없이 가동해 장외파생상품 거래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논란이 된 구조화 증권에 대

해서는 "정부와 업계가 함께 투명하고 안전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방법을 고민하겠다"고 답했다.

투자자와의 소통을 위해 ESG(환경·사회적 책임·지배구조) 정보도 확대된다. 정 이사장은 "현행 기업지배구조 보고서의 품질을 개선하고 환경·사회 관련 정보 확대를 위해 관련 정보 공개방안을 새롭게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거래소는 사회적투자(SRI) 채권을 위한 전용 섹션을 마련할 예정이다. 공시 정보를 집약적으로 제공하는 한편 외국인투자자를 위한 영문정보 제공서비스도 늘리기로 했다.

/송태화 기자

친환경... 비건... 재활용... 착한 패션에 지갑 열린다

(식물성 소재만을 사용해 만든 옷)

2020 패션 키워드

① 지속가능

소비자의 니즈가 점점 더 다양해지고, 소비 트렌드가 급변함에 따라 패션시장도 빠르게 변화하는 모양새다. 2020년은 오히려 부진한 성과를 보였던 패션업체들이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 달라진 시장 트렌드를 제시하는 한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 새해는 기존의 소비 방식에서 벗어나 대안적 소비를 추구하는 움직임이 강화될 전망이다. 의식있는 소비자들이 늘면서 브랜드의 가치를 어필하는 브랜드가 많아지고, 지속가능한 스타일을 추구하는 착장 방식이 자리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패션시장의 떠오르는 키워드를 시리즈를 통해 알아본다. <편집자주>

‘가치’를 ‘비용’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밀레니얼 세대가 급부상함에 따라 최근 패션산업은 환경을 보호함과 동시에 지속가능한 시스템을 지향하고 있다.

소비자 시장조사 전문기업 엠브레인 트렌드 모니터 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2000명 중 68.9%가 ‘윤리적 경영을 실천하려는 기업의 제품이면 조금 비싸더라도 구매할 의향이 있다’는 의

소비자 70% “윤리기업 비싸도 구매” 샤넬 등 글로벌브랜드 친환경 협약

롯데백·이랜드, 친환경 공정 도입 약품·물 대폭 줄인 ‘청바지’ 선배

동물성 소재 대신 ‘एको 퍼’ 활용 파타고니아, ‘오래 입기’ 캠페인도

견을 보였다. 이에 따라 많은 패션 브랜드들도 환경 친화적인 소재와 폐기물을 재활용한 윤리적 패션 아이템을 선보이고 있다.

지난 8월에는 프랑스 비아리츠(Biarritz)에서 열린 G7 정상회의에서 ‘구찌’, ‘샤넬’을 포함한 럭셔리 브랜드를 비롯해 SPA, 스포츠까지 32개 회사 150여 브랜드가 함께 기후변화 문제를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의 ‘패션 팩트’ 협약을 발표한 바 있다. 동물복지에 앞장 서며 윤리적인 패션에 다가가고자 하는 움직임도 확대되는 추세다.

◆친환경 기술 도입 환경 문제 ↓

롯데백화점의 청바지 전문 자체 PB 브랜드인 ‘에토르(ETTOL)’에서는 올해 초, 친환경 공정을 도입한 ‘테라피진’을 출시했다.

청바지는 전세계에서 가장 사랑는 패션 아이템 중 하나이지만, 특유의 색



파타고니아 브랜드 이미지.

/파타고니아

감을 넣기 위해서는 다량의 물이 사용되고 사용된 물은 재활용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또 생산단계에서 여러 화학물질이 발생한다는 학계의 발표가 이어지면서 환경 관련 문제가 됐다.

이에 롯데백화점 ‘에토르’는 물 대신 산소와 전기를 사용하는 ‘오존 워싱’ 공정을 도입해 청바지를 생산한 것. 이 공정은 물 사용량을 99%까지 절감해 환경보호에 도움을 준다.

이랜드윌드가 전개하는 스파오는 리사이클 데님을 출시해 소비자의 관심을 끌었다.

리사이클 데님은 재활용 원단을 사용

할뿐만 아니라 워싱 과정에서 ‘나노 버블 테크’(Nano Bubble Tech)를 활용해 물 95~45%, 화학약품 80~20%, 에너지 70~30%에 달하는 사용량을 줄일 수 있다.

◆동물성 소재 OUT!

삼성물산 패션부문의 빈폴은 페 페트병 및 어망 등을 재활용한 다운/패딩 상품을 1월 출시하며, 구호플러스, 오이아우어, 에잇세컨즈 등은 최근 동물성 소재를 사용하지 않고 에코 퍼(인조 털)를 활용한 다양한 상품들을 선보이기도 했다.

럭셔리 브랜드 프라다와 멀버리는 바다에서 수거한 플라스틱 폐기물, 어망

등을 리사이클한 재생 나일론 소재 에코닐(ECONYL)로 만든 컬렉션을 발매하는 등 환경 친화적 공정을 도입했다.

◆책임 의식 ↑ 캠페인 전개

글로벌 패션브랜드 파타고니아는 매년 매출 1%를 전 세계 곳곳에서 환경보호를 위해 활동하는 수 백 개의 단체를 후원하는데 사용하고 있다. 이외에도, 사회와 환경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공정 무역 인증 제품 생산, 유기농 목화 사용, 재생 유기농 농업 투자 등 직접적인 행동을 실천해 나가고 있다.

특히 고객들이 제품에 대한 책임 의식을 갖게 하도록 ‘오래 입는 옷, 오래 입은 옷’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망가지고 손상된 아웃도어 의류를 다시 쓰고 고쳐 입을 수 있도록 매장 내에서 정기적인 수선 이벤트를 질레, 아르헨티나 베이징 등에서 진행했으며, 미국에서는 파타고니아 직원들과 함께 쓰레기를 분류해 거름으로 사용하고 강통을 재활용하는 캠퍼스 쓰레기 제로 캠페인(zero-waste pro-grams), 스스로 망가진 옷을 고치는 방법을 교육하고 비영리 단체와 함께 지속 가능성을 주제로 한 다양한 이벤트를 열었다. 이러한 캠페인은 제품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해서는 파타고니아 고객이 함께 공유해야만 한다는 전제에 기반하고 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현대모비스 주주 추천으로 사외이사 공모

“이사회 전문성, 주주권익 강화”

현대모비스가 올해부터 주주권익 보호를 담당하는 사외이사를 주주 추천제로 공모한다. 지난해 외국인 사외이사 2명을 선임하며 이사회 전문성과 다양성을 강화한데 이어 주주권익을 높이기 위함이다.

현대모비스는 오는 13일까지 ‘투명경영위원회’에서 주주권익 보호 담당으로 활동할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 받는다고 2일 밝혔다. 투명경영위원회는 ▲주주권익 보호 ▲내부거래 투명성 강화 ▲윤리경영 추진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이사회 내 위원회다.

현대모비스 사외이사 주주추천 제도는 주주 가치 제고 정책의 일환으로 지배구조 투명성 확보와 주주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주주권익 보호 담당으로 새로 선임할 사외이사는 기업설명회(NDR)에 참석한다. 또 주주 면담을 통해 이사회와 주주간의 소통을 담당하게 된다.

지난해 말 기준 현대모비스 주식을 보유한 주주는 보유 주식에 상관없이 1명의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할 수 있다. 현대모비스 홈페이지에 게시된 양식을 작성해 기한 내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추천된 사외이사는 독립된 외부자문단에서 심사 후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주주총회에서 최종 선임된다.



서울 서초구 양재동 현대차그룹 본사 사옥.

현대모비스는 사외이사진을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축하고 있다. 현재 글로벌 완성차 최고경영자(CEO) 출신의 칼 토마스 노이먼(기술전략), 브라이언 존스(재무) 등 2명의 외국인 사외이사를 비롯해 이병주, 유지수, 김대수 사외이사는 각각 공정거래, 자동차산업, 생산물류에 정통한 전문가로 투명한 경영환경 조성 등 회사의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있다.

한편 현대모비스는 지난해 중장기 주주환원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분기 배당을 최초로 실시하고, 3년간 총 2조6,000원 규모의 배당 확대, 자사주 매입과 소각이 골자다. 이에 따라 현대모비스는 지난달까지 총 3,225억원 규모의 자기주식 매입을 완료했다.

/양성운 기자

“새해엔 디지털 서비스 강화, 융합 시너지를”

증권업계 신년사

최현만, 리스크 관리에 만전 주문
정영채, 고객 위한 가치창출 당부
정일문, 전사적 플랫폼 개발 강조



최현만 미래에셋대우 수석부회장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 정일문 한국투자증권 사장

금융투자업계 최고경영자(CEO)도 신년사를 통해 한 해의 핵심 과제를 꺼냈다. 주요 키워드는 고객을 향한 서비스와 디지털 서비스 강화, 또 융합을 통한 시너지 창출로 요약된다.

2일 미래에셋대우, NH투자증권, KB증권, 신한금융투자 등 대형 증권사 CEO는 올해 고객 서비스 강화를 강조했다. 차별화된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대(對) 고객 서비스 부서를 강화하고 고객 리스크를 최소화하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 무한경쟁 시대에서 살아 남기 위해선 고객 수익률과 안전이 최우선이란 판단 때문이다.

최현만 미래에셋대우 수석부회장은 “사람의 터치(Touch)가 필요한 모든 영역에서는 경쟁사가 따라올 수 없는 격차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내부통제 및 리스크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면서 “지난해 말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을 선제적으로 반영해 금융소비자보호 총괄 책임자를 선임하고, 관련 전담조직을 신설했다. 민원과 VOC(Voice of Customer) 전담조직인 ‘금융분쟁조정팀’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병철 신한금융투자대표 역시 “고객

보호 체계를 강화하고 상품 프로세스 전반을 더 고도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은 임직원들에게 “나의 고객이 누구인지 알고 고객을 위해 가치를 창출하는 것만 생각하라”고 당부했다.

박정림·김성현 KB증권 대표는 “자산관리(WM) 비즈니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고객과의 장기적인 신뢰관계 구축”이라면서 “고객 중심의 영업체계를 통한 고객수익률 제고와 불안전판매 예방 등 소비자보호 강화에 만전을 기해 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디지털’은 빼놓을 수 없는 화두다. 홈트레이딩시스템(HTS)에서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으로 거래 시장이 바뀌고 있고, 디지털에 대한 고객들의 눈높이 역시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KB증권은 ‘디지털 기반 Biz 경쟁력 및 효율성 제고’를 주요 경영전략 방향으로 설정했다.

박정림·김성현 KB증권 대표는 “비대면 고객 확보 및 프라이م(Prime) 서비스

모델의 성공적 안착, 외부판매(ODS) 영업 시스템의 도입을 통한 자산관리 영업의 효과적 지원에 만전을 기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일문 한국투자증권 사장 역시 “빠른 고령화와 밀레니엄 세대의 금융 소비자 본격화에 대비해 리테일그룹,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DT)본부와 정보기술(IT)본부를 중심으로 관련 상품, 플랫폼 개발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최현만 수석부회장은 올해 키워드로 ‘하이 테크놀로지(High Technology)’로 강조하며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을 바탕으로 고객과 24시간 편리하게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금융플랫폼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병철 대표는 “디지털 부문은 창업의 마인드로 독자적 사업 체계를 확립하고, 고객에게 차별적인 경험을 줄 수 있는 디지털 기반의 다양한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시도하고 만들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손범기 기자 sonumji301@



소중한 사람에게 피로회복을 선물하세요!



대웅 우루사 연질캡슐 360캡슐 대용량 세트

팩트까지 생각한다면 역시 우루사입니다

팩트1

59년 전통의
국내 판매 1위 간장약

[2018년도 간장약 부문 IMS DATA 기준]

팩트2

임상에서 검증된
피로회복 효과

팩트3

임상에서 검증된
간수치개선 효과

[임상시험 결과 SCI급 국제임상저널 IJCP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Clinical Practice) 2016년 3월호에 게재]

간 기능 장애에 의한 육체 피로, 온몸 권태에-

기준은 팩트! 선택은 우루사!



UDCA는?

- 간의 노폐물 및 독성물질의 담즙배설을 촉진
- 불규칙적인 생활로 지친 간을 보호
- 간내 혈류량을 증가시켜 신진대사를 높임. 비타민 B1, B2는 피로물질의 축적을 방지

광고상위권 2019-1480-002801

문의: **080-550-8308~9**
(약국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약주문 판매행위는 불법입니다. *약다 남은 약, 약국이나 보건소에서 안전하게 수거해 드립니다.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 첨부된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잘 읽고 의사·약사와 상의하십시오.



AI에 반도체 입혀 ‘시너지’... “455兆 창출, 선진국 도약”

〈2030년까지〉

2020 희망을 쏘다

(9) AI 후진국 극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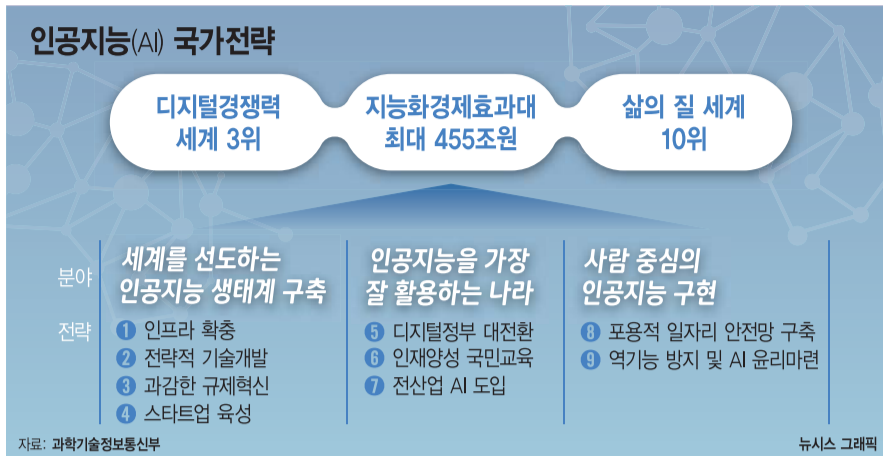
韓 인공지능 준비 아시아 8위 수준 2029까지 ‘AI 반도체’에 1조 투입 반도체 경쟁력 더해 1위 선점 노력

지난해 국내 산업계의 가장 큰 화두는 인공지능(AI)으로 대표되고 데이터, 클라우드, 사물인터넷(IoT), 블록체인, 공유경제 등을 포함한 4차 산업혁명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정보기술(IT) 강국에서 인공지능(AI) 강국으로 패러다임 전환을 선언했다. 이어 정부는 지난달 ‘AI를 가장 잘 활용하는 나라’를 목표로 2030년까지 디지털 경쟁력 세계 3위, AI를 통한 지능화로 최대 455조원의 경제효과를 창출하겠다는 목표의 AI 국가전략을 발표했다.

◆AI 후진국 극복, 정부의 최우선 과제 구글·아마존 AI 대표 기업들이 포진된 미국은 물론 중국도 바이두, 알리바바 등을 AI 선두기업으로 키워내 AI 선진국으로 자리잡았다. 반면 지난해 우리 정부의 AI 준비지수는 영국 옥스포드 인사이트와 국제개발연구센터(IDRC)가 발표한 순위에서 세계 194개국 중 26위, 아시아 중 8위로 꼽힐 정도로 뒤져 있다.

정부의 AI 전략은 우선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확보한 분야에서 선두에 올라선다는 것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글로벌 AI 선도국과 격차를 해소하고 AI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우리 고유의 전략 마련이 중요하다”며 “반도체, ICT(정보통신기술) 인프라, 제조기



술 등 우리의 강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을 내놓았다”고 설명했다.

가장 중점을 둔 산업은 세계 최고의 메모리 반도체 경쟁력을 보유한 반도체 분야로 2029년까지 AI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에 1조96억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신개념 AI 반도체(PIM) 개발 등을 통해 ‘AI 반도체 세계 1위’로 도약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물론 국내 기업들도 아직 AI 기술력에서 미국, 중국에 뒤져 있다. 이번 ‘이세돌 VS 한돌 대국’에서 1승 2패로 패한 이세돌이 “(NHN의) 한돌은 중국의 AI ‘절예’와 비교해 아직 부족하다”고 일침을 가할 정도다. 순위에서도 절예는 현존하는 최고의 바둑 AI로 꼽히며, 한돌은 국내 최강이지만 세계 3위에 머물고 있다.

국내 통신업체, 포털들은 아직은 후발이지만 AI 시장에서 강자로 부상하기 위해 AI 스피커, 코딩로봇 등 기기는 물론 AI와 연동한 스마트홈, 사람처럼 말하는 AI 고객센터 등 서비스를 앞다퉀 내놓았다.

또 2016년 이세돌과 알파고의 대국

이후 생겨난 스타트업, 발빠르게 AI 사업에 진출한 소프트웨어 중소기업들도 챗봇, AI 플랫폼, 의료, 법률, 주식투자 등 분야에서 AI 시스템을 선보이고 올해 영업을 본격화했다.

AI 챗봇은 이제 롯데시네마의 키오스크에 탑재돼 음성으로 영화 예매는 물론 간식까지 구입할 수 있게 하고, 일상적인 대화까지 나눌 수 있는 챗봇 등 말벗으로도 진화했다.

의료 분야에서는 서울대병원이 흉부 엑스선 검사 영상을 보고 폐암이 의심되는 지 알려주는 AI를 도입했으며, 대장암 환자의 조직 슬라이드로 병기를 진단하고 예후를 예측하는 AI도 개발했다. 강남세브란스병원도 초기 암으로 국소 부위 조기 위암을 발견하는 AI를 선보였다.

변호사뿐 아니라 사법부 업무에도 AI 활용이 본격 추진됐다. 법원이 AI를 활용한 차세대전자소송 시스템 구축을 추진 중이며, 국내 AI 대표 스타트업인 인텔리온연구소도 계약서 분석 법률 AI인 ‘알파로’를 몇몇 기업에 테스트해 올해부터 법률 AI 상용화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28일 서울 강남 코엑스에서 열린 ‘데뷔 2019’ 행사에서 ‘IT 강국을 넘어 AI 강국으로’ 도약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뉴시스

AI 기업인 이스트소프트는 AI 금융 사업을 위해 지난해 엑스포네셔널산업을 설립하고 AI를 통해 펀드를 운용해 벤치마크 대비 우수한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다.

올해 AI 분야의 가장 시급한 과제는 사용 사례를 발굴하는 것이다. 지난해 AI 사용 사례가 AI 스피커에 그쳤는데, AI 스피커조차 아직 무상 보급이 많아 큰 수익원이 되지 못하고 아직은 성능도 우리의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AI 의료 기술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지만 AI 진단은 추진 단계이며, AI 의료의 핵심인 원격진료는 규제 때문에 아예 국내서는 불가능하다.

또 AI의 성능을 위해 지속적인 데이터 학습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빅데이터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될 전망이다.

◆클라우드, 공유경제도 주목

지난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혁신)이 가속화되면서 클라우드’는 핵심기

술로 꼽히며 IT 서비스 트렌드로 자리잡았다.

대기업들은 클라우드 전환을 서두르고 있다.

삼성SDS는 이미 2018년 말 그룹 관계사 IT시스템의 90%를 클라우드로 전환했다. LG그룹은 2023년까지 계열사 시스템 90%를, SK그룹은 2022년까지 계열사의 주요 IT시스템의 80%를 클라우드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두산그룹도 아마존웹서비스(AWS)와 손잡고 전사적 클라우드 전환에 나서고 있다. 지난 11월 구글이 보스턴컨설팅그룹(BCG)에 의뢰해 발간한 ‘클라우드 도입: 아태지역 6개국의 도약’ 보고서에 따르면, 퍼블릭 클라우드 도입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향후 5년간 50조 원 이상일 것으로 전망했다.

또 IoT, 블록체인, 공유경제 등도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성장을 위한 핵심 분야로 꼽히고 있다.

/채윤정 AI 전문기자 echo@metroseoul.co.kr

중기중앙회 1차 외국인근로자 고용신청 스타트

중소기업중앙회는 오는 16일까지 2020년도 제1차 외국인근로자 고용신청을 접수받겠다고 2일 밝혔다.

대상국가는 네팔,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캄보디아 등 16개국이며 고용노동부 워크넷(worknet.go.kr)을 통해 사전에 내국인 구인신청(14일경과)이 돼 있어야 한다.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중기중앙회 홈페이지 또는 중기중앙회 외국인력 대표번호를 통해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중기중앙회(지

역본부)에 팩스, 방문 또는 우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합격 대상업체는 고용센터 알선 국내 근로자 고용실적, 외국인근로자 고용인원수, 외국인 전용 보험 준수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2월3일 발표한다. 고용허가서는 2월7일부터 2월12일까지 고용허가서 발급을 진행할 예정이다.

2020년도 제조업 신규 외국인근로자 도입쿼터는 3만 130명으로 1월(9039명), 3월(9039명), 6월(6026명), 9월(6026명)에 각각 배정이 이뤄질 예정이다. /김승호 기자 bada@

韓 스타트업, CES서 기술력 뽐낸다

‘교통 트래픽 레이더’ 비트센싱 ‘플랜티 큐브’ 엔싱 등 대거 참가

한국 스타트업들이 오는 7일부터 10일(현지시간)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전자제품 전시회 CES 2020에 대거 참석한다. 단순히 참가하는 것뿐만 아니라 행사 주관사인 미국 소비자기술협회(CTA)가 혁신성과 기술력, 디자인 등 우수한 전시 제품에 수여하는 ‘혁신상’을 받은 스타트업도 등장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엔싱, 비트센싱, 엑소시스템즈 등 한국 스타트업이 CES 2020에서 혁신상을 수상했다.

엔싱은 팜테크 스타트업으로 IoT 기술과 자동화 시스템을 통해 최적화된 환경에서 양질의 작물을 재배해 스마트시티 부문 최고 혁신상을 받았다. 엔싱은 ‘플랜티 큐브(Planty Cube)’라는 큐브 형태의 컨테이너에서 수요에 맞게 생산량을 관리한다.

비트센싱은 교통 트래픽 레이더를 만드는 스타트업이다. 비트센싱의 24cm 레이더 센서는 스마트 시티 인프라 구축을 위한 고정밀 실시간 교통정보를 수집해 혁신상을 수상했다. 비트센싱은 트래픽



CES 2020에서 최고 혁신상을 받은 엔싱의 ‘플랜티 큐브(Planty Cube)’. /엔싱

레이더를 스마트시티뿐만 아니라 자율주행차용 이미지 센서로도 이용할 계획이다.

웨어러블 헬스케어 스타트업 엑소시스템즈는 근골격 강화 웨어러블 기기로 혁신상을 받았다. 엑소시스템즈의 ‘엑소리랩’을 착용하면 기기가 자동으로 사용자의 신체정보를 파악하고 전기자극 등으로 개인 맞춤형 재활 운동을 돕는다.

아이콘AI는 아마존의 AI 스피커 알렉사와 연동한 ‘스마트메이크업미러’로 스마트홈 부문 혁신상을 획득했다.

혁신상을 받지 않은 스타트업도 CES에 다양한 제품을 전시한다.

SOS랩은 자율주행 디바이스에 사용되는 레이저 거리측정기술은 ‘라이다’를 선보인다. SOS랩의 라이다는 드론 및 자율차의 센서로 개발될 예정이다.

베어로보틱스는 음식을 서빙하는 자율주행 로봇 ‘페니봇’을 선보인다. 페니봇은 뜨겁거나 무거운 물건을 사람이 직접 들고 다닐 필요가 없어 효율성을 높이고 직원이 고객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한다. 현재 실리온밸리 약 10여 곳의 식당에서 페니봇이 고객들에게 음식을 서빙하고 있다.

리베스트는 휘어지는 배터리를 개발했다. 리베스트는 다양한 형태에 적용할 수 있는 고에너지 고밀도 플렉서블 2차 전지로 차세대 웨어러블 기기에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공급한다.

이밖에도 웨어러블 심박 세동 측정 기기를 내놓은 ‘휴이노’, 환자별 맞춤형 뇌 자극 가이드 소프트웨어의 ‘뉴로핏’, 사용자의 행동 및 위치를 기반으로 혼합된 맞춤 향기를 제공하는 스마트 디퓨저의 ‘피움랩스’, 고양이 자동 화장실의 ‘골골송작곡가’, 손가락 움직임 읽는 ‘핑거센서’를 만드는 ‘퀵소(Qeexo)’ 등 다양한 스타트업이 CES 2020에 참가한다. /배한님 기자 ericbae1683@

‘인테리어 플랫폼’ 집닥, 거래액 3000억 돌파

인테리어 중개 플랫폼 기업 집닥은 인테리어 고객 거래액이 3000억원을 돌파했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15년 8월 서비스 론칭 이후 4년 5개월 만의 일이다. 누적 견적 수는 18만 5000건이다.

지난 2019년 집닥에서 발생한 거래액은 연간 1500억원이다. 이는 전년 대비 약 167% 증가한 수치다. 월 최고 거래액은 150억원이고, 월 견적 최고치는

8000건으로 집계됐다.

집닥은 국내 온라인 인테리어 시장의 대중화를 목표 시작한 인테리어 중개 플랫폼 기업이다. 집닥은 지난해에 5월 배우 차승원을 전속모델로 발탁하며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전개했다. 신·구축 아파트 대상 쇼룸을 운영하는 등 오프라인 고객과의 접점도 확장했다.

/배한님 기자

1 최저임금 8590원 2 주52시간 확대 3 부부 동시 육아휴직

올 달라지는 노동시장

- 4 연간 최대 10일 가족돌봄 휴가
- 5 건강보험료율 6.67%로 인상

최저임금부터 근로시간 단축 등 올해 노동시장에도 달라지는 것들이 적지 않다. 인크루트와 알바콜이 '경자년 노동시장 달라지는 10가지'를 추려 2일 발표했다. 먼저 올해 최저임금은 전년도 8350원에서 2.87% 오른 8590원이 된다. 한 달 209시간 근무할 경우 월 급여는 174만5150원으로 작년과 비교하면 5만160원 인상된다.

주52시간 근로시간 단축도 확대 시행된다. 2018년 7월1일 3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우선 시작된 이후 올해

<2020년 노동시장 달라지는 10가지>

- 1 최저임금 8,590원
- 2 주52시간 근로시간제 도입(50~299인 사업장)
- 3 부부 동시 육아휴직 신설
- 4 가족 돌봄 휴가 신설
- 5 가족 돌봄 근로시간단축 단계별 시행
- 6 국민내일배움카드 시행
- 7 청년저축계좌 제도 신설
- 8 근로자 휴양콘도 이용대상 확대
- 9 4대 보험료율 인상
- 10 퇴직금 중간정산 및 중도인출 요건 강화

[자료=인크루트, 알바콜]

50~299인 사업장에도 적용되는데, 다만 올해는 1년의 계도기간이 부여되고 특별연장근로 인가사유도 확대되는 등

보완대책이 시행된다. 5~49인 사업장은 2021년 7월부터 적용된다.

작년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가 실시되고 육아휴직 상한액이 인상된 데 이어 오는 2월28일부터는 부부 동시 육아휴직이 가능해진다. 현재는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엄마가 먼저 사용한 뒤 복직 후 아빠가 사용하는 식으로 부부 중 한 명만 사용할 수 있다.

가족의 질병이나 사고, 노령 또는 자녀 양육을 사유로 근로자가 연간 최대 10일의 휴가를 쓸 수 있는 가족돌봄휴가가 신설되고,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도 올해 단계별 시행된다. 올해 공공기관이나 300인 이상 사업장에 우선 적용되고, 2021년에는 30~299인 사업장, 2022년에는 3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직장인 가입자 건강보험료율이 2019년 6.46%에서 2020년 6.67%로 0.21% 포인트 인상된다. 장기요양보험료율도 기존 8.51%에서 10.25%로, 고용보험료율은 1.6%로 현재보다 0.3%포인트 오른다.

퇴직급여 중간정산과 중도인출 요건이 올해 4월30일부터 근로자가 연간 임금총액의 12.5%를 초과해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가능하도록 요건이 강화된다. 기금까지는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지출금액과 관계없이 중간정산과 중도인출이 허용됐다.

직업훈련시 실업자와 재직자를 구분해 발급돼 왔던 기존의 내일배움카드가 올해부터는 국민내일배움카드로 실업자와 재직자 구분 없이 통합 운영돼 한 장의 카드로 발급된다. 1~3년이던 유효

기간도 5년으로 연장됐고 200~300만원이었던 지원 비용도 500만원까지 인상됐다.

또 근로빈곤층 청년(만15~30세)의 자립 지원을 위한 청년저축계좌 제도가 시행된다. 매월 1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지원금 30만원을 함께 적립해 3년 만기시 1440만 원의 목돈을 모을 수 있다. 정부지원금을 받으려면 꾸준한 근로, 국가공인자격증 취득(1개 이상), 교육 이수(연 1회씩 총 3회)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근로자 휴양콘도 이용대상이 확대된다. 기존에는 저소득 노동자만 이용할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정부 '창업국가 조성'에 1.5조 지원

전년대비 예산 30% 증가 '역대최대' 혁신창업 패키지 등 21개 사업 도입

정부가 창업국가 조성을 위해 전년대비 30% 증가한 약 1조5000억원 규모의 예산으로 역대 최대 지원 사업을 펼친다. 중소벤처기업부의 '혁신창업 패키지사업', 농업진흥청의 '농업실용화 기술 R&D(연구·개발)지원사업', 법무부의 '창업이민 인재양성프로그램' 등 신규사업도 21개 도입된다.

중기부는 2020년도 부처별 창업지원 사업을 조사한 결과, 16개 부처 90개 사업에서 모두 1조4517억원이 지원된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전년대비 3336억원 증가한 수치로 중기부 등 13개 부처에서 예산을 3354억원 늘였다.

본 예산을 기준으로 2019년 7796억원 규모였던 창업지원사업은 2019년 1조1181억원, 2020년 1조4517억원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이 중 창업 및 스타트업 전담부처인

중기부가 2019년보다 2635억원 늘어난 1조2611억원을 지원한다. 이는 전체 지원의 87%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이다. 중기부다음으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019년 152억원에서 498억원으로 증가한 예산을 배정했다.

부처별 지원 규모는 창업 및 스타트업 전담부처인 중기부가 '19년 9976억원에서 '20년 1조2611억원으로 2635억원이 증가해 가장 높은 비중(87%)을 차지했다. 그다음으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19년 152억원에서 '20년 498억원으로 증가했다.

지원 유형별로는 창업사업화(50.4%), 연구개발(35.3%), 시설·공간제공(8.7%), 창업교육(3.7%), 멘토링(1.5%) 순으로 예산이 배정됐다. 이중 창업사업화 지원은 2019년 5131억원에서 2020년 7315억원으로 증가해 중점 지원된다.

아울러 2020년에는 21개의 창업지원 사업이 신설 또는 추가됐다. ▲중기부의 시스템반도체·바이오헬스·미래차

등 3대 신산업분야 및 소재·부품·장비 '혁신창업 패키지사업'(450억원) ▲중기부의 '글로벌창업사관학교'(108억원) ▲중기부의 '로컬 크리에이터 바꾸쳐 지원'(44억원)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식품 산업 기반 연구지원'(20억원) ▲보건복지부의 '바이오·헬스 투자 인프라 연계형 R&D'(22억원) ▲농업진흥청의 '농업실용화기술 R&D 지원사업'(116억원) ▲법무부의 '창업이민인재양성 프로그램'(8억원) 등이다.

또한, 중기부는 예비창업패키지에서 나이 제한을 없앴다. 기존에 예비창업패키지는 수혜 대상은 만 39세 이하였다. 이는 중장년 창업 수요 증대를 반영한 것이다. 중기부는 지난해 추가경정예산에서 316억원을 확보해 40대 이상 창업 지원 사업을 신설한 바 있다.

중기부 관대수 창업진흥정책관은 "올해는 예비창업패키지를 이원화하지 않고 하나로 통합하기 위해 나이제한을 풀고 청년이든 중장년이든 지원받도록 한다"고 설명했다. /배한님 기자 ericabae1683@



목념하는 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훈현충원 현충탑을 찾아 현충탑에 분향 후 목념하고 있다. /뉴스1

병무청,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제도' 시행

병무청은 올해부터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 제도가 시행된다고 2일 밝혔다.

이번에 새롭게 대체복무제도가 도입된 것은 병역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는 병역법 제5조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했기 때문이다. 도입될 대체복무제도는 종교적 신앙 등을 이유로 '현역·보충역·예비역 복무를 할 수 없는 사람'이 병역을 이행할 수 있도록 대체역을 신설했다.

대체역은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들은 병무청장 소속의 대

체역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하고, 편입된 사람은 교정시설에서 36개월 동안 합숙 복무해야 한다. 편입신청 대상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 및 복무를 마친 사람이며 현역병 등으로 복무중인 사람은 제외된다.

병무청은 대체역 편입절차 및 구비서류, 구체적 업무내용 등 법률시행에 필요한 하위 법령을 마련하고 대체역 심사위원회 위원 위촉 및 사무기구 구성 등 준비를 거쳐 올 상반기 중 편입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문형철 기자 captinm@

비싼 5G 요금, 올엔 착해질까

이동통신 3사, 5G 요금제에 8만원대 '무제한 데이터' 적용 중저가 요금제 보편화엔 '난색'

2020년에는 5세대(5G) 이동통신 대중화 시대가 올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4월 3일 세계 최초로 5G 이동통신 서비스를 상용화했고, 국내 5G 가입자는 500만명이 육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는 5G 가입자가 1000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비교적 고가인 5G 요금제 또한 대중화를 이룰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2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이동통신사들이 일제히 8만원대 5G 요금제에 '무제한 데이터' 혜택을 적용한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도 지난 연말까지 프로모션이던 혜택을 정규 요금제로 확정하면서 KT는 가장 먼저 8만원대 데이터 완

전 무제한 요금제를 도입했다.

우선 SK텔레콤은 각각 월 8만9000원(이하 부가세 포함), 12만5000원에 완전 무제한 데이터이던 '5GX프라임'·'5GX플래티넘' 요금제를 정규 혜택으로 제공한다. 아울러 5GX프라임 월 이용료는 기존 9만5000원에서 8만9000원으로 6000원 인하됐다. 이와 함께 휴대폰 보험 무료·할인, 음원·미디어 플랫폼 '플로'·'웨이브' 무료 제공 등 부가서비스도 제공한다.

SK텔레콤 측은 "월 7만5000원에 200GB를 제공하는 '5GX스탠드' 요금제는 월 7만9000원에 150GB를 제공하는 LTE 'T플랜 스페셜'과 비교시 1000원당 데이터 제공량이 약 40% 많다"고 설명했다.

LG유플러스도 지난해 4월 프로모션으로 내놓은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를



서울 강남구 SME타운 '케이팝 스퀘어' 외벽에 설치된 디지털 사인지에 5G 단말기 광고가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정규 요금제로 전환했다. LG유플러스는 월 8만5000원부터 11만5000원까지 총 4종의 요금제에 데이터 무제한 혜택을 적용했다.

KT는 업계 최초로 8만원대에 5G 데이터 완전 무제한 요금제 'KT 5G 슈퍼플랜'을 선제적으로 내놓았고, 올해도 이를 유지한다.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인 슈퍼플랜 3종은 월 8만원대부터 13만원까지 마련됐다. /김나림 기자 silkni@

방위사업청, 방산업종 하도급계약서 신설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과 한국방위산업진흥회(이하 방진회), 방산업체가 방위산업 공정화 및 하도급 업체 권리보호에 뜻을 함께 했다.

방사청은 2일 '방산업종 하도급계약서'를 신설하고 새해부터 적용에 들어간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동안 공정거래위원회는 '방산업종'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력업체의 권리보호에 빠져있다는 지적을 제기해 왔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업종별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작성·배

포(46종, '19.12. 기준)해 협력업체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다.

중소기업이 다수를 차지하는 협력업체의 경우 전문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원가자료를 관리할 수 있는 여건이 구비되어 있지 않아 많은 어려움을 토로해 왔다. 신설되는 '방산업종 하도급계약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참조해 발주자·원사업자·수급사업자의 금지 및 의무사항 등을 충실히 반영하여 하도급 업체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할 예정이다.

[문형철 기자

근본 대책 없는 대학재정

“등록금 중심 재정 구조부터 바꿔야”

‘등록금 인상’만이 답인가

사립대학들 등록금 인상 공식 선언
교육부 “인상 시 국가장학금 제한”
대학교육연 “국가의 책임” 강조

우리나라에서 11년째 예산이 제자리 걸음하고 임금이 동결된 곳이 있다. 바로 대학이다. 급기야 재정난에 허덕이던 사립대학들은 등록금을 인상하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2020학년도 대학 등록금 인상을 산정방법과 함께 1.95%라는 인상률을 공고했다고 거듭 밝혔다. 등록금을 인상할 경우 연간 4000억원 규모의 국가장학금 II 유형을 받지 못하게 제한한다. 교육부의 이 같은 조치에도 일선 대학들 분위기가 심상찮다. 4년제 사립대 총장 모임인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는 지난해 11월 내년부터 등록금을 인상하겠다고 선언하고 결의문을 낸 상태다.

◆대학은 왜 등록금 인상을 주장할까
대학 시설 노후화는 심화하고 실험실습실은 고등학교보다 못해졌다. 토론이 가능한 소규모 수업은 설 자리가 점점 줄었다. 2018년 사립대 연평균 등록금은 약 718만원으로 2008년 대비 0.6% 올랐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 실질 등록금은 같은 기간 16.5% 하락했기 때문이다.

대학 관계자들은 “도서관 학술지 구



시계방향으로 연세대, 고려대, 서강대, 한양대, 성균관대, 중앙대 전경. /각대학



재정난에 처한 사립대들이 등록금을 내년부터 인상하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하지만 정부가 사실상 동결을 압박하고 있는데 여론의 거센 반발이 예상돼, 실제 인상으로 이어지기는 어려워 보인다. /연합뉴스

매까지 축소하는 형편이니 교육과 연구에 대한 새로운 투자는 엄두를 내기가 어렵다”면서 “적립금으로 적자를 메우기도 하지만 곧 바닥을 드러내고, 건물 감가상각에 대비한 적립조차 어려운 상황”이라고 입을 모은다. 교원 총원도 최대 한 역제된다. 퇴임 교원의 자리는 채

워지지 않고, 우수 연구자들도 하나 둘 기업 또는 외국으로 떠나고 있다는 얘기가. 교수들은 “연봉도 기업보다 훨씬 적고 연구시설도 빈약한데 고급두뇌가 대학을 선택하기를 기대하긴 어렵다”고 지적한다.

이에 대학들은 새로운 수입원으로 해외유학생 유치에 주목하게 됐다. 수학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마구잡이식 유학생 유치다. 수업의 질과 분위기가 떨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은 건 기본. 유학생 탓에 조별과제 수행 등에서 어려움을 겪는다는 학생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는 기사가 지속적으로 나온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대학의 경쟁력이 추락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 평가에 따르면 한국의 대학교육 경쟁력은 2011년 39위에서 2018년 49위로 내려앉았다. 영국의 QS

대학평가에선 2015년 이후부터 상위 20위권에 새롭게 진입한 한국 대학이 한 곳도 없다.

◆‘대학 재정 확충, 근본 대책 필요’

물론, ▲등록금 동결 ▲강사법 시행 ▲입학금 폐지 등으로 대학 재정이 어렵다는 주장이 틀린 것만은 아니다. 그러나 대학 재정 확보 방안이 등록금 인상에만 머물러서는 안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고등교육 재정 부담 주체는 학생뿐만 아니라, ▲교육기본법 ▲사립학교법 ▲대학설립·운영규정 등 교육관련법은 학교법인과 국가도 고등교육 재정 부담 주체로 명확히 규정했다. 사립대 총장은 교내 행정과 의사결정의 최고 책임자이자, 대외적으로는 학교를 대표하는 최고위 인사다. 대학 재정이 열악하다면, 대학 총장은 법인과 국가에 이에 대

한 책임을 요구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실제로 대학에 대한 정부의 재정 지원을 가능하는 지표 중 하나인 ‘GDP 대비 정부부담 공교육비 비율(고등교육)’은 2016년 회계연도 기준 0.7%에 불과하다. OECD 가입국 평균인 0.9%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반면, 2016년 우리나라 민간 부담 공교육비 비율은 1.1%로, OECD 평균(0.5%)과 비교해 0.6%p 높다. 고등교육재정이 열악하고, 등록금이 고액인 가장 큰 이유가 여기에 있다.

대학교육연구소는 “더이상 등록금 인상으로 사립대 재정 문제를 해결하려 해서는 안된다”며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을 통해 등록금 중심인 우리나라 고등교육재정의 근본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학 총장들 역시 가장 효율적인 재정 규모 확대 방안으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을 꼽았다. 그러나 교육부는 “고등교육 재정을 전제적으로 확충해야 한다는 방향성에는 공감하지만, 이를 고등교육교부금법 등 법적 근거를 만들어 추진하려면 사회적의의가 필요하다”면서 주저하는 입장이다.

대학교육연구소는 “대학 재정난을 타개하기 위한 해법을 오로지 ‘등록금 인상’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문제”라며 “여전히 세계적으로 등록금 수준이 높고 국민 경제 사정이 나아진 것도 아닌 만큼 인상을 추진할 경우 사회적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손현경 기자 son89@metroseoul.co.kr

대학가 소식

경희대, 제16대 총장에 한군태 교수 선임

학교법인 경희학원은 지난달 26일 2019년 제5차 이사회에서 경희대 제16대 총장으로 한군태 교수(사진)를 선임했다고 2일 밝혔다. 신임 총장 임기는 오는 2월14일부터 4년이다.

한 신임 총장은 경희대 신문방송학과 정치학을 전공했고, 미국 유타주립대와 텍사스대학교 오스틴캠퍼스에서 각각 언론학 석사와 박사학위를 받았다.

경희대 정경대학 언론정보학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서울캠퍼스 부총장, 대



외협력부총장, 정경대학 학장, 언론정보대학원장을 역임했다. 학교밖에서는 한국언론학회 회장, 한국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 한국언론진흥재단 공익자금관리위원, 방송문화진흥회 감사로 활동했다.

/한용수 기자

건국대 ‘119레오’ 폐방화복 재활용... 1908만원 기부

〈학생창업 사회적 기업〉

건국대학교는 학생들이 창업한 사회적 기업 ‘119레오’가 지난 1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소방안전협회에서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와 소방관 공상인정 돕기 기부금 전달식을 갖고 지난해 두 차례의 펀딩 모금액과 판매 수익금 등 1908만원을 기부했다고 2일 밝혔다.

119레오는 소방관들이 입던 폐방화복을 재활용해 가방 등 패션소품으로 만들어 판매하고, 수익금 일부를 다시 소방관들에게 돌려주는 학생 창업 사회

적기업이다. 공무 중 발생한 암이나 백혈병 등을 상해로 인정받지 못한 소방관들에게 판매 수익의 50%를 전달하고 있다.

지난 2016년 7월부터 운영을 시작한 현재까지 3년 동안 총 다섯 번의 기부금(3410만7750원)을 전달했다. 기부금은 119레오와 협약을 맺은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를 통해 공상 불승인 문제로 소송중인 소방관의 초기 소송비용으로 지원한다.

/한용수 기자

조희연 “교육에 AI 활용 본격화”

〈서울시교육감〉

서울시교육청 2020 교육주요업무 5년간 10개 특성화고 AI관련 학교로

올해 서울 초등학교에 인공지능(AI) 영어 말하기 교육이 시범 실시되고,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 관련 특성화고가 개교하는 등 인공지능을 활용한 교육이 본격화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일 오전 신년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 서울교육 주요업무’를 확정해 발표했다.

우선 인공지능을 활용한 교육의 변화가 눈에 띈다. 서울시교육청은 곧 보편화될 인공지능 시대를 대비해 올해를 공교육에서 선도적으로 사물인터넷 환경과 인공지능 도입하는 원년으로 삼겠다는 계획이다.

인공지능 활용 역량을 개발하고 인공지능 기술을 개발하는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연차적으로 5년간 10개 특성화고를 인공지능, 빅데이터 관련 학교로 전환해 개교한다.

특성화고 AI전문가 육성을 위해

서울대 윤명환 교수 대한인간공학회장 취임

서울대 공대는 산업공학과 윤명환 교수(56·사진)가 지난 1일, 제20대 대한인간공학회장 겸 2024제주세계인간공학대회(IEA 2024 JEU) 조직위원장으로 취임했다고 2일 밝혔다.

윤 교수가 향후 2년간 회장직을 맡아 이끌어갈 대한인간공학회는 인간의 능력과 특성에 맞게 제품과 작업환경 설계를 연구하는 학회다. 또한 윤 교수가 조직위원장을 맡은 2024 제주 세계인간공학대회는 ‘미래인류를 위한 더 나은 인간공학’을 주제로 한 국제대회로서, 전 세계 1500여명의 인간공학 전문가들이 참가할 예정이다.

윤 교수는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한 뒤 미국 펜실베이니아 주립대에서 인간공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인간공학, 인간-컴퓨터 상호작용, 사용자 중심 제품 디자인, 인체 역학, 감성공학, 유비쿼터스 컴퓨팅 등을 연구하며 학문적 기여를 해 왔다.



/한용수 기자 hys@

시작됐다! 진짜 청라가

청라의 가치는 국제업무단지! 선택의 기준은 큐브 시그니처 1015!

12.16 직격탄 비켜간 오피스텔, 반사이익 기대감 상승!



3,400만원
투자시
월 65만원
임대수익

- 7호선 연장
- 커널웨이 호수공원 앞
- 10년 임대보장
- 중부세 無
2주택해당 無
전매제한 無
- 중도금 무이자

청라 국제업무단지 큐브 시그니처 1015 오피스텔, 상가 모집공고!

1. 분양신고

건축물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및 제7조 규정에 의거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청라관리과 [2019-청라관리과-분양신고-12 (2019년 12월 27일)]로 분양신고 / 본 건축물은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임 [2019-청라관리과-신축허가-97]

2. 공급규모 (분양위치: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동 95-1 외 2필지)

공급규모	대지면적	연면적	지상연면적	용적률
오피스텔, 근생 총 1,015실	6,084.90㎡	33,572.52㎡	50,387.77㎡	827.64%

3. 층별구성

층별	구성	용도
옥상층	휴식공간	입주민 휴식공간
지상 5~23층	오피스텔	오피스텔
지상 2~4층	업무지원시설	섹션오피스
지상 1층	근린생활시설	로비 & 근린생활시설
지하 1층~지하 6층	주차장	주차장, 기계실, 전기실 등

4. 공급내용(오피스텔)

타입	전용면적	공용면적	기타공용면적	주차장면적	계약면적	대지비율
A	26.84㎡	14.64㎡	1.93㎡	22.24㎡	65.65㎡	4.82㎡
B	33.58㎡	17.42㎡	2.41㎡	27.83㎡	81.24㎡	6.03㎡
C	34.59㎡	18.60㎡	2.48㎡	28.67㎡	84.34㎡	6.21㎡
D	34.59㎡	18.60㎡	2.48㎡	28.67㎡	84.34㎡	6.21㎡

5. 신청자격

- 모집공고일 현재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분 [국내에 거주하는 재외동포 (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 및 외국인 포함]
- 본인 및 가족 중 소득증명(근로 및 사업소득세 등의 납세증명원)이 가능한 자

6. 신청장소 및 방법

- 신청장소: 분양홍보관
- 신청방법: 신청접수한 고객에게 정상 접수완료 통보 후 희망호수 접수

7. 계약시 구비서류

- 본인 신청시(배우자포함)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주민등록등본 1부, 인감증명서 1부
 - 재외동포 - 국내거소 신고증 1부 / 외국인 - 외국인 등록증 1부
- 대리인 신청시
 - 계약자의 신분증 사본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대리신청자의 주민등록증 / 계약자의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각 1부, 계약자의 인장 / 대리신청자의 신분증 및 인장

8. 신청금 입금계좌

납부금액	오피스텔: 금일백만원(1,000,000원) / 근린생활시설: 금오백만원(5,000,000원)		
예금주	주식회사 태릉건설	은행 및 계좌	농협은행: 301-0262-9243-31

* 이계약시 전액 환불

9. 사업관계사명칭

시행사공사	(주)태릉건설: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별말로 126, 오비트타워 1211, 1212, 1213호
분양보증	주택도시보증공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66, 18층(여의도동, 케이티비빌딩)

* 본 분양광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 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나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분양서양명에 문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광고에 사용된 CG는 스폰서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한 것으로 건물 크기, 위치 등은 실제보다 크거나 가깝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시행사 (주)태릉건설 | HUG | NH농협은행 | 청라 국제업무단지 매머드급 규모 | 총 1,015실(65.65㎡~102.60㎡)

- 전용면적은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내부선(건축지수)을 기준으로 전용면적이 산정되었습니다. - 상기 공급금액은 부가세 포함 금액이며,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 모두 소유권이전 등기비용, 취득세, 지방세 등은 미포함입니다. - 계약금은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에 의하여 계약 체결시 납부하여야 합니다. -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은 공용면적으로 하여, 실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되었습니다.

1522-0119

경기도 부천시 삼곡동 172-15, 1층(부천역 바로 앞)





대우건설, 울지로 신사옥에서 첫 시무식
대우건설이 서울 울지로 트윈타워에서 첫 시무식을 열었다. 대우건설은 2일 오전 김형 사장을 비롯한 전 집행임원들이 울지로 신사옥(트윈타워) 로비에서 출근길 임직원들을 맞이해 일일이 악수를 하고 떡이 들어있는 복주머니를 나누어주며 2020년 시무식을 대신했다고 밝혔다. 또한 대우건설은 울지로 신사옥에서 2020년 첫 새내기 사원들의 입사식을 개최했다. /대우건설



유진그룹, 새해 첫 날 나눔으로 시작
유진그룹이 2020년 새해 첫 날을 '나눔'으로 시작했다. 유진그룹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펼치고 있는 '희망2020나눔캠페인'에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위해 써 달라며 성금 3억원을 기탁했다고 2일 밝혔다. 이런 가운데 유경선 회장(왼쪽)과 임직원들은 이날 서울 여의도 본사에서 출근길에 인사를 나누는 것으로 새해 업무 시작을 알렸다. /유진그룹



풀무원, 강화도 화재복구 성금 1.5억 전달
풀무원은 최근 인천시 강화군 운수리에 위치한 발달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강화도 우리마을'에 전 직원이 정성으로 모금한 콩나물공장 화재복구 성금 1억5000만원을 전달했다고 2일 밝혔다. 이대성 강화도우리마을 신부(왼쪽부터), 김성주 전대주교, 이효율 풀무원 총괄CEO, 박남주 풀무원식품 대표가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풀무원

'mom편한 하이드림' 프로젝트 확대

롯데하이마트 사회공헌활동

롯데하이마트가 여성과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공헌활동인 'mom편한 하이드림(Hi Dream)'을 확대 운영한다.

mom편한 하이드림은 여성과 아동이 꿈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되는 가전제품을 지원하는 롯데하이마트의 사회공헌 프로젝트다. '엄마의 마음이 편안한 세상을 만들자'는 롯데그룹의 사회공헌 브랜드 'mom편한'과 롯데하이마트의 사회공헌 브랜드 '하이드림(Hi Dream)'을 합쳐 만들었다.

연 4회 실시했던 기존과 달리, 올해는 가사와 직장을 병행하는 워킹맘에게도 가사 노동에 도움이 되는 가전제



품을 지원하기 위해 2회 늘려 총 6회 실시한다. '롯데하이마트는 2020년 첫 번째 'mom편한 하이드림' 운영을 위해 오는 31일까지 롯데 CSV 홈페이지에서 엄마와 아이의 꿈에 대한 사연을 공개 모집한다. 심사를 거쳐 선정된 세 가정에게는 각자의 꿈을 이루는데 필요한 가전제품을 전달한다. 선정결과는 2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신원선 기자

하이브리드 임플란트



신태운 원장
치아건강

치아관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노년이 행복하려면 무엇보다 치아가 건강해야 한다. 치아가 건강해야 다양한 음식을 골고루 섭취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음식을 잘게 부수 소화할 수 있게 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20대의 건강한 치아를 100세까지 튼튼하게 사용하기 위해선 꾸준한 관리와 정기적인 진단 및 치료가 동반되어야 하지만, 대부분 특별한 자각증상이 없으면 치료를 미루는 경우가 많다.

특히 잇몸뼈가 약해지고 치아마모가 심한 노년층의 경우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 부분무치악 또는 무치악이 될 확률이 높아지고, 심하면 임플란트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도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의 70% 이상이 치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틀니를 사용하고 있거나 틀니를 필요로 하고 있으며, 85세 이상의 고령자 중에서는 치아가 거의 없는 무치악 상태인 경우가

상당수를 차지한다.

무치악 상태의 환자 대부분 비용적인 부담 때문에 임플란트 대신 일반 틀니를 많이 선호하는 편인데 본원에서 환자 구강상태에 따라 '전체틀니' 또는 몇 개 남은 치아를 이용한 '부분틀니', 몇 개의 임플란트를 식립한 후 이를 유지장치로 이용하는 '임플란트 틀니'를 주로 시행하는 편이다.

하지만 이런 치료는 결국 낫다 뺀다는 착각식의 틀니 치료가기 때문에 장기간 사용하다보면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느낄 수 있다. 따라서 경제적인 여유가 뒷받침 되고, 많은 수의 임플란트를 심을 수 있는 충분한 잇몸뼈, 그리고 이러한 시술을 견뎌낼 수 있는 건강상태만 뒷받침된다면 임플란트 치료를 받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

대표적인 시술방법으로는 '하이브리드 임플란트'가 있다. 하이브리드 임플란트는 자연치아와 거의 흡사한 저작력과 심미적인 효과 두 가지를 모두 만족시켜줄 수 있는 치료법으로 전체 임플란트에 비해 비용이 저렴하고, 심미적으로도 기존의 틀니에 비해 훨씬 우수하기 때문에 환자의 만족도 또한 매우 높다.

치료방법은 윗니에 5~7개의 임플란트를 심고, 아래쪽에는 4~6개의 임플란트만을 심은 후 이를 이용해 고정식 보철을 장착시켜주면 된다. 이 치료법의 장점은 틀니처럼 입속에 탈착을 하지 않아도 되고, 입천장을 덮어 이물감이 느껴지는 등의 불편함이 전혀 없다는 것과 뼈 이식을 하지 않기 때문에 수술 시 환자가 느끼는 통증도 덜하다는 것이다.

다만 이렇게 적은 수의 임플란트를 식립해 고정식 보철을 장착하려면 임플란트가 필요한 위치와 각도를 정확하게 맞춰 시술해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사람의 눈으로는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CT 촬영과 더불어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한 정밀 가이드 시술법이 병행되어야만 보다 정교한 시술이 가능하다.

아울러 임플란트 시술은 의사의 풍부한 임상경험이 뒷받침 되어야 부작용이 발생하거나 실패할 확률이 줄어들기 때문에 반드시 임플란트 전문병원에서 전문성을 갖춘 치과전문의에게 수술받는 것이 중요하다.

/치과전문의 믿음신치과 원장

현대백그룹, 10년째 '연탄 나눔봉사'로 새해 시작

정지선 회장 등 임직원 200여명 노원구 백사마을에 3750장 전달

현대백화점그룹이 10년째 '연탄 나눔 봉사'로 새해 첫 업무를 시작해 눈길을 끈다.

현대백화점그룹은 2일 오전 서울 강남구 삼성동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에서 '2020년 그룹 합동 시무식'을 마친 뒤, 곧바로 서울 노원구 중계본동 백사마을을 찾아 '연탄 나눔 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연탄 나눔 봉사에는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을 비롯해 각 계열사 사장단과 임직원, 그리고 나눔 봉사를 희망하는 고객들로 구성된 고객 봉사단 등 200여 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백사마을 내 30가구에 연탄 3750장을 직접 전달했다. 현대백화점그룹은 이날 직



2일 오전 서울 노원구 중계본동 백사마을에서 현대백화점그룹 정지선 회장(오른쪽에서 두번째)과 임직원 및 고객 봉사단이 10년째 맞이한 '연탄 나눔 봉사'에서 릴레이 연탄 나눔에 참여하고 있다. /현대백화점그룹

접 배달한 연탄 3750장을 포함해 총 25만장(2억원 상당)의 연탄을 '밥상공동체복지재단'이 운영하는 연탄은행에 기부했다. 기부된 연탄 25만장은 백사마을에서 연탄 난방을 하는 420여 가구에 약 600장씩 제공할 수 있는 양이다.

새해 첫 업무를 봉사활동으로 시작하는 현대백화점그룹의 '연탄 나눔 봉사'는 지난 2011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10년째 이어지며 그룹의 전통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인사

◆국가인권위원회 ◇과장급 △기획재정담당관 박광우 △행정법무담당관 김향규 △운영지원과장 임채호 △인권정책과장 조형석 △사회인권과장 윤재완 △조사총괄과장 김용국 △인권침해조사과장 박홍근 △아동청소년인권과장 안성윤 △군인권조사과장 송오영 △장애차별조사2과장 최낙영 △대전인권사무소장 김재석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 특별조사팀장 이발래

◆한양증권 ◇상무대우 △기금금융1부 안병중 △채권금융부 한경훈 △채권부 한재홍 △채권운용부 김현중 ◇이사대우 △프로젝트금융실 신준화 △투자금융실 민은기 ◇부장 △프로젝트금융부 나성호 ◇차장 △투자금융부 김배섭 △투자금융부 윤석채 △프로젝트금융부 강준민 △특수금

윤부 임낙원

◆이베스트투자증권 ◇팀장 선임 △임영준 (종합금융3팀) △김동수 (IB금융2팀) △문영복 (법인영업팀) △김정욱 (해외주식법인영업팀) △백선우 (주식운용2팀) △이재일 (파생상품2팀) △민병광 (인프라운영팀) △이현민 (해외파생영업팀) △김용련 (구조화금융2팀)

◆충흥건설 ◇승진 △전무이사 송종만 △상무이사(대우) 김승호 이주현 김승만

◆중근당 △전무 임종래 △이사 박신정

◆경보제약 △이사 김대현 김경수 △씨케이 이디창업투자 △상무 김형석

부음

▲김진문씨 별세, 김현호(원모터스코리아 대표) 정윤 수정(중앙일보 콘텐츠제작에 디터 겸 논설위원)씨 부친상, 김태환(자영

업) 김영우(자유한국당 국회의원)씨 장인상, 김지은씨 시부상=2일 오전 5시 1분, 대구 영남대병원 장례식장 301호. 발인 4일 오전 9시. (053)620-4241

▲홍창선(KAIST 명예교수·전 KAIST 총장·전 국회의원)씨 별세, 이순희씨 남편상, 홍승은 승호 승혁(GE 미국본사연구소 리드엔지니어)씨 부친상, 이계무(미드웨이 인터내셔널 이사) 원정호(우리 PE 자산 운용 본부장)씨 장인상=2일 오전 11시,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23호실, 발인 4일 오전 8시 20분. (02)3010-2263

▲박길자씨 별세, 김창년(전 인삼공사 감사)씨 부인상, 김지현 지수 희수 상일(필드코리아 상무)씨 모친상, 장정현(경향신문 전략기획실장) 박종운(성원에프씨 대표) 김대진(CJ제일제당 부장)씨 장모상=2일 오전 5시 29분, 신촌 세브란스 병원, 발인 4일 오전 8시. (02)2227-7500

‘위기의 유통’ 극복 키워드 #체인저 #전환점 #신규사업

유통업계 신년사

‘게임 체인저’, ‘성장의 전환점’, ‘신규사업 발굴’

2019년 경자년(庚子年) 새해를 맞아 유통업계 ‘빅3’ 수장들이 내놓은 신년사의 공통적인 키워드는 ‘변화’였다. 그 기준은 ‘고객’이었다. 위기를 발판 삼아 돌파해나가자고 메시지도 담겨 있다. 온라인 시장의 급성장으로 위기의식을 느낀 유통업계가 체질 개선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신동빈 롯데 회장은 2일 “공감(共感)과 공생(共生)으로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어 나가자” 전했다. 첫번째로 “고객과의 지속적인 공감(共感)을 통해 더 나은 가치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그는 “고객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고객의 니즈, 더 나아가 시대가 추구하는 바를 빠르게 읽어내어 창조적이고 새로운 가치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며 “다른 기업보다 한 걸음 더 빠르고, 어제보다 한 뼘 더 나은 가치를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두 번째로는 “핵심역량은 강화하면서 기존 사업구조를 효율적으로 혁신해 지속 가능한 성장의 발판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신 회장은 “변화의 수용력이 속에서는 회사를 굳건히 지탱해 줄 핵심역량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우리의 장점을 효과적으로 발휘할 수 있는 사업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 사업분야에 얽매일 필요는



**공감·공생으로
지속가능 미래
만들어 나가자**

없다며 “우리의 역량을 바탕으로 선제적으로 혁신하고 시장을 리드하는 ‘게임 체인저(Game Changer)’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간간 강조해 온 디지털 전환을 통한 비즈니스 혁신도 다시 한 번 촉구했다.

세 번째로는 “유연하고 개방적인 기업문화 조성”을 주문했다. 신 회장은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경직된 기업문화와 관성적인 업무습관을 버려야 한다”며 “새로운 성장동력을 모색하기 위한 오픈 이노베이션은 우리의 변화에서부터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은 “불경기는 기회가 적어진다는 의미일 뿐, 기회가 아예 사라진다는 것이 아니다”라며, 준비된 기업은 불경기에 더 큰 성장



**준비된 기업
불경기에
더 큰 성장**

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올해는 ▲수익성 있는 사업 구조, ▲고객에 대한 집중, ▲미래성장을 위한 신규사업 발굴 등 세 가지 역량을 집중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빠르게 변화하는 유통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고객의 목소리로 중심을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부회장은 “고객 입장에서 무언가 충족되지 못한 것, 무언가 만족스럽지 못한 것을 찾아 개선하고, 혁신하는 것이 신세계그룹의 존재 이유”라며 고객의 불만에서 새로운 성장의 기회를 발굴해 줄 것을 주문했다.

끝으로 “2020년 신세계그룹 모든 사업은 고객의 불만에서 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본질적인 ‘MUST-HAVE’를 위해 모든 것을 바쳐야 한다”며, “위기를



**양적성장 보다
혁신성장 우선
글로벌성장 준비**

기회로 만들기 위해 치밀하게 분석하고, 철저히 준비할 것”을 당부했다.

손경식 CJ그룹 회장은 “국내 및 글로벌 경기 악화가 지속되는 지금의 위기 상황에서 ‘양적 성장’보다는 안정적 수익성이 동반되는 ‘혁신 성장’을 우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 회장은 임직원에게 글로벌 톱티어(Top-Tier) 기업 수준의 수익성을 확보해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주력 사업과 대형 품목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는 해로 만들자고 당부했다.

손 회장은 “혁신 성장으로의 전환은 향후 본격적인 글로벌 성장을 위한 준비과정”이라며 “이 시기에 핵심 사업과 관련된 R&D 강화, 신기술 개발, 인재 확보를 통해 도전적인 초격차역량을 강화하는데 주력하자”고 강조했다.



**10년 출발점
실질적변화 실천
전환점 삼아야**

CJ그룹은 올해 ▲혁신 성장 기반으로 기업가치를 제고하고 ▲새로운 도약의 원동력이 될 초격차 역량을 확보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한편 ▲‘일류 인재’, ‘책임 경영’, ‘목표 달성’이 축을 이루는 CJ의 일류문화를 확고히 정착시킬 계획이다.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은 “2020년을 그룹의 새로운 10년의 출발점이자, 성장을 위한 실질적 변화를 실천해 나가는 전환점으로 삼고, 성장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비전을 만들어 나가자”고 밝혔다. 이어 “변화의 파도에 올라타지 않으면 침몰할 수밖에 없다는 절박한 각오를 다져야 한다”며 “수많은 도전을 통한 실패에 당당히 맞설 때, 비전은 현실이 되고 우리 그룹은 새로운 역사를 써나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혁신적 사고와 실행을 바탕으로 한 성장전략 추진 ▲고객 가치에 초점을 둔 비즈니스 모델 변화 ▲공감과 협력의 조직문화 구축 등 3대 경영 방침도 제시했다.

LG생활건강 차석용 부회장은 “진정한 글로벌 회사로 도약하기 위해 기존 글로벌 사업 전개의 기초를 유지하면서 미주 사업의 성공적 안착을 가속화 해야 한다”며 세계적 명품 브랜드 육성을 위한 화장품 사업 경쟁력 강화, 차별화된 컨셉의 생활용품 통합 프리미엄 브랜드 육성, 음료 브랜드 시장 우위 강화 및 효율적인 공급체계 구축, 글로벌 진출과 미래 사업 역량 강화를 위한 디지털 전환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골든블루’ 국내 넘어 세계시장 공략 박차

중·싱가포르·캄보디아 등 7국 수출
베트남서 4년연속 두자릿수 성장률



골든블루 제품 /골든블루

골든블루는 국내 1등 정통 위스키 ‘골든블루’가 국내 시장을 석권한데 이어 해외 시장에서도 인기를 끌며 쾌속 질주를 이어가고 있다고 2일 밝혔다.

골든블루는 2010년도에 중국으로 처음 ‘골든블루’를 수출하면서 해외 시장에 첫발을 내딛었다. 이후 2011년도에 베트남으로 수출을 시작하고 2014년도에는 싱가포르와 캄보디아로 수출국을 늘렸다.

골든블루는 ‘골든블루’가 국내 정통 위스키 시장에서 1위로 도약한 2017년 이후부터 해외 소비자와 만날 수 있는 길을 적극적으로 넓혀왔다. 2018년 6월에 처음으로 면세점 시장에 진출했으며, 그해 8월에는 인도네시아와 태국으로 신규 수출 국가를 개척했다. 작년 8월에는 말레이시아로 ‘골든블루 20년 서밋’을 첫 해외 수출해, 현재 ‘골든블루’는 중국과 동남아 총 7개 국가에 수출되고 있다.

그동안 ‘골든블루’의 해외 수출 실적도 꾸준히 성장해왔다. 첫 수출 국가인 중국에서는 가장 활발한 경제특구이자 소비 중심지인 상해를 집중 공략해 부드러운 맛과 고급스러운 패키지로 호평

을 받아 2010년 하반기 중국에 수출된 한국산 위스키 중 판매량 1위를 기록한 바 있다.

동남아에서도 뛰어난 맛과 품질로 좋은 호응을 얻고 있으며, 한류 열풍과 K푸드 트렌드와 맞물려 한국형 위스키 ‘골든블루’를 찾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는 추세다. 특히 베트남에서는 매년 눈에 띄는 실적 호조를 보이고 있다. ‘골든블루’는 베트남에서 4년 연속 두자릿수의 성장률을 이어가고 있으며, 지난해의 경우 판매량이 경종 뛰어 48%의 높은 성장률 기록했다. 또한 2019년 하반기에는 베트남에 수출되고 있는 한국형 위스키 중에서 판매 1위에 오르는 성과를 달성하기도 했다. 베트남에서의 호재로 ‘골든블루’의 2019년 수출 판매량은 2018년 대비 23% 성장했다.

이와 같이 베트남 진출의 성공은 매우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베트남은 경제 성장률이 높고 젊은 층 비중이 높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 주목하고 있는 성장 잠재력이 큰 국가다. 생산 시장에서 이제는 소비 시장으로 탈바꿈하고 있는 베트남에서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골든블루’가 세계 시장에 자리 잡을 수 있는 필수적인 기반을 조성했다는 것을 나타내며, 추후 다른 국가도 성공적으로 진입해 글로벌 브랜드로 도약할 수 있는 높은 가능성을 보여준다.

김동욱 골든블루 대표는 “‘골든블루’는 해외에 거주하는 교민뿐 아니라 현지인들 사이에서도 온화하면서도 부드럽게 넘어가는 위스키라는 좋은 평을 얻어 찾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며 “앞으로 더 많은 나라의 소비자들이 ‘골든블루’를 즐길 수 있도록 해외 수출 국가 다변화에 적극 노력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내 위스키 시장의 리더로 우뚝 올라선 ㈜골든블루는 올해 해외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해 외형 성장을 견인해 나간다는 전략이다. 특히 올 상반기에는 세계 최대 규모의 주류 시장을 가지고 있는 미국에 ‘골든블루’를 수출하고 더 많은 신규 시장을 개척해 나간다는 전략이다. /박인용 기자 parkiu7854@

롯데칠성음료 종량제 수용 맥주 2종 출고가 ↓

롯데칠성음료가 지난 1일부터 시행되는 종량제를 적극 수용해 국산맥주 ‘클라우드’와 ‘피츠 슈퍼클리어(사진)’ 출고가를 인하한다



고 2일 밝혔다. 올해부터 맥주 과세가 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종가세 방식에서 술의 용량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종량제로 전환된다. 이에 ‘클라우드’는 캔맥주 500ml 기준 1880원에서 1565원으로, ‘피츠’는 캔맥주 500ml 기준 1690원에서 1467원으로 각각 인하한다. /박인용 기자

유통단신

동원F&B

‘必환경 선물세트’

동원F&B가 2020년 설을 맞아 플라스틱을 줄이고 종이 재질 가방을 사용하는 등 환경보호를 고려한 ‘필(必)환경’ 선물세트 200여종을 선보인다고 2일 밝혔다. 먼저 선물세트 구성품의 위치를 재배치하고 간격을 최대한 줄여 사용되는 플라스틱의 무게를 평균 20% 줄였다. 이를 통해 연간 40t의 플라스틱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되며 이는 500ml 생수병으로 환산하면 무려 250만개에 달하는 양이다. /박인용 기자



하이트진로

‘일품진로 1924’ 판매

하이트진로가 설 명절을 맞아 소중한 사람에게 마음을 전할 프리미엄 증류주 ‘일품진로 1924(사진)’ 선물세트를 한정 판매한다고 2일 밝혔다. 선물세트는 일품진로 1924(375ml) 2병과 전용잔(스트레이트 잔 2개, 언더라스 잔 2개) 4개 구성이다. 프리미엄 소주의 격에 맞게 실크 원단과 고급스러운 질감의 박스로 포장해 선물 가치를 높였다. 1월 2주차부터 전국 홈플러스 주요 매장 한정 판매될 예정이다. /박인용 기자

“생존을 넘어 가속할 때... 도전과 혁신 원년 삼자”

제약사 CEO 신년사

우중수 한미약품 사장
“내실 기반으로 글로벌 성과내야”

전승호 대웅제약 사장
“개방형 협력 통한 혁신신약 개발”

새해를 맞은 첫날, 국내 제약사 최고 경영자(CEO)들이 2020년을 도전과 혁신의 원년으로 삼자고 강조했다.

지난 시간 쌓아온 내실을 바탕으로 신약개발과 글로벌 진출 등 눈에 보이는 성과를 만들어내자는 당부도 이어졌다.

이정희 유한양행 사장은 2일 열린 시무식을 갖고, 변화와 혁신을 통해 글로벌 기업으로 나아가자고 강조했다.

이 사장은 “진정한 글로벌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생존을 넘어 도약과 성장을 향한 최선의 기회를 끊임없이 만들고 이를 적극적으로 실행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2020년은 미래를 향한 행보를 더욱 가속화하여 새로운 성장을



2일 한미약품 시무식 현장에서 우중수 대표(왼쪽 다섯번째)와 임직원들이 2020년 새로운 도전을 다짐하고 있다.

도모해야 할 때로, 임직원 모두가 변화와 혁신의 중심이 되어 Great Yuhan, Global Yuhan을 만들어 나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우중수 한미약품 사장은 ‘제약강국을 위한 한미의 새로운 도전 2020’을 선포했다. 우 사장은 신년사를 통해 지난 10년간 험 없이 달려온 한미의 R&D 도전 역사와 국내사업부의 성과를 언급하면서 “지난 10여년간 글로벌 제약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끊임없이 혁신하고 내실을 다져왔다”며 “2020년부터 펼쳐질 앞으로의 10년은 지금까지 쌓아온

내실을 기반으로 반드시 괄목할만한 성과를 창출해내야 한다”고 임직원들을 독려했다. 이어 “대한민국과 제약업계가 한미약품에 걸고 있는 기대가 매우 크다는 점을 모두 잘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대한민국의 제약강국 도약을 위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미약품이 해내야 한다. ‘제약산업은 대한민국의 미래이고, 한미약품은 제약산업의 미래’라고 강조했다.

전승호 대웅제약 사장 역시 이날 서울 삼성동 본사에서 시무식을 갖고, “올해는 글로벌 2025 비전 달성 목표를 위



이정희 유한양행 사장



전승호 대웅제약 사장



한중현 동아쏘시오홀딩스 사장

우는 일하는 방식의 혁신을 기반으로 글로벌 인재를 육성해 나갈 것이며, 임직원도 변화의 시대에 필요한 역량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고민하고 학습하여 성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변화를 위한 임직원들의 끝없는 노력도 독려했다.

한중현 동아쏘시오홀딩스 사장은 “자신의 분야에서 리더가 되어 문제를 발견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전할 줄 알아야 한다”며 “진정한 리더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문제를 해결하고 도전하는 것과 더불어 힘든 사람들을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워 주면서 남도 잘 되게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은철 GC녹십자 사장은 신년사를 통해 “GC녹십자가 추구하는 기업정신의 본질과 목적을 명확히 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란다”며 “기업에도 인격이 있는 만큼, 높은 인격을 갖춘 기업으로서 기업의 성공이 구성원과 사회의 풍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모든 임직원이 노력해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세경 기자 selee@metroseoul.co.kr



이길선 부부와 아기(앞줄)가 이식을 담당했던 박재범·장해련 교수(뒷줄 가운데, 오른쪽)

신장이식 환자 출산 성공... 국내 첫 사례 (면역관용유도)

삼성서울병원

세계 이식센터 중 4곳서만 이식 가능

면역관용유도 신장이식 수술을 받은 환자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아기를 출산했다. 전 세계적으로도 세번째다.

삼성서울병원은 면역관용유도 신장이식 수술을 받은 이길선(39)씨가 지난 11월 27일 건강한 남자아이를 출산했다고 2일 밝혔다. 신장이식 환자가 출산

한 경우는 기존에도 있었지만, 면역관용유도 이식을 받은 환자의 출산은 이번이 처음이다.

면역관용이란, 면역억제제 복용 없이도 이식된 장기가 거부반응을 일으키지 않고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전세계 4곳의 이식센터에서만 면역관용 유도 신장이식이 가능하다. 국내에선 삼성서울병원이 지난 2011년 국내 최초로 성공했다. /이세경 기자

SK바이오사이언스 4가 세포배양 독감백신 WHO 인증

SK바이오사이언스는 자체 개발한 4가 세포배양 독감백신 ‘스카이셀플루4가’가 세계보건기구(WHO)의 사전적격성평가(PQ) 인증을 획득했다고 2일 밝혔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지난해 세포배양 방식의 3가 독감백신이 WHO PQ 인증받은 데 이어 4가 독감백신의 품질도 인정받게 됐다. 세포배양 방식으로 생산된 4가 독감백신이 WHO PQ 인증을 획득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WHO PQ 인증은 WHO가 개발도상국에 백신 등 의약품 공급하기 위해 안전성, 유효성 등을 평가하는 제도다.

PQ 인증을 받아야만 유니세프(UNICEF), 파호(PAHO, 범미보건기구) 등 국제기구가 주관하는 조달시장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WHO PQ 인증을 기반으로 독감백신 국제 입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다. /이세경 기자

JW중외제약 JP모건 컨퍼런스 참석... 수출 적극 홍보

글로벌 투자사들과 일대일 미팅 치료제, 추가 기술제휴 사업 논의 ‘JW1601’ 전략, 개발 현황 공개

JW중외제약이 세계 최대 제약바이오 투자행사인 JW1601에서 기술수출 등 전략적 파트너십을 발굴한다.

JW중외제약은 13일(현지시간)부터 나흘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참석해 다국적 기업에 비롯한 글로벌 투자사들과 일대일 미팅을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JW중외제약은 이번 컨퍼런스에서 자체 개발한 주요 혁신신약 후보물질의 오픈 이노베이션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특히 기술수출에 성공하며 글로벌 시장에서 가치를 인정받은 아토피 피부

염 치료제 ‘JW1601’과 통풍치료제 ‘URC102’의 추가 기술제휴 사업을 논의한다.

JW중외제약은 ‘JW1601’의 적응증 확대 전략과 개발 현황을 처음으로 공개한다. ‘JW1601’은 히스타민 H4 수용체에 선택적으로 작용해 염증과 가려움증을 동시에 억제하는 새로운 기전의 혁신신약(First-in-Class) 후보물질로, 현재 아토피 피부염에 이어 노인성 황반변성, 알리저성 결막염 등의 안과 질환에 대한 비임상 시험을 진행하고 있다.

통풍치료제 ‘URC102’에 대해서는 한국과 중국을 제외한 글로벌 기술이전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지난해 9월 통풍 시장의 블루오션으로 주목받고 중

국에 기술수출됨에 따라, 다른 국가에 대한 라이선스-아웃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밖에 Wnt 표적항암제 ‘CWP291’, Wnt 표적탈모치료제 ‘CWL08061’, 수지상세포치료제 ‘CreaVax(크레아박스)’ 등에 대한 최신 연구 현황과 임상개발 전략도 설명할 예정이다.

JW중외제약 이성열 대표는 “JP모건과 같은 글로벌 투자 컨퍼런스는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원천기술을 오픈 이노베이션 하는데 최적의 행사”라며 “JW1601과 URC102의 연이은 기술수출로 확인된 JW의 연구개발 역량에 대해 높은 관심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세경 기자

메디톡스, 액상형 보툴리눔 ‘이노톡스 100단위’ 첫 선

25, 50단위 다양한 용량 라인업 美 cGMP 기준 제2공장 가동율 ↑

메디톡스 제2공장에서 생산한 ‘이노톡스 100단위’가 국내 시장에 선보인다. 바이오제약기업 메디톡스는 지난달 27일 자사 기술로 개발한 세계 최초의 액상형 보툴리눔 독신 A형 제제 ‘이노톡스(INNOTOX)(사진)’ 주 100단위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시판 허가를 획득했다고 2일 밝혔다. 메디톡스는 이번 허가 획득으로 기존 ‘이노톡스’ 25단위, 50단위와 함께 다양한 용량의 라인업을 확보하게 됐으며, 미국 cGMP 기준의 이노톡스 전용 공장인 제2공장의 가동율도 높아지게 됐다.

메디톡스가 2014년 세계 최초로 개발



한 액상형 보툴리눔 독신 A형 제제 ‘이노톡스’는 사람혈청알부민과 제조공정 상 동물성 유래물질을 완전히 배제하여 안전성을 강화한 보툴리눔 독신 제제다. 액상형으로 개발되어 별도의 희석 과정 없이 바로 사용 가능, 시술 편의성을 한층 개선하였으며 보다 정밀한 시술 용량 산정도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메디톡스 정현호 대표는 “이번 이노톡스 100단위 허가는 다양한 용량의 라인업을 확보되어 소비자 니즈에 맞는

시장 공략이 가능해졌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며 “이노톡스의 추가 적응증 확보를 위한 임상시험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 프리미엄 독신 시장에 대한 선점을 한층 가속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메디톡스가 보유한 3종의 보툴리눔 독신 제제(메디톡스, 이노톡스, 코어톡스)를 잇는 신개념의 ‘프리필드 실린지’형 독신 제제도 곧 선보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디톡스는 액상형 보툴리눔 독신 제제 ‘이노톡스’의 선진 시장 진출을 위해 지난 2013년 미국 앨러간 사와 기술이전계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미국 앨러간 사는 오는 2022년 이노톡스의 미국 출시를 목표로 미국 및 유럽 임상 3상을 진행 중이다. /이세경 기자

20년간 쌓은 '장인의 노하우' 삼성, 최고 기술 전문가 '삼성명장' 4명 선정

제조기술·설비·레이아웃 분야서 숙련도·노하우 겸비한 직원 선정

삼성명장이 새로 4명 추가됐다. 삼성전자와 삼성전기는 2일 '삼성명장'을 각각 3명, 1명 선정했다고 밝혔다.

삼성명장은 기술 전문성과 노하우가 특히 요구되는 제조 관련 분야에서 20년 이상 근무해 장인 수준의 숙련도와 노하우를 겸비한 직원을 최고 전문가로 인증하는 제도다. 지난해 처음 도입해 총 8명이 삼성명장을 달았다.

올해에는 제조기술과 설비, 반도체 패턴 회로설계(레이아웃) 분야에서 1명씩 선정했다. 레이아웃 분야에서는 올해 처음 삼성명장을 선발했다. 삼성전기도 제조기술 분야에서 1명을 삼성명장으로 임명했다.

문영준 명장은 제조기술 분야로, 1995년 입사한 고밀도 실장기술 전문가다. 2017년부터 차세대 디스플레이 양산기술 확보 연구를 주도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앞서 글로벌 기술센터에서도 지문인식 홈키 모듈 조립 공정기술을 개발하는 등 다양한 기술을 개발해왔다. '멘토-멘티' 제도로 후임 양성 노력도 이어가고 있다.

배중용 명장은 설비 부문에서 24년간 근무한 반도체 메탈 공정 박막증착(ALD) 설비 전문가다. 작은 반도체에 필수적인 다양한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설비 부품 디자인과 기술 공정 개선으로 설비 경쟁력 강화



(왼쪽 상단부터 시계방향으로) 제조기술 부문 문영준 명장, 설비 부문 배중용 명장, 제조기술 부문 정현주 명장, 레이아웃 부문 이승권 명장

에도 기여했다.

이승권 명장은 파운드리 사업부 소속으로 레이아웃 부문에서 선정됐다. 35년간 근무했으며, 레이아웃 자동화 툴 개발과 방법론 기준 수립 등 기술적 한계를 극복했다. 사내대학 삼성전자공과대학(SSIT) 반도체공학과를 졸업하고 높은 사명감과 전문성으로 후진 양성 노력도 병행 중이다.

정현주 명장은 삼성전기 컴포넌트솔루션 사업부 소속으로 첫 회사 명장이 됐다. 1996년 입사해 MLCC 제조기술 분야에서 설비 국산화와 현장 혁신을 이끌었으며, 중국 천진법인과 필리핀법인 신공장 증설 및 안정화 등 공로도 있다.

삼성전자와 삼성전기는 이날 시무식을 통해 삼성명장에 명장 인증패를 수여했다. /김재용 기자 juk@metroseoul.co.kr

너도나도 구독경제, 방심은 금물



기자 수첩

김나인
(산업부)

넷마블은 지난달 30일 국내 렌털 시장 1위 업체 웅진코웨이 인수를 확정하며 '구독경제'에 뛰어들었다. KT는 차세대 5G 스토리지 구독경제 모델을 강화하고 있다. 월 이용료를 내고 원하는 영상을 마음껏 시청하는 넷플릭스와 음원플랫폼은 이미 이용자들에게 익숙해진 구조다.

소유에서 공유를 넘어 경험을 중시하는 구독경제가 새로운 수익 모델로 떠오르고 있다. 구독경제의 '구독'은 신문이나 잡지, 우유 배달 등을 통해 이미 우리에게 익숙한 용어다. 그러나 요즘 말하는 구독경제는 좀 더 스마트하고, 자유로운 개념이다.

구독경제는 4차 산업혁명의 발달과 소유보다 경험, 취향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밀레니얼 세대를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미국의 시장조사업체인 가트너는 2020년까지 소프트웨어 공급업체 중 80% 이상이 구독 기반 비즈니스 모델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했다.

기업들이 변화의 물결을 따라 ICT를 기반으로 구독경제에 뛰어드는 일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한 번 구독하면 서비스가 대부분 자동결제돼 안정적인 매출을 확보할 수 있고, 구독자가 늘어도 비용이 크게 늘어나지 않는다.

그러나 방심은 금물이다. 일정한 구독자를 확보해 안정적인 기반을 유지했다고 생각하고 서비스 업데이트나 관리를 소홀히 하는 순간 가입자를 잃을 수 있다. '영화계의 넷플릭스'로 떠올랐던 미국 무비패스의 실패가 대표적이다. 무비패스는 월 1만1500원 정도에 매일 극장에서 영화를 볼 수 있는 구독서비스를 출시해 단기간에 수백만명의 구독자를 유치했지만, 비용이 수익보다 늘어서 서비스를 중단해야 했다.

밀레니얼 세대는 취향도 확실한 만큼 새로운 것이 없으면 싫증도 금세 낸다. 구독자들 '다 잡은 고기'로 보지 않고 새로운 피를 수혈해야 오래 갈 수 있다. "직선형 거래 채널이 구독자와의 동적인 원형 관계로 변하는 것이 디지털 전환이다." 구독경제 용어를 처음 사용한 주오라 창립자 티엔 추오의 말에 주목해야 할 때다.

/silkni@metroseoul.co.kr

오늘의 운세 1월 3일 (음 12월 9일)

http://www.saju4000.com

쥐 36년생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 두라. 48년생 경치는 수려하나 내가 머물 곳은 아니다. 60년생 내 것이 아닌 것을 욕심내지 마라. 72년생 인생은 새옹지마이니 좋은 일도 곧 울 것이다. 84년생 힘든 일을 억지로 할 필요는 없다.

소 37년생 하나를 뿌리고 열 개를 얻는 날. 49년생 배우자의 도움으로 어려운 일을 해결. 61년생 삶이 지루하게 느껴지는 하루. 73년생 내가 도와준 어제의 후배가 경쟁자로 나타난다. 85년생 내가 좋다고 남에게도 강요하지 마라.

호랑이 38년생 가족 간에도 공과 사는 분명히. 50년생 분실수가 있으니 사람 많은 곳에서 조심. 62년생 아랫사람의 조언도 잘 새겨들어야. 74년생 천 리 길도 한걸음부터이니 먼저 할 일을 찾아. 86년생 변화의 날이니 옷차림에도 신경.

토끼 39년생 만회할 타이밍을 놓치지 마라. 51년생 상부상조하는 것이 서로에게 이익. 63년생 일취월장할 기회가 주어지니 최선을 다하라. 75년생 남의 말에 현혹되지 말고 주관을 갖고 행동. 87년생 위장계통이 안 좋을 수 있으니 주의.

말 40년생 삶의 중심에 겸손하라. 52년생 날개 없이 하늘을 날아다니는 기분. 64년생 소금장사 떠나는 데 비 내리는 격이니 잠시 지체. 76년생 남의 눈에 티끌만 보지 말고 내 잘못도 생각. 88년생 선봉에 나서면 구설이 따른다.

뱀 41년생 고통과 실패는 큰일의 밑거름이 된다. 53년생 송사에 휘말릴 수 있으니 말조심. 65년생 고대하던 것일수록 잘 살펴야 한다. 77년생 흐지부지될 수 있으니 모든 것은 문서로. 89년생 집착보다는 무관심이 오히려 편하다.

말 42년생 장미꽃 같은 화사한 날이다. 54년생 결심은 늘 하지만 행동은 하지 않는다. 66년생 한발 물러서면 그다지 손해는 아니니 결단이 필요. 78년생 남쪽으로 여행을 떠나면 길다. 90년생 가장 큰 협력자는 부모님이다.

양 43년생 적선이 자식들의 복으로 쌓인다. 55년생 민고 말기면 좋은 결과가 온다. 67년생 가지 못한 길에 아쉬움을 두지 마라. 79년생 우물거에서 송눈 찾지 말고 순서대로. 91년생 새로운 기회가 오니 놓치지 말고 최선을 다하라.

원숭이 44년생 사람앞에서 자랑보다는 지출하라. 56년생 거친 파도를 만나지만 튼튼한 배가 있어 걱정 없다. 68년생 부적절한 관계는 망신살을 부른다. 80년생 내 것이 아닌 것을 욕심내면 마음만 다친다. 92년생 결과는 노력이 가져온다.

닭 45년생 도움을 줘도 당연시하는 자식 때문에 속이 상한다. 57년생 떠나기는 어정쩡한 하루. 69년생 타인의 불행을 방관하지 마라. 81년생 뜻은 원대하나 현실은 만만하지 않다. 93년생 먼 곳에서 손님이 찾아오니 불청객이다.

개 46년생 친구의 병문안 갈 일이 있다. 58년생 오늘은 느긋하게 행동하라. 70년생 다툼이 있어도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 다행. 82년생 손재수가 있으니 기부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 94년생 낙수물에 바위가 돌리는 법이니 지속적으로.

돼지 47년생 입안의 혀처럼 구는 사람을 조심. 59년생 결과와 과정도 좋은 평가를 받는다. 71년생 그물에 잡힌 물고기처럼 답답하다. 83년생 후배가 치고 올라오니 마음이 불편하고 서글프다. 95년생 최선을 다해도 못하면 내일이 있다.

SUDOKU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 듬뿍! 아이큐 쑥쑥!

-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 가로·세로 3×3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1	5				9	8	
4								5
			6		1			
		8				5		
	9	4				2	7	
			9	7	2			
			2		7			
	2	7	5	9	6	4	3	
	6						1	

								8
	1	8		6	7	2		
	5		9					
		5		4				6
	6		3			7	4	9
	7				9			
	9			2				
				4	7			1
4				9	5		2	

스도쿠 정답

2	1	8	9	6	7	5	4	3
8	6	5	4	3	2	1	9	8
6	5	9	2	1	8	7	6	5
7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
5	6	7	8	9	1	2	3	4
1	2	3	4	5	6	7	8	9
3	4	5	6	7	8	9	1	2
9	8	7	6	5	4	3	2	1

문제 제공 = **보orus**



김상회의四季

모계사회

인류의 역사를 돌아보면 모계사회로서 여성 중심적 사회질서였던 시대가 있었다. 이러한 모계사회는 성씨(姓氏)의 출현과 관계가 있지 않을까 싶다. 부족국가나 씨족국가로 확대해지려면 가계(家系)를 분명히 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한다. 아마도 씨족사회가 분명해지기 전에는 결혼제도도 사회적으로 확고히 자리 잡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다가 수렵 생활에서 농경사회로 정착이 되면서 명령계통의 정립이 필요했었을 것이다. 이러한 당위성은 그 부족을 대표하는 힘 있는 권한의 정점을 남자들이 차지하게 되었다. 따라서 후계자는 장자 위주의 질서가 자리 잡게 되었을 것이다. 그러면서 슬슬 여자들은 아이를 많이 낳을수록 대접받는 사회 분위기가 자리 잡았을 것이고 그다음부터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고 익숙한 모습으로 전개된 것이다. 그런데 남성 위주의 사회로 개편된 것까지는 그렇다 하겠는데 문제는 여성을 남자의 소유물이나 귀속물로 본다는 데서 인간사의 모순을 느낀다. 인권이 발달한 서양에서도 지금까지도 여자들은 결혼하면 남편 성을 따른다. 여성을 독립적 인격체가 아닌 남자의 보호 아래 종속돼야 할 존재로 본 데서 연유한 전통이라는데 학자들은 의견을 같이하는 듯하다. 이는 기독교 사상에도 그 시원을 살펴볼 수가 있다. 하나님은 아담을 만들고 그 갈비뼈로 아내인 이브를 만들었으니 결혼한 여성을 당연히 남편의 귀속물이라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것이다. 그러나 성을 바꾸는 것은 자연스러운 부수 과정이 되는 것이다. 현대에 들어와서도 인격의 독립성을 구가하는 서양 여성들이 결혼해서도 처녀 때 성을 쓰는 경우가 생각보다 소수인 것도 그러하다. 페미니즘을 구가하는 진보 여성들은 씩씩하기도 하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 02) 533-8877 / www.saju4000.com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 02)721-9800, FAX: 02)730-1551

발행·편집인 편집국장	이장규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4356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0460호

‘학구파’ 와인 애호가 위한 ‘전문가의 자격’



안상미 기자의

Why, wine

〈55〉 와인 자격증

“한국은 확실히 분위기가 달라요. 이 령계 2~3시간이 지나서는 유럽이나 미국, 아시아 할 것 없이 취해서 비틀거리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한국에서 열리는 와인 행사를 참석해보면 그런 사람이 거의 없어요. 모두들 뭔가 열심히 먹고, 전문가나 수입사 관계자가 아니라도 와이너리 담당자에게 와서 적극적으로 묻죠. 질문 수준도 높아요. 특정 빈티지와 비교하거나 테루아에 대해 논해요. 일본은 유행에 민감하죠. 중국은 와이너리 명성이나 브랜드에 집착해요. 한국은 학구적인 애호가들이 많습니다.”

한 와인 행사에 참석한 해외 와이너리 관계자의 말이다. 그리고 보니 기억나는 장면들이 많았다. 삼삼오오 친구들과 끼리 와셔도 진지하게 와인을 테이스팅하고, 의견을 나눈다. 현장에서 시음노트를 작성하는 이들도 많다.

하긴 동네 뒷산을 올라가더라도 에



지난해 새로 탄생한 14명의 마스터 오브 와인.

/와인 협회 (Institute of Masters of Wine)

베레스트 등반 장비와 옷을 갖추는 우리다. 와인에 있어서도 전문가의 그것을 추구할 수밖에 없다.

기지도 남의 말을 할 처지는 안된다. 그저 술이 좋아 마시다 보니 소주와 맥주도 브랜드에 따라 유별나게 구분할 수 있다는 걸 깨닫고는 와인에 기웃거렸고, 바로 소믈리에 자격 코스를 등록했으니 말이다.

경자년 새해를 맞아 학구열 넘치는 와인애호가를 위해 와인자격증을 살펴볼까 한다.

먼저 국내에서 와인 소믈리에에 국가인증 자격은 아직 없다. 민간 협회로 한국 소믈리에협회와 한국 국제 소믈리에협회, 한국 와인교육협회 등이 와

인 소믈리에 자격증을 발행하고 있다. 필기시험을 비롯해 블라인드 테이스팅, 와인 서비스 실습 등의 과정을 거친다. 같은 시험을 통과해도 와인 서비스에 종사하고 있지 않으면 소믈리가 아니라 와인어드바이저로 불린다.

국제 자격증으로 눈을 돌리는 이들도 많다.

가장 알려진 것이 WSET다. 와인과 스피릿 교육인증(Wine & Spirits Education Trust)의 약자로 영국에서 시작됐다. 자격 등급에 따라 와인 수준을 나타내는 기준으로 전 세계에서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어 우리나라에서도 선호도가 높다.

생업이 아니라 취미 수준으로 와인

을 공부한다면 WSET 레벨 1, 2가 적당하다. 레벨 1은 와인 입문 과정으로 짧으며, 레벨 2는 와인 포도 품종이나 양조에 대해 좀 더 체계적인 수준까지 들어간다.

WSET 레벨 3부터는 어디가서 자격증을 내면 전문가로 인정을 받는다. 와인을 시음하면 감별하고 평가할 수 있다. 합격률도 10% 안팎으로 낮다. 디플로마로 불리는 레벨 4는 아직 국내에서는 10명 안팎에 불과하며, 자격을 딸 수 있는 과정도 만들어지지 않았다.

절정은 와인 마스터(Master of Wine)다. 와인 마스터들은 와인 심사, 테이스팅 행사, 평론 등을 통해 와인업계에서 권력에 가까운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최고의 영예다. 50년의 역사를 자랑하지만 전 세계 30개국, 389명의 와인 마스터가 전무다. 지난 2008년 동양인 최초의 와인 마스터로 한국계인 지니 조 리가 이름을 날렸지만 한국인으로 와인 마스터 타이틀을 거머쥔 이는 아직 없다.

지난해에도 전 세계에서 단 14명만이 새로운 와인 마스터로 이름을 올렸다. 와인의 본거지인 프랑스에서도 한 명만 최종 관문을 통과했고, 아시아에서는 중국인이 새로 와인 마스터 타이틀을 가져갔다. /smahn1@metroseoul.co.kr

맥도날드 ‘맥카페 인기커피 4종 디카페인으로 만나요’

맥도날드는 자사의 커피 브랜드인 ‘맥카페(McCafe)’ 메뉴에 디카페인 커피를 새롭게 선보인다고 2일 밝혔다. 킷서비스레스토랑 업계 최초다.

맥도날드는 기존 커피 메뉴에 디카페인 커피를 추가함으로써 고객들의 선택 폭을 넓혀, 꾸준히 성장하는 국내 커피 시장에서의 입지를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번에 출시되는 디카페인 커피는 아메리카노, 카페라떼, 카푸치노, 에스프레소 등 고객들이 주로 찾는 대표 메뉴 4종으로 구성되며, 가격은 미디엄 사이즈 기준 1000~2000원대다. 카페인에 민감한 고객이나 커피를 자주 마시는 헤비 드링커, 늦은 오후나 심야에 커피를 즐기고 싶은 고객 등 카페인 섭취를 줄이고자 하는 고객들에게 안심 맞춤 선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09년 국내에 선보인 맥카페는 100% 아라비카 원두를 사용한 고품질 커피를 1000~2000원대의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함으로써 커피의 대중화를 이끌었다는 평을 받는다.

/박민용 기자 parkiu7854@

전자랜드, ‘브랜드 대전’ 삼성·LG 인기상품 총출동

전자랜드는 2020년을 맞아 ‘삼성전자·LG전자와 함께하는 새해 첫 브랜드 대전’을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삼성전자·LG전자 브랜드 대전’은 2020년 새해 첫 이벤트로 오는 1월 3일부터 1월 13일까지 11일간 삼성전자 제품을, 1월 10일부터 20일까지 11일간 LG전자 제품을 대상으로 행사를 실시한다.

전자랜드는 ‘삼성전자·LG전자 브랜드 대전’ 기간에 용산본점, 반포점, 중동점, 비산점, 일산점, 주안점, 대전본점, 상무점, 수송점, 중리점, 쌍용점, 상남점, 삼산점, 수성점, 죽전점, 진주성점, 화명점, 운정점, 길동점, 진접점, 세종점, 인후점, 익산점, 오광장점, 도동점, 합포점에서 행사 제품을 500만원 이상 구매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5명을 추첨해 베트남 호치민 트윈도브스 G.C 골프여행 3박 5일권을 제공한다. 해당 골프여행권은 1매당 동반 1인까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이지웰페어 복지카드 고객이 행사 기간동안 삼성전자·LG전자 제품을 200만원 이상 구매할 경우, 전국 놀이동산 및 스포츠 2인 자유이용권을 특별 사은품으로 증정한다.

윤종일 전자랜드 관측그룹장은 “이번 삼성전자·LG전자 브랜드 대전은 고객에게 인기를 얻었던 제품만을 선정해 준비했다”며 “새해를 맞아 가전제품을 구매하고자 했던 고객들에게 좋은 구매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전자랜드는 오는 31일까지 경자년 환위의 해를 맞아 100만원 이상 제품을 구매한 쥐띠 고객에게 파riba게트 생크림 케이크 기프트론을, 생일이 1월인 신규 멤버십 고객 중 100만원 이상 구매한 고객에게는 배스킨라빈스 파인트 교환권을 사은품으로 증정한다. /박민용 기자

‘펫과 여행하려면?’... 펫택시·투어·시터 뜬다

🐾 펫코노미 시대 🐾

📌 반려동물 일자리

‘반려(伴侶)’라는 단어는 ‘짝이 되는 동무’라는 뜻이다. 과거에는 동물을 키운다는 의미가 강했지만 이제는 함께하는 친구라는 의미가 커져 반려동물이란 단어가 친숙하게 쓰이고 있다.

2018년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의 발표에 따르면 국내 반려동물 양육 인구는 약 100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1인 가구 급증과 빠른 고령화 등 현대사회 속에서 관련 시장 규모도 커지고 있다. 이와 함께 반려동물을 위한 여행가이드, 반려동물을 대신 돌봐주는 펫시터, 반려동물의 편안 이동을 돕는 펫택시 등 관련 일자리도 빠르게 늘고 있다.

◆반려동물과 이동에도 걱정 無 ‘펫택시’

차가 없는 반려인의 경우 반려견과 함께 갑자기 이동을 하려면 난감해진다. 일반 택시의 경우 반려동물과의 탑승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지만 이동장을 들고 타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고 위급상황에서는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펫택시를 이용하면 이런 걱정을 덜 수 있다. 펫을 위한 배변패드, 물티슈 등을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으며, 펫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 클래식 음악, 아로마 제품까지 마련하는 등 편리함을 선사한다.

펫 택시 요금은 업체별로 상이하지만 기본요금 7000~8000원에서 시작해 미터당 요금을 추가로 받는다. 서울의

펫산업 폭발성장... 올해 3.3兆 규모 정부 관련 일자리 4.1만개 창출 목표

“펫택시 비싸도 마음 편해” 수요 증가 반려견 동반 여행상품·가이드 ‘주목’



일반 택시 기본요금(3800원)의 두 배 정도 가격이지만 찾는 이들이 늘고 있다.

반려견을 키우는 나 모(33)씨는 “급하게 종합병원에 가야 할 때 반려동물이 있다고 하면 예약을 취소하거나 거절하는 택시가 많아서 불편했는데, 펫택시는 예약만 하면 집앞에서 대기하고 있어서 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며 “한 번 타면 기본 1만원 이상은 나오는데 반려동물과 편하게 이용할 수 있어서 비용이 아깝다는 생각은 한번도 해본 적 없다”고 말했다.

아직 아쉬운 부분도 있다. 펫 택시를 종종 이용하는 김 모(28)씨는 “이용 가능한 택시 수가 적고, 개인 운영으로 네트워크 체계가 잡혀있지 않기 때문에 이용 하루 전이나 적어도 몇 시간 전에 예약해야 하기 때문에 즉시성이 떨어진다”고 밝혔다.

◆반려동물과 함께 해동이 ‘펫투어’

펫과 함께 여행을 떠나려면 준비해야 할 것이 만만찮다. 이동 수단부터 이동장, 동물용품, 숙소까지 생각하면 자칫 여행이 버거운 일로 느껴질 수 있다. 함께 사진을 남기기도 어렵다. 반려동물과의 편안한 여행을 돕는 펫투어는 이런 부분을 공략했다. 숙박부터 차량 이용까지 반려동물을 배려한 환경을 갖췄다. 또한 단체여행의 경우에는 반려동물의 사회성도 키워줄 수 있다.

와그트래블은 반려견과 함께 열차를 타고 신년 해동이 여행을 떠날 수 있는 반려견 동반 해동이 KTX 열차 여행 투어 상품 판매를 최근 진행했다. 서울역에서 출발해 강릉역에 도착하는 KTX를 타고 강릉 강문해변에서 반려견과 함께 2020년 새해 해돋이를 맞이할 수 있다.

전문 펫 가이드가 투어의 시작부터 끝까지 동행하며, 반려견 전용 좌석이 제공되기 때문에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여행을 즐길 수 있다. 해돋이 감상 외에도 반려견 동반 커피 타임 등 반려견과 함께 추억을 쌓을 수 있다.

◆언제 어디서나 돌본다... ‘펫시터’

반려견과 함께할 시간이 없어도 걱정 없다. 원하는 날과 시간만 정하면 집에 방문해 펫을 돌봐주는 펫시터가 있기 때문이다. 어질러진 집안 청소와 배변 정리는 물론 공원 산책, 실내 놀이를 함께 하며 반려동물을 돌봐준다. 펫시터의 집에 반려동물을 맡기는 방법도 있다.

모든 방문 과정을 실시간 영상으로 제공하거나 실시간 GPS 기록을 통해 산책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 등 업체마다 다양한 서비스를 내놓고 있다. 펫시터와 이용자 양측의 신원 조회도 이뤄진다.

해외에서는 펫시터가 전문직으로 인정받아 업무량에 따라 고수익을 보장받는다. 국내에서도 펫시터 양성 과정을 전문적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관련 일자리도 늘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까지 4만1000개의 반려동물 관련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반려동물 관련 산업의 미래도 밝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반려동물 연관산업 발전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5년 1조8994억원에 그쳤던 반려동물 연관산업 규모는 올해 3조3753억원에서 2027년 6조원까지 커질 전망이다. /구서윤 기자 yuni2514@



MASERATI

ALMANAC 070-7840-1715
www.almanac.co.kr

광천동 재개발... 시민아파트 존치 '불투명'

(광주)

광천동 일원에 5611가구 공동주택 시민아파트, 준공50년 최초연립주택 광주 서구-5·18단체, 보존방안 협의



광천동 재개발 사업 조감도. /뉴스스

광주 지역 최대 규모인 광주 서구 광천동 일대 재개발 사업이 본격화된다. 5·18민주화운동의 주요 근거지였던 시민아파트 보존 문제는 협의 중이지만 존치 여부가 불투명하다.

2일 광주 서구에 따르면 서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규정에 근거해 지난해 12월31일 광천동 재개발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을 인가, 고시했다.

광천동 재개발 사업은 서구 광천동 670번지 일원에 42만5984㎡ 규모로 총 5개 단지 53개동 5611가구의 공동주택을 짓는 것이 골자다.

시행계획이 인가를 받으면서 사업 추진이 탄력을 받게 됐다.

이후 감정 평가를 거쳐 올해 상반기 조합원 분양을 마치면 관리처분 인가

를 받는다. 일반 분양은 내년 하반기에 시작될 전망이다.

정비구역내 670-7번지에 위치한 광천시민아파트 보존과 관련해서는 행정청과 재개발조합·주민·5·18단체 간 협의가 아직 진행 중이다.

시민아파트는 6·25한국전쟁 이후 피난민이 모여 살던 천막·판자촌 일대에 지어진 지역 최초의 연립주택이며, 울

해로 준공 50년째를 맞이해 가장 오래됐다. 1980년대를 전후로 지역 민주화운동의 산실이었던 들불야학의 주된 무대이기도 했다.

5·18민주화운동 당시 '시민군 대변인' 윤상원 열사가 1978년부터 시민아파트에 살았으며, 이듬해인 1979년 1월부터는 이 아파트 다동 2층 방에서 야학이 진행됐다. 각종 시국선언문과 계엄군의

만행을 고발한 '투사회보'도 이 곳에서 제작됐다. 이후에도 들불야학 출신 교사와 학생들은 민주화운동에 헌신했다.

때문에 서구와 5·18단체는 시민아파트의 보존 가치가 높다고 판단, 지난해 말부터 재개발조합과 간담회를 갖는 등 시민아파트 존치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현재 조합 측은 시민아파트의 역사적 가치와 존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시간적·경제적 손실을 들어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최근 개발방식을 바꾸고 인가 절차를 신속 진행하는 조건으로 시민아파트 외벽 일부를 재개발 구역 내 근린공원으로 이전 존치하는 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 합의 여부는 불투명하다.

시민아파트 존치·기념공간 조성과 관련해 접점을 찾을 경우 정비계획 변경 절차를 추가로 진행해야 하며, 광주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

/광주=김태수 기자 ts7080@metroseoul.co.kr



1월의 해양치유식품 매생이

완도군

1월의 해양치유식품 '매생이'

전남 완도군은 1월의 해양치유식품으로 무공해 식품 매생이를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청정한 바다에서만 서식하는 매생이는 완도군에서 연간 2601t(2019년 기준)이 생산된다.

철분과 칼륨, 단백질 등을 많이 함유하고 있는데다 특유의 향기와 맛을 지니고 있어 오래 전부터 즐겨 찾았다.

'햇바닥을 데어도 꽃샘추위 전에 매생이국이나 한 번 더 먹자'는 말이 돌 정도로 맛이 일품이다. 매생이국은 '미운 사위국'이라고도 하는데, 사위가 딸에게 잘못하면 친정어머니가 입속을 데일 수 있는 매생이국을 끓여 줬다는 데서 유래한다. 매생이에는 칼륨 함량이 높아 숙취를 해소하고 간질환을 예방하는데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혈액 중 헤모글로빈의 생성과 두뇌 지적 능력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철이 풍부하게 함유돼 있어 어린이의 발육을 위한 골격 형성과 골다공증 예방에도 좋은 식품이다.

완도군 관계자는 "새해에는 바다 향이 가득한 매생이국떡국, 매생이국을 끓여 먹으며 한해를 맞이 해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고 말했다.

/전남=김남중 기자 5555knj@

장성군 관광자원 확대위한 국가정원 기반 조성

장성군이 경자년 새해, 황룡강과 장성호 등 군이 보유한 관광자원의 인프라를 대폭 확대 조성한다고 2일 밝혔다.

지난해 흥(興)길등무 꽃길축제(5월)와 황룡강 노란꽃잔치(10월)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황룡강은 '달빛공연장'과 '향기나는 플라워터널' 등 즐길거리와 휴게시설을 늘리는 한편 발원지, 장진보~광주경계 구간 하천을 정비해 국가정원 지정의 기반을 다진다. 특히 세번의 가을태풍을 이겨낸 100만 송이 해바라기 정원이 조성되었던 황미랜드에는 테마공원을 조성할 예정이어서 관심을 끈다.

주말 평균 5000명이 찾는 '사계절 관광 핫플레이스' 장성호는 제2출렁다리를 준공하고 수변 백리길을 개통한다. 호수 아래 미락단지에 조성 중인 장어정식거리와 함께 향후 장성관광의 발전을 주도할 지역으로 손꼽힌다. 또한 지난해 7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장성 필암서원은 유물전시관 리모델링과 세계유산 명품 들레길 조성사업을 추진해 '세계인의 문화재'로서 품격과 가치를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축령산은 편백숲 공간재



작년 노란꽃잔치

창조사업과 하늘길길 조성사업을 통해 대한민국 대표 관광명소로 만들어간다.

군의 이러한 관광 인프라 구축사업들은 주거 및 교통여건 신장을 가져올 중장기 사업들을 통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군은 서부권역을 연결하는 청운지하차도를 개설하고 스마트 하이패스 전용 IC를 설치해 사통팔달로 교통흐름을 원활히 할 계획이다. 여기에 남면 덕성행복마을 조성 LH3·4·5차 공공임대아파트 건립, 장성공설운동장 준공과 다목적 복지관 '가족센터' 신축 등 주거환경과 복지분야의 획기적인 개선이 인구유입으로 이어지며 군의 성장·발전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한다. /전남=김태수 기자

여수시, 전남 최초로 수소차 충전소 문연다

남도음식문화 큰잔치 3년간 개최차상위계층 청년에 청년저축계좌 임업인에게 연 60만원 수당 지원

2020년 3월 전남지역에서 처음으로 여수시에 수소연료 전지차 충전소가 문을 열게 된다.

여수시는 올해 ▲일자리·경제 ▲관광·문화·교육 ▲복지·보건·여성 ▲농림·수산 ▲교통·건설·환경 등 총 6개 분야 71건이 올해 변경되거나 새롭게 시행된다고 2일 밝혔다.

먼저, 일자리·경제 분야에서는 전남 최초로 수소연료 전지차 충전소가 중흥동 SPG 여수공장 내에 3월경 문을 연다. 지역 일자리 창출과 시민 역량 강화를 위해 청년 희망학교를 운영하고, 소상공인 자금 지원을 기존 4억 5000만 원에서 9억 원으로 늘린다.

관광·문화·교육 분야에서는 지속 가능한 관광을 위해 여수관광 모니터링단을 운영하고, 남도음식문화 큰잔치를 3년간 개최한다. 신입생 교복비 지원 대상을 고등학생까지 확대하고, 다문화 가족과 북한이탈주민 희망 바우처 사업도 벌인다.

복지·보건·여성 분야에서는 차상위계층 취업 청년이 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장려금 30만 원을 지원하는 '청년 저축계좌' 지원 사업이 가장 눈에 띈다. 웅천지구 여수시 육아종합지원센터가 2월부터 육아정보 나눔터와 장난감 대여실 등을 본격 운영하고, 삼산면 초도와 남면 연도 보건지소에 물리치료실이 들어선다. 경로당 소규모 긴급 기능보장사업비도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증가하고, 난임부부 시술비도 최대 110만 원까지 높아졌다. 농림·수산 분야에서는 1년 이상 여



전남 수소경제 선도 비전 선포식

수시에 주소를 둔 경영체 등록 농어 임업인에게 연 60만 원을 지원하는 농어민 공익 수당이 신설됐다. 또 농업인 공동 이용 농산물 가공지원센터가 소라면 복산리에 건립되고, 친환경 수산물 건조기 지원 사업도 첫 선을 보인다.

교통·건설·환경 분야에서는 교통약자 임차택시를 신규로 운영하고, 시내버스 정류소 345개소에 공공 와이파이를 구축해 시민과 관광객의 편의를 높인다. 더불어 여문공원에 제2호 아이나레 놀이터가 조성되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수소차 75대와 전기차 300대를 보급·지원한다.

일반행정·세계 분야에서는 2026여수 세계 섬 박람회 붐업 구간을 지정·운영해 전국적 관심을 모으고, COP28 남중권 유치 시민사회 추진위와 함께 유치 활동도 적극 전개한다. 자연재난 시 최대 1000만 원까지 보장하는 시민 안전보험을 처음으로 추진하고, 웅천 국민체육센터 사업도 본격화한다.

시 관계자는 "올해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에 만전을 다하겠다"면서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등으로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를 지속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전남=김용환 기자 jiacocom@

오산시 '예비 문화도시' 부천시 '문화도시' 선정

경기도 부천시가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2020년 문화도시'로 선정돼 향후 5년간 최대 100억 원 규모의 국비를 지원받는다. 이와 함께 오산시는 '예비 문화도시'로 지정돼 내년도 정식 문화도시 지정 기회를 부여받았다.

2일 도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 12월 30일 2020년 문화도시 7곳과 예비 문화도시 10곳을 각각 선정해 발표했다. 도내에서는 부천시가 문화도시로, 오산시가 예비 문화도시로 각각 지정됐다.

'문화도시'란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지역 문화자원을 활용한 지역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지역 문화공간 조성,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 지역 문화콘텐츠 개발 등을 지원하여 도시 브랜드화를 도모하는 사업이다. 민선7기 경기도는 이재명 도지사의 정책의지에 따라 도내 기초지방정부의 국가정책사업 유치를 위해 대외적 지지의사와 적극적인 협력 표명으로 광역지방정부로서의 위상 제고와 기초지방정부와의 상생관계 구축에 힘을 쏟고 있다. 이와 관련, 경기도는 지난해 8월 오산시, 10월 부천시와 문화도시 지정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신청단계부터 문화도시 지정을 위해 물밑 지원을 펼쳤다. /경기=김승열 기자 kimsy@

오늘의 날씨

1월 3일 (금) 음력 : 12월 9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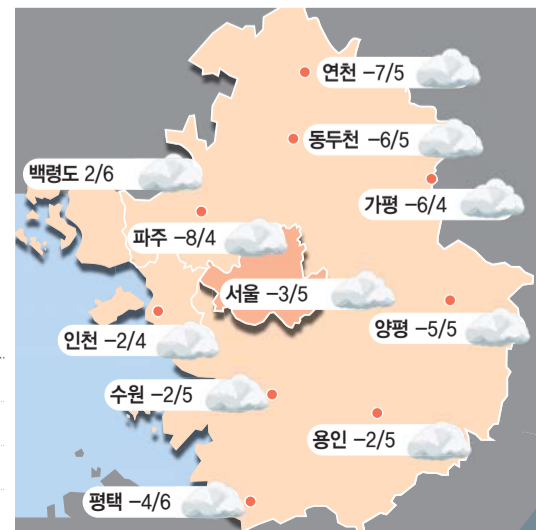
수도권 날씨 -3 ~ 5°C

운동 지수

빨래 지수

세차 지수

외출 지수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박원순 서울시장(오른쪽 세번째)과 구청장들이 2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2020년 서울특별시 시무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제·민생 살리기 ‘공정한 출발선’서 시작”

서울시 이색 시무식으로 경자년 시작

서울시가 이색 시무식으로 서울시정 새해 화두인 ‘공정한 출발선’에 대한 실행 각오를 다지며 2020년 경자년을 시작했다.

시장부터 직원까지 각자가 내 놓은 책을 서로에게 추천해 읽고 싶은 책을 현장에서 교환하는 ‘공유책방’을 열었고, 박원순 시장은 ‘Ted 강연’ 방식으로 신년사를 발표했다. 합합가수 치타는 청년의 애환과 서울시정의 다양한

가치를 가사에 담은 랩 공연을 선보였다.

서울시는 2일 오전 세종문화회관에서 본청, 사업소, 자치구, 시의회사무처, 투자·출연기관 등의 직원 3800여명이 함께한 가운데 시무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경제와 민생을 살릴 대전환은 공정한 출발선의 보장에서부터 시작돼야 한다”며 “모든 재원을 활용해 ‘공정한 출발선’을 만드는 데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이재명 경기지사(앞줄 오른쪽)와 주요 고위공무원들이 소방재난본부 임직원과 신년인사와 덕담을 주고받는 소방재난본부 시무식. /경기도

“생명과 안전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한 의무”

경기도 ‘2020년 시무식’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20년 시무식’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국가의 가장 중요한 의무라고 강조하며,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짓는 주체’로서 자부심과 사명감을 갖고 공직에 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 지사는 2일 소방재난본부에서 열린 ‘2020년 시무식’에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소방재난본부에서 열게 된 것을 하나의 의미로 부여하면 좋겠다”

라고 운을 뗀 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국가의 의무 중 가장 중요한 의무로, 가장 일선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소방공무원들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어 “공직자들이 가진 지위와 영향력을 ‘내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 잠시 위임받은 것일 뿐”이라며 “공직자를 표현하기에 가장 좋은 것이 ‘머슴’인 것 같다. 공직자의 자리는 결국 주인인 국민이 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기=김승열 기자 kimsy@

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제’ 개선

면접수당 지급 기업에 가점 부여

경기도가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안정화를 위해 실시하는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제’가 지원혜택을 늘리는 등 올해부터 개선된 모습으로 다시 찾아온다.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제’는 고용 창출, 노동환경 및 노동자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한내 중소기업에게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해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는 제도다.

이 제도를 통해 일자리 우수기업에 선정된 기업은 고용환경개선 지원, 중소기업육성자금 신청 시 가점부여와 금리우대(0.3%)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지원받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구인업체와 구직자가 윈윈(Win-Win)하는 ‘면접수당 지급 문화’의 확대·정착 차원에서 면접수당을 지급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인증 선정 심의 시 가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경기=김승열 기자

서울시 소유 건축물 564곳 1급 발암물질 ‘석면’ 위해 등급

608곳 조사 92.76% 위해성 등급 54곳 ‘중간’ 510곳 ‘낮음’ 판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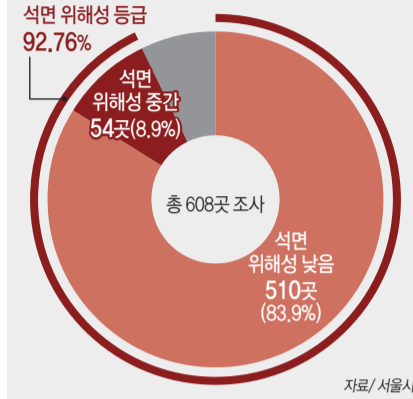
서울시 소유의 건축물 가운데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의 위해성 등급을 받은 곳이 500군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조사 대상 608곳의 92.76%다.

2일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석면이 함유된 시 소유의 건축물은 총 564개소로 이중 54곳이 석면 위해성 ‘중간’ 등급을, 510곳은 ‘낮음’ 등급을 받았다. 나머지 26개소는 무석면 건축물로 판명됐고 2곳은 철거, 16곳은 폐쇄됐다.

석면 위해성 ‘중간’ 등급이 매겨진 곳은 경동주차장(1개동), 관악구 수화통역센터(1개동), 관악산공원(1개동), 관악소방서(1개동), 구로소방서(1개동), 구로주차장(1개동), 길음역 환승주차장(1개동), 남부도로사업소(1개동), 도봉운전면허시험장(2개동), 동대문소방서(1개동), 동부도로사업소(2개동), 동작경찰서(2개동), 무악동새마을금고(1개동), 상수도 수도자재관리센터(1개동), 서남환경(1개동) 등 총 54개소다.

시 소유 석면 함유 건축물을 유형별

서울시 소유 건축물 석면 위해성 평가



자료/서울시

로 살펴보면 업무 시설이 311곳으로 가장 많았다. 문화복지 시설(101개소), 물재생센터(76개소), 상수도 시설(27개소), 의료 시설(14개소), 빗물펌프장(13개소), 주거 시설(11개소), 체육 시설(9개소), 자원회수 시설(2개소)이 뒤를 이었다.

이에 시는 석면 조사 전문가를 통해 위해성을 평가하고 실내공기 중 석면비산농도를 관리하는 등 관련 피해 예방에 나서기로 했다. 총 9120만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시는 이들 건물 564개소 가운데 연면적 500㎡ 이상, 석면자재 사용 면적 50㎡ 이상이거나 뽀칠재(분무재)를 사

용한 건물 204개소에서 석면 비산 농도를 측정한다.

시는 석면에 노출된 건물 중 위해성 정도가 ‘중간’ 등급 이상인 곳에 대해서는 석면을 제거하도록 관리부서에 통보할 계획이다. 또 위해성 평가 결과를 데이터베이스화해 서울시 실내환경 관리 시스템에 공개할 방침이다.

서울시의 ‘석면함유 건축물 현황’ 자료에 의하면 2013년 공공건축물 전수 조사에서 시 소유 건축물 2007개소 중 절반이 넘는 1059개소(52.8%)에서 석면이 검출됐다.

시는 지난 6년간 석면 사용 자제·제거 및 건물 철거·폐쇄 등의 조치를 통해 석면이 나온 건축물 495개를 줄였다. 작년 말 기준 시 소유 석면 함유 건축물은 564개로 2013년 대비 46.74% 감소했다.

시는 오는 7일 석면조사 전문가업체 선정에 위한 공개경쟁입찰을 의뢰하고 이달 21일 입찰공고를 낼 계획이다. 내달 4일까지 전문가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5월 29일까지 석면함유 건축물의 위해성 평가와 석면비산농도측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서울시, ‘시민안전보험’ 도입 재난사고 시 최대 1000만원

주민등록 있으면 자동 가입 자연재해·폭발·화재 등 보장

서울시는 자연재난이나 화재, 붕괴 등의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최대 1000만원을 보상하는 ‘시민안전보험’을 도입했다고 2일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서울시내 주민등록이 돼 있는 사람(등록외국인 포함)이라면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된다. 보장항목에 해당하는 피해를 당했을 경우 보험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시청. /손진영 기자 son@

보장 항목은 ▲자연재해 사망 ▲폭발, 화재, 붕괴 사고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강도사고 ▲스쿨존 내 교통

사고 등이다.

보험금 청구 사유 발생 시 피해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청구서와 구비 서류 등을 갖춰 NH농협손해보험사에 제출하면 된다.

김학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서울시민안전보험은 올해 처음 시행되는 시민안전 정책”이라며 “예상치 못한 사고로 어려움에 처한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라며,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英 미술가·국내 작가 협업… 넓은 가압펌프장 예술 공간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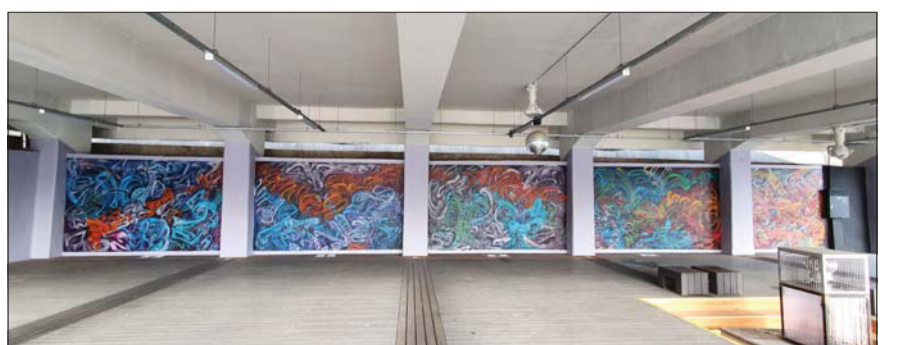
(스티븐 퓨지)

서울시 벽화 작품 ‘용의 노래’ 선택

서울마포구에 자리한 문화비축기지의 넓은 가압펌프장이 예술 공간으로 되살아났다.

서울시는 문화비축기지 내 노후 가압펌프장에서 영국의 공공미술가 스티븐 퓨지와 국내 작가들이 협업해 만든 벽화 작품 ‘용의 노래’를 시민에게 선보인다고 2일 밝혔다.

가압펌프장은 문화비축기지의 진입 공간이면서 문화마당과 다섯 개의 탱크를 잇는 열린 공간이다. 이곳에서는 영국 작가 스티븐 퓨지와 김민수, 이정



서울 마포구 문화비축기지 내 벽화 ‘용의 노래’.

/배효은 씨

재 등 한국 작가들이 함께 제작한 벽화 ‘용의 눈물’을 만나볼 수 있다. 자연 친화적인 재료를 사용해 문화비축기지가 시시각각 변하는 모습을 표현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지난 2017년 문을 연 문화비축기지는 1970년대 석유비축기지를 재생해 만든 문화공원이다. /김현정 기자



[해설] '새벽·로켓·온오프' 전선 넓히는 배송전쟁 03



Life

[라이프] '펫과 여행하려면?' 펫택시·투어 뜬다 L4



‘사랑해요, 밀키스’

주윤발의 우유빛 음료, 30년 지나도 러·홍콩 “사랑해요”

메가히트 브랜드 탄생스토리

롯데칠성음료 ‘밀키스’

‘사랑해요 밀키스’, 당대 최고의 홍콩 배우 ‘주윤발’을 모델로 블록버스터급 광고와 함께 1989년 4월에 출시된 ‘밀키스’는 등장과 함께 국내 음료시장에서 큰 주목을 받았다.

1980년대 후반은 영웅본색의 주윤발, 용형호제의 성룡, 천장지구의 유덕화 등 시대를 대표하는 액션배우들의 활약이 돋보이는 홍콩 느와르(Noir)가 전국을 강타했던 시대였다. 롯데칠성음료는 당시 2030세대가 선호하는 대중문화 트렌드에 주목하고 콜라, 사이다 외의 색다른 탄산음료를 찾는 소비자의 욕구에 맞춰 유성탄산음료 대중화를 목표로 블록버스터급 광고와 함께 밀키스를 출시했다. 밀키스는 기존 TV광고에서는 쉽게 볼 수 없었던 헬기를 동원한 오토바이 추격신 등을 통해 마치 홍콩 느와르 영화의 한 장면을 재연해 놓는 듯한 광고로 화제가 됐다. 마지막 장면에서 주윤발이 외쳤던 ‘사랑해요 밀키스’ 한 마디는 시대를 대표하는 유행어가 되어 밀키스가 발매 이후 유성탄산음료의 독보적 1위자리를 차지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밀키스 성과

밀키스 출시와 함께 국내 유성탄산음료 시장은 본격적인 성장을 시작했으며, 시장 확대에 큰 역할을 한 밀키스는 어느덧 올해로 31살을 맞이했다. 출시 당시 약 250억원의 연매출은 2018년 기준 약 580억원으로 성장했고, 누적매출은 국내 기준으로 2018년까지 약 1조1400억원을 달성했다. 밀키스는 롯데칠성음료 음료 중에서 ‘칠성사이다’, ‘펍시콜라’, ‘델몬트주스’, ‘레스비’ 등에 이어 1조원을 달성한 브랜드다.

밀키스는 국내 유성탄산음료 시장에서 1위 자리를 놓치지 않고 있다. 음료 업계에 따르면 밀키스는 유성탄산음료 시장에서 8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며 2위 브랜드와 격차를 크게 벌이고 있다. 이 점유율은 십 수년간 변동 없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밀키스는 올해 31살이 됐지만 2010년 이후에도 연평균 성장률 약 5%씩 꾸준히 성장을 이어가며 장수 브랜드의 저력을 입증했다.

◆인기비결

밀키스가 31년간 장수하며 소비자에게 꾸준히 사랑받을 수 있었던 비결은 기존 탄

산음료와 차별화된 우유처럼 부드러운 맛에 있다. 새콤달콤한 요구르트향에 입안을 부드럽게 톡 쏘는 탄산감도 빼놓을 수 없는 강점이다. 최근에는 밀키스의 부드러운 맛이 매운 음식과 궁합이 좋아 젊은 세대부터 기성 세대까지 다양한 소비자에게 폭넓게 인기를 끌고 있다.

밀키스의 꾸준한 인기에는 레트로 및 컬래버레이션 마케팅 전략도 빼놓을 수 없다. 지난 2015년에는 tvN 인기드라마 ‘응답하라 1988’의 10화 ‘MEMORY편’의 PPL에 참여해 1989년 발매 당시 핑크빛 라벨 디자인과 광고 영상을 그대로 재현하며 아련한 1980년대의 추억을 시청자들에게 고스란히 전달했다.

식품 및 프랜차이즈 회사와 협업을 통해 선보인 제품도 인기를 끌었다. 2018년 4월 ‘롯데푸드’에서 선보인 ‘밀키스바’는 밀키스를 아이스바 형태로 만든 빙과 제품으로, 밀키스 캔 모양을 그대로 패키지에 넣어 밀키스 음료가 아이스크림 냉동고에 진열된 것 같은 재미를 줬다. 또한, ‘크리스피 크림 도넛’에서 선보인 ‘밀키스 글레이즈드’는 밀키스의 맛을 부드러운 도넛에 적용한 제품으로 이색적인 맛을 찾는 소비자들의 입맛을 사로잡았다.

◆러시아 국민음료로 우뚝

밀키스는 러시아에서 지속적인 수출 성장세와 함께 ‘러시아 국민음료’로 성장하고 있다. 2018년 롯데칠성음료는 러시아에 밀키스 약 100억원의 매출을 올리며 2017년 대비 매출액이 약 20% 증가, 러시아 음료시장에서 ‘음료 한류’를 이끌었다.

러시아 시장에서 ‘밀키스’가 많은 사랑을 받는 이유는 그 동안 러시아인들이 맛보지 못했던 우유가 들어간 탄산음료라는 특별한 맛과 한국에서도 맛볼 수 없는 총 11가지 맛(오리지널, 딸기, 매론, 사과, 파인애플, 복숭아, 오렌지, 망고, 포도, 레몬, 바나나)으로 선택의 폭을 넓혔기 때문이다.

밀키스는 러시아 외에도 홍콩 시장에서 건강한 탄산음료라는 이미지로 어필해 웰빙을 추구하는 젊은층의 입맛을 공략하며 인기를 끌고 있다. 외식문화가 발달한 현지 특성에 주목하고 외식 프랜차이즈를 집중 공략하며 브랜드 인지도를 높인 것이 인기 비결이다. 그 중 홍콩인들이 즐겨먹는 휘귀의 매콤한 맛이

80년대 홍콩 배우 ‘주윤발’ 모델로 유성탄산음료 1위 자리에 큰 역할

우유처럼 부드러운 맛·탄산감 강점 레트로 마케팅으로 추억 선물하기도

러시아 음료시장서 한류 이끌어 홍콩서 건강한 탄산음료로 인기

지난해 30주년 맞아 패키지 새단장 ‘헬로키티’와 손잡고 한정판 출시



밀키스 광고

/롯데칠성음료

부드러운 우유맛과 시원한 청량감이 돋보이는 밀키스와 궁합이 잘 맞았고, 휘귀와 함께 밀키스의 인지도가 높아지자 롯데칠성음료는 복숭아맛, 딸기맛, 매론맛 등을 추가로 선보이기도 하는 등 인기몰이에 나서고 있다.

◆향후전략

롯데칠성음료는 지난해 밀키스 30주년을 맞아 패키지 디자인을 대폭 리뉴얼했다. 출시 이후 두 번의 리뉴얼이 있었지만 이번 리뉴얼은 로고를 비롯해 슬로건, 패키지 디자인 등에 대대적으로 변화를 준 것으로, 기존 밀키스 맛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시대에 맞는 세련된 이미지를 적용해 젊은 층 수요를 확대하고 브랜드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했다.

리뉴얼 밀키스는 기존에 따라 배치됐던 남녀 캐릭터가 다정하고 귀여운 느낌의 커플 캐릭터로 변경되어 ‘우유와 탄산의 짜릿한 만남’을 의미하는 브랜드 이미지를 더 친숙하고 직관적으로 표현하고자 했다. 제품의 로고 하단에 들어가는 브랜드 슬로건은 ‘새로운 느낌! 밀키스’에서 소비자 인지도가 높은 ‘사랑해요! 밀키스’로 변경해 더욱 친숙하게 느낄 수 있도록 했다.

밀키스 30주년의 범용 조성을 위해 지난 4월에는 기존 밀키스 특유의 부드러운 탄산감은 그대로 살리면서 달콤한 숭사탕향에 소다맛을 더한 ‘밀키스 핑크소다’를 출시했다. ‘핑크소다’라는 제품명에서 알 수 있듯이 핑크색 천연색소를 넣어 마시는 즐거움 뿐만 아니라 보는 즐거움까지 더한 제품이다. 주 타깃인 10~20대 여성층에게 어필하기 위해 글로벌 인기 캐릭터 ‘헬로키티’와 손잡고 한정판으로 선보였다.

롯데칠성음료 관계자는 ‘밀키스가 지난 30년간 장수 브랜드로 사랑받을 수 있었던 것은 변함없는 맛과 품질에 대한 꾸준한 노력을 소비자들이 알아줬기 때문이다’며 ‘앞으로도 유성탄산음료 대표 브랜드인 밀키스의 차별성과 정체성을 더욱 공고히 하고 다양한 마케팅을 펼치며 소비자에게 즐겁고 색다른 경험을 주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민웅 기자 parkiu7854@metroseoul.co.kr



밀키스 변천사



1989년 4월 발매

2003년 1차 리뉴얼

2010년 2차 리뉴얼

2019년 30주년 기념 리뉴얼